

www.kofwst.org

2018 여성과총 활동보고서

2018 KOFWST Annual Report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

단체지원사업
학술대회
과학기술 여성리더 육성사업
R&D 성과확산 사업
출판사업
국제협력사업
중장기 정책 실천방안 연구
사회공헌사업
웹/모바일 네트워크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CONTENTS

04
회장 인사말
명예회장 권두언

08
여성과총을 소개합니다.

- 08 소개 및 조직도
- 09 연혁
- 12 임원 & 위원회 명단
- 16 주요사업
- 17 사업추진절차
- 18 회원가입 안내
- 19 회원단체 정보

26
2018 여성과총 주요사업

- 26 단체지원사업
- 28 학술대회
- 32 과학기술 여성리더 육성사업
 - 과학기술 여성리더십과정
 - 과학기술 여성리더스포럼
 - 융합워크숍
 - 여성위원장 간담회
 - 미래인재상
- 51 R&D 성과확산 사업
 - 여성과학자 안전관리
 - 과학커뮤니케이션
- 59 출판사업
- 64 국제협력사업
- 68 중장기 정책 실천방안 연구
- 70 사회공헌사업
- 72 웹/모바일 네트워크

76
젠더혁신연구사업

- 76 젠더혁신연구센터 활동
- 80 인터뷰(Dr. Robyn Norton)
- 84 젠더혁신연구 DB, 웹 사이트소개

88
회원단체소식

124
축하합니다.

128
언론보도

여성과총 2018 활동보고서

발행처. (사)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발행인. 유명희 발행일. 2018년 12월

주소.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405호

전화. 02-565-3701~2 팩스. 02-3452-2912 이메일. ikofwst@kofwst.org 홈페이지. www.kofwst.org

ью은이. 김정혜, 이숙진, 지윤숙, 한정희, 문지영, 이한나, 유연, 최세영, 이준영, 박신영, 이지현 디자인. 그래픽오션 02-3422-5612

연합회 활동에
참여하신
여성과학기술인과
각 단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3년 4개의 회원단체로 출발한 여성과총은 2018년 현재 63개의 국내외 과학기술 전 분야의 여성과학기술단체를 아우르는 연합회로 발전했습니다. 지난 15년간 양성평등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의 자질 함양과 위상 강화를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는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단체 간 소통과 융합이 그 바탕에 있습니다. 본 지면을 통해 연합회 활동에 참여하신 여성과학기술인과 각 단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8년 과학기술과 산업의 융합과 변화가 가속화되는 시기에 여성과총은 40개 단체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창출해 왔습니다.

63개 회원단체가 한자리에 모인 「학술대회」는 인간중심 과학기술에 대한 시의성 있는 주제로 기술혁명의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성과학기술계 대표 포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과학기술 여성리더스포럼」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의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교류의 중심으로서, 9월에는 '유망여성과학기술인 Network' 와 공동으로 부산에서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각 정부 위원회의 여성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리더의 공공리더십이 강조되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정부위원회 여성위원의 공공리더십을 향상하고 실질적인 위원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공공리더십」 특화 과정을 개설하여 여성리더 육성의 기반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커뮤니케이션」 사업은 '4차 산업혁명-변화하는 세상을 주도하기'의 대주제 하에 총 4차례 포럼개최를 통하여, 대중에게 지능정보시대를 정확하게 알리고, 변화하는 세상을 이끄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역할을 조명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여성과총 미래인재상」은 우수한 젊은 여성과학기술인을 발굴·포상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래인재상에 대한 신진 여성과학자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져 여성인력 비율이 낮다고 알려진 공학 분야에도 우수 지원자가 점차 증가하는 등 해마다 다양한 분야의 지원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과총은 앞으로도 신진 여성과학자들이 과학 연구에 더 집중하고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우수 인재 발굴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과학하는 여자들」과 「공학하는 여자들」에 이어서 올해는 「벤처하는 여자들」 시리즈를 출간하여 후배 여성과학기술인들에게 롤 모델을 제시하였고, 저자 초청 강연회를 통해서 여학생들에게도 구체적인 꿈을 심어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남녀 과학기술인 모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 환경 및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을 제안하고자 여성과학자 안전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여성과학자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4년간 활동의 결과물로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등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인류의 산업과 생활방식을 변화시킬 4차 산업혁명의 노정에서 섬세한 감성과 탁월한 과학기술 역량을 갖춘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성과총은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과학기술계 전반에 걸쳐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리더십 증진을 위해 국내외 여성과학기술단체 활성화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더욱 정진할 것입니다.

여성과총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두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유명희

여성과총
창립 15주년을
돌아보며

20주년을
준비하자



여성과과학기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는 한국여성과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여성과총')의 창립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3년 10월 1일, 4개의 여성과학기술단체 회원 30명이 모여 여성과총을 창립하였다.

“정부에서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여성과학기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 법률은 시행계획이 완성되어 2003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시행계획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및 승진 목표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립」, 「여성과학기술단체 육성 및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취업과 성장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제 여성들이 과학기술의 주역으로 등장할 날도 머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역사의 전환점에서 여성과학기술인들이 힘을 모아 국가가 필요로 하는 부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과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창립하게 되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과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설립취지서 중에서)

15년이 지난 현재 여성과총은 63개 단체, 74,000명 회원으로 크게 발전을 하였다. 여성과총은 14개 위원회와 젠더혁신연구센터를 가지는 거대 기구로 성장하였다. 제9대의 회장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의 역량이 현재의 여성과총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나도선 초대회장의 창의적인 추진력, 이혜숙 제2대 회장의 논리적 사고에 의한 큰 그림의 기획력, 김지영 제3대 회장의 온화한 카리스마로 여성과총은 탄탄한 발전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4대 회장을 제가 맡았으나 위암수술로 인해 계획했던 대로 회장직을 수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다행히도 교육과학기술부의 배려로 여성과총이 매년 5억원씩의 정기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 그나마 다행이었다. 최순자 제5대 회장을 거치면서 여성과총은 그 역할과 정관을 꼼꼼하게 재정립하는 기회를 가졌다. 김명자 제6대 회장은

열정과 헌신으로 여성과총을 예산과 조직 면에서 거둔다게 만들었다. 그 후 부드러운 장관 리더십을 발휘하신 백희영 제7대 회장님, 시대의 화두인 원자력 전문가이신 박세문 제8대 회장님, 그리고 세계적인 여성과학자이신 제9대 유명희 회장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회장님들의 수고로 여성과총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사회에까지 큰일을 할 수 있는 단단한 조직이 되었다.





15년간 여성과총은 설립목적에 맞게 여성과학기술단체를 유기적으로 연합하게 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양성평등의 개념에 입각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자질 함양과 고용평등을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 역량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해 왔다고 생각한다.

이제 여성과총이 창립 20주년을 바라보며 미래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본다.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포용적 미래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싶다. 여성과총 조직 가운데 정책연구소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사회공헌위원회와 국제협력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하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아직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의 국가적 지원 정책과 여성과총이 그 동안 쌓아온 경험 등을 제공하고, 그 정책이 실현되도록 돕는 일 등 우리의 성공적인 경험을 나누는 일들을 시작하면 좋겠다.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법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지구촌 어느 곳이든 기술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 고용, 복지와 사회안전망, 그리고 양극화 해소 등 해당분야에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작은 기술과 정보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는 큰 기쁨을 누리고 싶다.

제4대 회장,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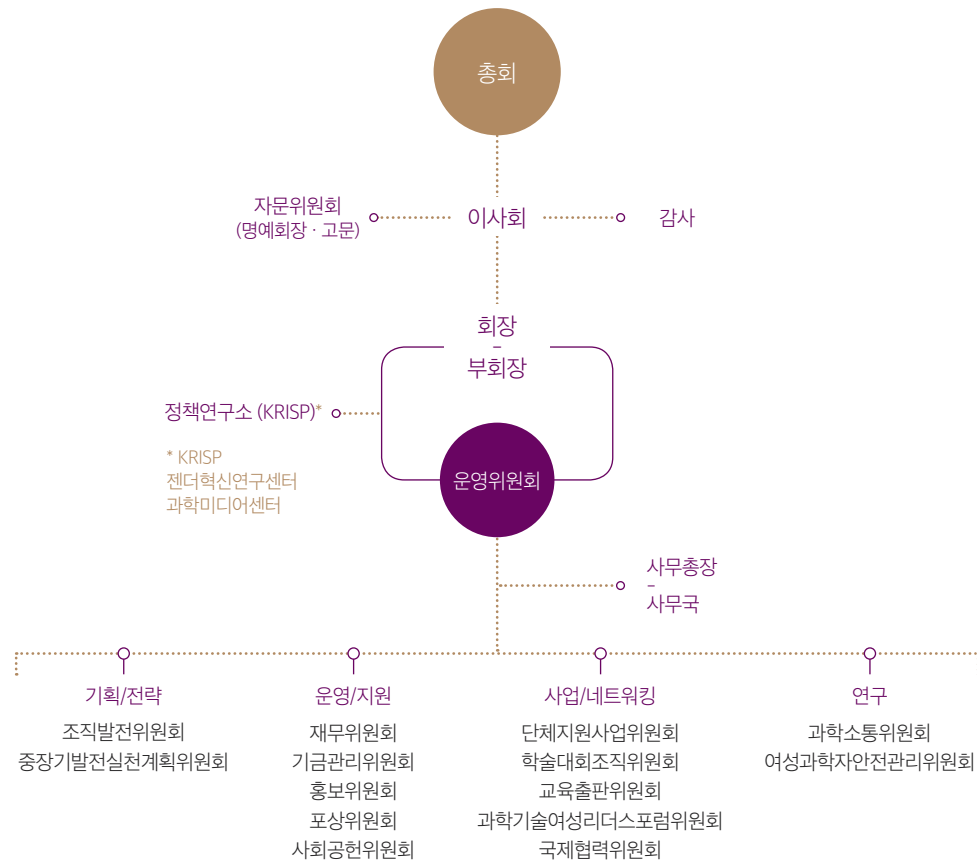
권길자

여성과학자를 소개합니다

- 
설립일
2003년 10월 1일
- 
회원수
74,000여 명
- 
회원단체수
63개 단체 (정회원 56개, 협력회원 7개)
- 
설립목적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여성과학기술단체를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발전을 도모하며, 양성평등적인 개념에 입각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자질 함양과 고용 평등을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조직

회장 1인, 부회장 10인을 포함한 이사 60인, 총무 4명, 감사 2인, 위원회, 사무국



연혁

- 2003**
 - 10월 2003 창립총회 / 회원단체 4개로 발기 초대 나도선 회장(울산대학교 교수) 취임
- 2004**
 - 3월 사단법인 설립 허가
 - 10월 제1차 심포지엄 및 2004 정기총회 / 회원단체 13개로 증가 소식지 '여성과학기술' 창간호 발행
- 2005**
 - 6월 사무국 이전(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904호)
 - 9월 단행본 '여성, 과학을 만나다' 출판
 - 11월 2005 아모레퍼시픽 여성과학자상 시상식
- 2006**
 - 1월 2대 이혜숙 회장(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취임
 - 3월 제1회 한영 여성과학자포럼
 - 8월 2006 융합과학기술 학술대회 / 2006 아모레퍼시픽여성과학자상 시상식
 - 10월 제2회 한영 여성과학자 포럼
 - 11월 단행본 '여성, 과학의 중심에 서다' 출판
- 2007**
 - 7월 회원단체 21개로 증가
 - 8월 2007 융합과학기술 학술대회 / 2007 아모레퍼시픽여성과학자상 시상식
 - 10월~12월 21세기 여성리더스포럼
 - 11월 제3회 한영 여성과학자포럼
 - 12월 단행본 '과학으로 맛있는 직업 따라하기' 출판
- 2008**
 - 1월 2008 정기총회 / 3대 김지영 회장(경희대학교 교수) 취임
 - 1월~11월 21세기 여성리더스포럼
 - 2월 제1회 한·중·일 여성과학리더스포럼
 - 8월 단행본 '여성과학리더를 만나다 - 내일의 마리 퀴리를 기다리며', 'Celebrating Women of Outstanding Achievement' 출판
 - 9월 아태 여성과학기술 리더스 포럼 / 회원단체 26개로 증가
 - 10월 제4회 한영 여성과학자포럼 2008 융합과학기술 학술대회 / 2008 아모레퍼시픽여성과학자상 시상식
- 2009**
 - 1월~10월 21세기 여성리더스포럼
 - 7월 회원단체 29개로 증가 / 소식지 '여성과학기술' 제7호 발행
 - 10월 2009 여성과학 학술대회 / 2009 아모레퍼시픽여성과학자상 시상식 제2회 한·중·일 여성과학리더스포럼
 - 11월 제5회 한영 여성과학자포럼
- 2010**
 - 1월 4대 전길자 회장(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취임
 - 1월~11월 21세기 여성리더스포럼
 - 2월~12월 차세대 리더스포럼
 - 10월 회원단체 32개로 증가
 - 11월 제3회 한·중·일 여성과학리더스포럼 2010 여성과학 학술대회 / 2010 아모레퍼시픽여성과학자상 시상식 2010 미래인재상 시상식 및 임시총회 단행본 '여성과학리더를 만나다 - 내일의 마리 퀴리를 기다리며 II', 'Celebrating Women of Outstanding Achievement II' 출판기념회

2011

1월
5대 최순자 회장(인하대학교 교수) 취임

1월~11월
21세기 여성리더스포럼

6월~11월
국회의원·여기자·여성과학기술인 공동포럼

9월~12월
단행본 'Who's Next' 1~4권 출판

10월
2011 여성단체 연대 대토론회

11월
2011 아시아 여성 예코과학기술포럼
2011 여성과총 학술대회 / 미래인재상 시상식

2012

1월
6대 김명자 회장
(전 환경부 장관, 17대 국회의원) 취임

2월~12월
원자력 전문가포럼

9월
청소년 인터넷 건전 문화 정착 포럼
시리즈 국제포럼 / 청소년 포럼 / 학부모 워크숍

11월
여성과총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시리즈
1. 제4회 한·중·일 여성과학리더스포럼
2. 2012 한중일 여성원자력 안전포럼
3.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발전 공동 심포지엄
4. 2012 여성과총 학술대회, 미래인재상 시상식, 멘토링

12월
회원단체 39개로 증가

2013

2월-12월
원자력 커뮤니케이션 포럼

4월
회원단체 40개로 증가

5월
여성과총 창립 10주년 기념 총서
'원자력 트릴레마' 출판기념회

7월~12월
환경복지포럼

11월
2013 여성과총 10주년 기념식 & 학술대회 / 미래인재상 시상식
제5회 한·중·일 여성과학리더스포럼
2013 아시아 여성 예코과학기술포럼

2014

1월 - 11월
7대 백희영 회장(전 여성가족부 장관, 서울대학교 교수) 취임
젠더혁신포럼(1월, 10월), 해외연사초청세미나(3월, 11월), 워크숍(8월), 국회토론회(11월)

2월, 6월
중장기 발전계획 포럼(4회), 중장기 정책포럼(2회)

2월~12월
여성리더스포럼
(3월, 5월, 7월, 9월 광주)

7월
2014 CKC, UKC(8월), AKC(11월), 제6회 한중일 여성과학리더스포럼

7월
2014 CKC, UKC(8월), AKC(11월), 제6회 한중일 여성과학리더스포럼

11월
2014 여성과총 학술대회, 글로벌 한인여성과학기술단체 네트워크 포럼

11월
'14년도 사업성과점검 및 '15년도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토론회

12월
신규 회원단체 1개 영입, 회원단체 총 48개로 증가

2015

1월
과학기술 여성리더스포럼
(1월, 3월, 5월, 9월 안동, 10월)

2월~12월
과학기술젠더혁신연구포럼(10회), 8월 워크숍, 10월 토론회
(한국과학사학회 공동주최), 과학기술젠더혁신연구 워크숍 (Stanford University)

4월~6월
과학기술여성 리더십과정(8주과정)

6월~11월
무지개청소년센터 영양교육, 치과검진, 우주청소년체험센터 캠프, 과학관 수학박물관 방문 등

7월
EKC, CKC, UKC KOFWST special session 개최

8월
제2회 글로벌여성한인과학기술단체 네트워크 포럼, 제7회 한중일 여성과학리더스포럼

10월
신규회원단체 1개(협력회원) 영입, 회원단체 총 55개로 증가

11월
2015 여성과총 학술대회 / 미래인재상 시상식 / 여성과학기술인 연차대회

12월
'평행우주속의소녀' 출판기념회

2016

1월
8대 박세문회장(세계여성원자력 전문인협회 회장) 취임
부설연구소 설립 및 산하 센터 설립
회원단체 융합워크숍 1~2차

1월~12월
과학기술 여성리더스포럼(4회)

2월
사무국 이전(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405), 부설 정책연구소 현판식

4월~10월
과학커뮤니케이션 포럼(4회)

4월~11월
무지개청소년센터 동아야놀자, 꽃누르미, 수학박물관, 과천과학관 체험, 치과검진 등

5월~8월
2016 EKC(5월), CKC, UKC(8월)

6월
여성과학기술인 안전관리 국·영문 리플릿 발간
회원단체 57개로 증가

6월~11월
젠더혁신연구포럼(6회)

7월
KOWSEAP 공동 워크숍, GNetKOWST포럼

8월
미래부 차관 초청 단체장 간담회

9월
연구소 개소기념 심포지움

11월
2016 여성과총 학술대회
2016 정기총회
'거침없이 도전한 여성과학자' 번역서 시리즈 출간

2017

2월
회원단체 융합워크숍

3월
젠더혁신연구센터 1주년 기념포럼

3월~4월
'과학하는 여자들' 독후감 공모전

4월~12월
과학기술 여성리더스포럼(4회)

5월~7월
과학기술여성리더십과정(8주 과정)

5월~9월
과학커뮤니케이션포럼(3회)

6월
'과학하는 여자들' 저자 강연회(3회)

7월-8월
2017 EKC, CKC, UKC KOFWST 세션

10월
'거침없이 도전한 여성과학자' 번역서 시리즈 완간

10월~12월
저자가 찾아가는 북토크(8회)

11월
회원단체 60개로 증가
2017 학술대회, 정기총회
Gnet KOFWST 네트워크포럼

12월
8, 9대 임원 이·취임식, 출판기념회

2018

1월
9대 유명희 회장(한국과학기술 연구원 책임연구원) 취임
회원단체 융합워크숍
3차년도 젠더혁신 연구자워크숍

2월~12월
단체지원사업 선정, 수행, 평가

3월
여성과학자 안전관리 세미나
제3회 발간도서 독후감공모전
젠더혁신 국회토론회

3월~4월
과학기술여성 리더십과정
(3기, 공공리더십 8주 과정)

3월~12월
과학기술 여성리더스포럼(4회)

4월
회원단체 63개로 증가
사회공헌사업-이주배경청소년 과학진로지원(드론교육과 실습)
'공학 하는 여자들' 저자 강연회 (4회)

4월~12월
과학커뮤니케이션 포럼(4회), 과학웹진 발간(19회)

5월
젠더혁신연구포럼, 연구DB구축 워크숍
사회공헌사업-이주배경청소년 과학진로지원(이동치과병원)

5월~11월
여성과학기술인이 찾아가는 북토크 (충청, 전라, 경상 외 3곳)

6월
CKC 2018 KOFWST-KWSE 공동포럼
IUBMB 2018 젠더혁신연구 세션
해외 젠더혁신전문가 초청 포럼

6월~12월
사회공헌사업- 이주배경청소년 과학 진로지원(장학금 수여·상, 하반기 장학금, 누적 55명, 1700만원)

7월
의생명과학 젠더연구 가이드라인 발간

7월~10월
여성과학자 안전관리 연구실 문화 캠페인(3차례 수행)

7월~12월
여성과학기술인 이슈 브리프 발간

8월
여성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단체장 간담회
AKC 2018 KWISE-KOFWST Forum
EKC 2018 EKWSEA-KOFWST 공동포럼

9월
여성건강과 젠더혁신 국제심포지엄

10월
글로벌 여성과학기술단체 네트워크(GNet) 포럼
정기총회, 학술대회, 미래인재상 시상식

벤처하는 여자들 (과학하는 여자들 세 번째 시리즈) 발간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정판 발간
ICES 2018 젠더혁신 연구세션
2018 회원단체 만족도 조사

10월~11월
과학기술여성 리더십과정 (4기, 공공리더십 6주과정)

11월
사회공헌사업-이주배경청소년 과학진로지원(이동치과병원)
AKC 2018 KOFWST-KOWSEAP 공동세션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국회간담회

12월
단체지원사업 평가

9대 임원 (2018-2019) 명단

회장	유명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부회장	권오남	서울대 수학교육과 교수
	김나영	서울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문애리	덕성여대 약학대학 교수
	백은옥	한양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서은경	전북대 반도체과학기술학과 교수
	오명숙	홍익대 신소재화학시스템공학부 교수
	이연희	서울여대 자연대학 교수
	이유미	국립수목원 원장
	임미숙	KT 융합기술원 Service 연구소 상무
최영주	POSTECH 수학과 교수	
감사	윤정한	한림대 식품영양학과 명예교수
	김소연	한국수력원자력(주) 방사선보건원 원장
총무	여의주	가천대 의과대학 교수
	오미혜	자동차부품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원아	모자이크경영사무소 대표
	임보혜	KAIST 수리과학과 교수
이사	강근욱	국립한경대 영양조리과학과 교수
	강미아	국립안동대 환경공학과 교수
	강선미	서경대 전자공학과 교수
	권숙교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권영미	충남대 전파정보통신학과 교수
	기유경	(주)진전기엔지니어링 부사장
	김명숙	제주대 생물학과 교수
	김미혜	충북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
	김영미	경희대 의과대학 교수
	김용애	한국외국어대 화학과 교수
	김정혜	삼성서울병원 치과 교수
	김종희	대한약사회 여성보건위원장
	김태희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현숙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김희승	가톨릭대 간호대학 교수
	류은경	의료법인자인의료재단 자인메디병원 이사장
	문남미	호서대 컴퓨터정보공학부 교수

박복희	목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백현옥	분당제생병원 국제진료센터장
손미영	한국방송통신대 생활과학과 교수
양호순	부산대 물리학과 교수
여의주	가천대 의과대학 교수
오미혜	자동차부품연구원 책임연구원
유은숙	숭실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이경혜	창원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이경희	(주)다인그룹ENG건축사사무소 대표
이난숙	(주)한양티이씨 부사장
이송미	세브란스병원 영양팀장
이숙경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
이승숙	한국원자력의학원 병리과장
이영숙	호원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이영은	원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이은령	숙명여대 아태여성정보통신원 교수
이은옥	덕성여대 텍스타일디자인대학 교수
이정순	충남대 의류학과 교수
이종은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이지연	중원대 생체의공학과 교수
임보혜	KAIST 수리과학과 교수
장현숙	(주)제이드건축사 사무소 대표
정건희	호서대 건축토목환경공학부 교수
정경희	인하대 신소재공학과 교수
정문자	수원대 데이터과학부 교수
정선경	자동차부품연구원 본부장
정영미	강원대 화학과 교수
차은희	호서대 제약공학과 교수
최은옥	인하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최은희	인천재능대 정보통신과 교수
최정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2018년 위원회

조직발전위원회

위원장	강선미	서경대 전자공학과 교수	
	이종은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위원	권영미	충남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김진수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태희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희승	가톨릭대 간호대학 교수	
	류은숙	부경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박화진	숙명여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	
	장혜원	신홍정보통신(주) 대표이사	
	정건희	호서대 토목공학과 교수	
	정옥희	순천대 물리교육과 교수	
	조희금	대구대 교학부총장	
	최은희	인천재능대 정보통신과 교수	
	한은미	전남대 부총장	
	총무	여의주	가천대 의과대학 교수

중장기발전계획실천위원회

위원장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	
위원	권오남	서울대 수학교육과 교수	
	김미혜	충북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백은옥	한양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서은경	전북대 반도체과학기술학과 교수	
	심정민	KISTEP 연구위원	
	엄미정	STEP 연구위원	
	오명숙	홍익대 신소재화학시스템공학부 교수	
	이은경	전북대 과학학과 교수	
	이종은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센터장	
	총무	오미혜	자동차부품연구원 책임연구원

단체지원사업평가위원회

위원장	기유경	(주)진전기엔지니어링 부사장
	이영은	원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최영주	POSTECH 수학과 교수
위원	김건희	덕성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문남미	호서대 컴퓨터정보공학부 교수
	김규린	건축사사무소 좋은집 대표이사
	김훈주	세한대 수학과 교수
	안설아	KISTI 계산과학공학센터 책임연구원
	조성경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강인숙	경희대 의과대학 교수
	최영미	성결대 미디어소프트웨어학부 교수
	최영림	백림치과의원 원장
	유정숙	서울시립과학관 교육지원과 주무관
총무	오미혜	자동차부품연구원 책임연구원

재무위원회

위원장	정문자	수원대 데이터과학부 교수
위원	한은옥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위촉교수
	이명선	청주대 바이오메디컬학과 교수
총무	임보혜	KAIST 수리과학과 교수

교육출판위원회

위원장	권오남	서울대 수학교육과 교수
	여의주	가천대 의과대학 교수
위원	강인숙	경희대 의과대학 교수
	김인선	계명대 생명과학전공 교수
	남영미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진아	KAIST 전산학과 교수
	이숙경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
	이종은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이호영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
	최영림	백림치과의원 원장
	한은미	전남대 부총장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2018년 위원회

홍보위원회

위원장	강선미	서경대 전자공학과 교수
위원	이숙경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
	김기은	서경대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송수진	한미글로벌 국내사업부 이사
	이지연	중원대 생체의공학과 교수
	임덕신	홍익대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교수
	홍현숙	(전)한국인터넷진흥원 센터장

포상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서울여대 자연대학 교수
	권숙교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위원	김봉욱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병원장
	김태희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현숙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문남미	호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간사	정선경	자동차부품연구원 본부장
총무	이원아	모자이크조경사무소 대표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김미혜	충북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이숙경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
총무	임보해	KAIST 수리과학과 교수

학술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백은옥	한양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정선주	단국대 생명융합학과 교수
총무	오미혜	자동차부품연구원 책임연구원

리더스포럼위원회

위원장	문애리	덕성여대 약학대학 교수
	오명숙	홍익대 신소재화학시스템공학부 교수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위원	김설주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연구교수
	노은주	KIST 책임연구원
	박영순	ANU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사장
	박정희	서울대 의류학과 교수
	손미원	(주)바이로메드 전무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
	정은옥	건국대 수학과 교수
	최영림	백림치과의원 원장
총무	이원아	모자이크조경사무소 대표

여성과학자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영미	경희대 의과대학 교수
	김용애	한국외국어대 화학과 교수
위원	김선영	덕성여대 약학대학 연구교수
	김소연	한국수력원자력(주)방사선보검원장
	김숙자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기술사
	김진수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영순	ANU디자인건축사사무소 사장
	박정호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박태균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회장
	신현정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이미옥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
	이승숙	한국원자력의학원 병리과장
	이정학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임신예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승필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연구실정책팀장
	한정열	단국대의대 제일병원 산부인과 교수
총무	이원아	모자이크조경사무소 대표

과학소통위원회

위원장	이종은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유은숙	숭실대 소프트웨어학부 초빙교수
위원	강미아	국립안동대 환경공학과 교수
	김미혜	충북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은주	대한약사회 학술위원장
	도경화	건국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이영숙	호원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이영은	원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이지연	중원대 생체의공학과 교수
	임보해	KAIST 수리과학과 교수
	정건희	호서대 건축도목환경공학부 교수
간사	한은옥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위촉교수
총무	홍수린	차의과학대학 바이오공학과 교수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최영림	백림치과의원 원장
	기유경	(주)진전기엔지니어링 부사장
위원	김안근	숙명여대 명예교수
	이레나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
	이명선	청주대 바이오메디컬학과 교수
	이원아	모자이크조경사무소 대표
	임소영	충남대 산학협력 증정교수
	장녀	대림산업 부장
	장현숙	(주)제이드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정문자	수원대 데이터과학부 교수
	한은옥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위촉교수
	한화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총무	여의주	가천대 의과대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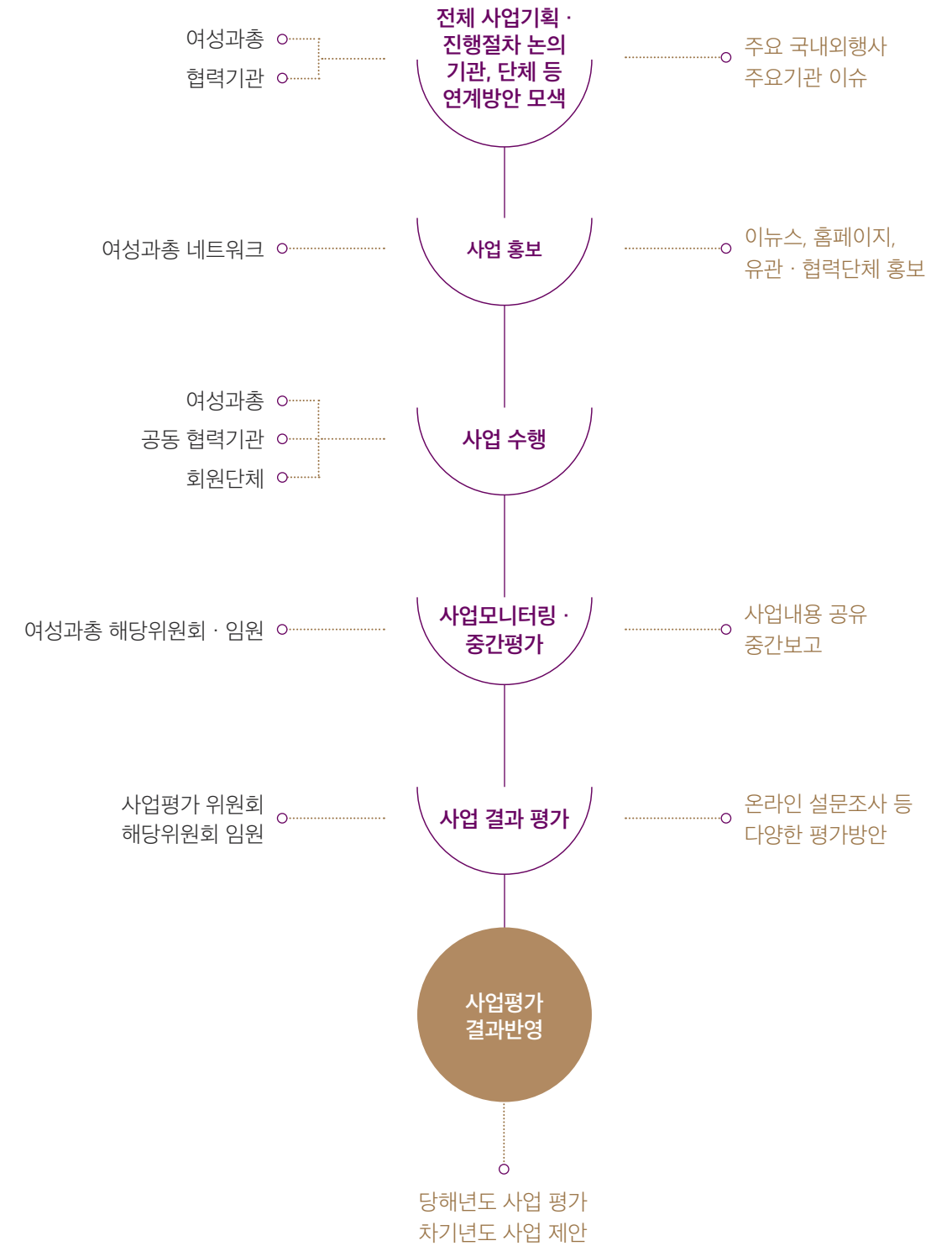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이혜숙	젠더혁신연구센터 수석연구원
위원	김안근	숙명여대 약학대학 명예교수
	백희영	젠더혁신연구센터 센터장
	전길자	이화여대 화학과 명예교수
	정문자	수원대 데이터과학부 교수

2018 주요 사업



사업추진절차



회원가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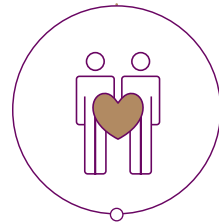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여성과학기술단체를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발전을 도모하며, 양성평등적인 개념에 입각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자질 함양과 고용 평등을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입심:

신규회원의 가입은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가입자격:

정관 제5조(회원의 자격과 종류)에 의거하여 다음 기준에 의한다.



제5조 (회원의 자격과 종류)

-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본회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협력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③ 정회원은 과학기술분야의 단체로 회원 중 여성의 비율이 70% 이상인 단체, 또는 과학기술단체의 여성위원회로서, 여성회원이 100명 이상인 단체로 한다. 단, 회원 100인 미만의 단체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④ 협력회원은 본회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 ⑤ 회원의 자격요건, 인회양식, 절차 및 방법, 재평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정회원

자격

과학기술분야의 단체로 회원 중 여성의 비율이 70% 이상인 단체, 또는 과학기술단체의 여성위원회로서, 여성회원이 100명 이상인 단체

회비

대의원 수에 비례하며, 이사회에서 정함

협력회원

자격

본회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법인과 단체

회비

이사회에서 정함

준회원

자격

과학기술분야의 단체로 회원 여성의 비율이 70% 이상인 단체, 또는 과학기술단체의 여성위원회로서, 여성회원이 100명 미만인 단체

회비

이사회에서 정함


회원단체 정보

 (사)여성기업인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2001년 전현경	02-2198-5511 kibwa@kibwa.org www.kibwa.org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735호
 (사)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	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 2004년 한은미	062-530-4180 jjeongeun31@naver.com http://www.wonese.or.kr/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용봉동)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5호관 B동 104호(광전자정보 실험실)
 글로벌여성ICT네트워크	글로벌여성ICT네트워크 2013년 박화진	02-515-2602 gwinkorea@gmail.com www.gwin.or.kr 서울시 은평구 가자로 377, #402
 대구경북여성과학기술인회	대구경북여성과학기술인회 2004년 하정희	053-753-3368 haekyung1001@hanmail.net kyouss@hanmail.net phksha@naver.com www.dgwise.or.kr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96길 36-1, 2층(만촌동 848-9)
 대한가정학회	대한가정학회 1947년 조희금	02-561-6446 khea50@chol.com www.khea.or.kr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분관 410호(한국과학기술회관)
 대한금속·재료학회	대한금속재료학회 여성위원회 2014년 임혜인	02-557-1071 metal@kim.or.kr www.kim.or.kr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6길 38, 대한금속재료학회회관 6층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 여약사회 1980년 조덕원	02-556-5184 kpakjy@naver.com www.kpanet.or.kr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94(서초동, 대한약사회관)
 대한여성건축사회	대한여성건축사회 1994년 이경희	02-3486-9761 hanmaru10@hanmail.net www.kifra.or.kr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60-14 재영빌딩 5층
 대한여자치과의사회	대한여자치과의사회 1971년 박인임	02-465-0488 kwda0488@hanmail.net http://kwda.org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257 치과의사회관 309호
 (사)대한여한의사회	대한여한의사회 1965년 최정원	02-3663-8003 alkom1@daum.net alkom.or.kr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91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303호
 대한의용생체공학회	대한의용생체공학회 여성위원회 2018년 이레나	02-2650-2021 kihye.han@gmail.com www.kosombe.or.kr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9, 서초월드오피스텔 1407호(서초동 1355-3)
 대한전기학회	대한전기학회 여성과학기술위원회 2016년 이난숙	02-553-0151 account@kiee.or.kr www.kiee.or.kr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901호)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1995년 이영미	02-749-0745 koreajcn@hanmail.net http://koscom.or.kr/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 213-12 현대하이델 904호
 KCS 대한화학회	대한화학회 여성위원회 2005년 김진수	02-953-2095 office@kcsnet.or.kr www.kcsnet.or.kr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19 한국화학회관 4층
 대한환경공학회	대한환경공학회 여성과학위원회 2012년 조경숙	054-820-6267 kosenv@kosenv.or.kr www.kosenv.or.kr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09 코리아비즈니스센터 1309
 (사)동아시아식생활학회	동아시아식생활학회 1991년 강근옥	foodjournal@naver.com easdl.or.kr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301호
 동아시아여성과학기술인회	동아시아여성과학기술인회 2012년 김향숙	prof9999@naver.com blog.naver.com/eaststar1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31(402호)
 CCA 국립복식문화학회	복식문화학회 1993년 장동림	0505-284-2840 costumeculture@hanmail.net http://www.costumeculture.or.kr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50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환경학과 내 (사)복식문화학회 사무국
 WBF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2001년 정선주	02-3452-2031 master@womenbioforum.org www.womenbio.org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504호(한국과학기술회관신관)
 NAWSE 유망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	유망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 2007년 김명숙	eunkyung21c@knu.ac.kr http://cafe.daum.net/nawse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교 7, 경남대학교 제1공학관 8층 연구실
 지속가능과학회	지속가능과학회 2010년 김수옥	02-949-0155 sosskorea@naver.com http://sustainabilityscience.kr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102-63(서달로13길 11-15)

	충북여성과학기술인회 2005년 이지연	043-261-3270 cbwist@hanmail.net www.cbwist.or.kr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중원대학교 MI1826호
	한국간호과학회 1970년 김희승	02-567-2590 kan@kan.or.kr www.kan.or.kr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814호
	한국건설관리학회 여성위원회 2000년 정영미	02-556-5184 nonmoon@kicem.or.kr www.kicem.or.kr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101호
	한국공업화학회 여성인재육성위원회 2001년 정영미	02-594-4511~2 ksiechem@chol.com www.ksiec.or.kr 서울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198, 905(방배동, 오릭스빌딩)
	한국기술사회 여성위원회 2002년 기유경	02-2098-7111 ywlee@kpea.or.kr www.kpea.or.kr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신관 501호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여성위원회 2014년 안은영	051-712-9602 kmms1@kmms.or.kr www.kmms.or.k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벅산e센텀클래스원 504호
	한국물리학회 여성위원회 2002년 정옥희	02-556-4737 office@kps.or.kr www.kps.or.kr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본관 901호
	한국생활과학회 1983년 손정민	010-4085-5433 kahe@kahe.or.kr www.kahe.or.kr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460(프라임관 4층 임상영양실형실)
	한국세라믹학회 여성세라미스트부회 2006년 이종숙	02-584-0185 ceramic@kcers.or.kr kcers.or.kr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76, 머리제빌딩 403호
	한국수자원학회 여성위원회 2011년 정건희	02-561-2732 sujw@chol.com www.kwra.or.kr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37 한신리빙타워 302호
	한국시니어여성과학자 협의회 2012년	02-581-7536 jke540@naver.com www.i-dle.or.kr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0-17
	한국식생활문화학회 1984년 김혜영	070-8878-6955 foodculture@food-culture.or.kr http://www.food-culture.or.kr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15 대우도빌 1304호
	한국식품조리과학회 1984년 류은순	070-4244-8126 kfcs11@hanmail.net www.kfcs.org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20, 412호(역삼동 현대역삼벤처텔)
	한국여성건설인협회 2002년 김태희	02-542-9963 kowsae@naver.com http://www.kowsae.or.kr/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40,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별관 지하 1층
	한국여성건축가협회 1982년 장현숙	02-581-1340 kifa1340@hanmail.net www.kifaonline.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5길 20, 1314호(역삼동, 역삼벤처텔)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2004년 정경희	02-6009-8810 witeck@witeck.or.kr www.witeck.or.kr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
	한국여성발명협회 1993년 윤명희	02-538-2710 kwia@inventor.or.kr www.inventor.or.kr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지식재산센터 6층(역삼동)
	한국여성수리과학회 2005년 정문자	010-4940-7072 kwms2004@gmail.com www.kwms.or.kr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 수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104호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2000년 이승숙	042-866-4201 wink@winkorea.or.kr www.winkorea.or.kr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원자력성과학산관 E7동 203호
	한국여성정보인협회 1992년 최은희	02-701-9417 winfo@winfo.or.kr winfo.or.kr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13(노고산동 신촌르메이에르타운2차 610호)
	한국여성해양포럼 2009년 이희일	031-400-6263 hilee@kiost.ac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787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219호

	한국여자의사회 1956년 이향애	02-704-9501 kmwa024@daum.net www.kmwa.or.kr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37길 46, 정우빌딩 305호
	한국영양학회 1967년 차연수	02-3452-0431 kns1@kns1.or.kr www.kns.or.kr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과학기술회관 신관 804호
	한국의를산업학회 2009년 채진미	053-721-7481 ksci989@korea.com www.clothing.or.kr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1561-4 한국패션산업연구원 4층
	한국의를학회 1976년 박정희	02-844-3601 ksct@chol.com http://www.ksct.or.kr 서울시 영등포구 시흥대로 589-8, 201-1305호(대림동, 신대림자이)
	한국임상영양학회 2010년 이승미	02-969-7715 kscn@korscn.or.kr http://www.korscn.or.kr/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40, 202호(여의도동)
	한국자동차공학회 여성위원회 2013년 최지선	02-564-3971 car@ksae.org www.ksae.org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길 21, 13층(파라다이스벤처타워)
	한국전기화학회 여성위원회 2009년 송승완	02-568-9392 mail@kecs.or.kr www.kecs.or.kr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88 한방포스빌 1715호
	한국정보과학회 여성위원회 2012년 권영미	02-588-4002 ejmoon@kiise.or.kr http://www.kiise.or.kr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76, 401호(방배동, 머리제빌딩)
	한국정보보호학회 여성위원회 2014년 김윤정	02-564-9333 kiisc@kiisc.or.kr www.kiisc.or.kr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7, 909호(역삼동 성지하이츠3차)
	한국정보처리학회 여성위원회 2013년 조경은	02-2077-1414 kips@kips.or.kr http://www.kips.or.kr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9(한강로2가) 용성비즈텔 1002호
	한국정보통신학회 여성ICT위원회 2016년 우성희	051-463-3683 kiice@kiice.org http://www.kiice.org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유원오피스텔 1802(부전동)
	한국통계학회 여성위원회 2018년 이태림	02-3668-1456 twoseven27@knu.ac.kr http://www.kss.or.kr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803호
	한국통신학회 여성위원회 2001년 김윤희	02-3453-5555 kics@kics.or.kr www.kics.or.kr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0-18 현대기림 1504호
	한국화학공학회 여성위원회 2001년 김상경	02-458-3078-79 kiche@kiche.or.kr www.kiche.or.kr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19 한국화학회관 5층
	소비자와 함께 2007년 박명희	02-2272-3414 consumer2007@daum.net www.withconsumer.net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77 1405
	난문화협동조합 2013년 이남숙	02-2282-2203 loeric@rancoop.com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24 선릉대림아크로텔 801호
	유럽한국여성과학기술자협회(EKWSEA) 2015년 송미영	33-6-87058979 choi.yujin75@gmail.com 4a Rue Sainte Richarde, 67200 Strasbourg, France
	재미여성과학기술자협회(KWISE) 2006년 이해경	1-301-405-4855 kwise@kwise.org www.kwise.org 1739 S. Santa Anita Ave. Arcadia, CA 91006, U.S.A.
	재이태한인여성과학기술자협회(KOWSEAP) 2015년 박미라	61-403-116-143 e.kim@brienholdenvision.org 13 Bellata Place, Maryland, NSW 2287, Australia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 여성과학기술인위원회(AKCSE-WISE) 2015년 조선희	1-416-449-5204 info@akcse.org http://www.akcse.org/index.php 1133 Leslie Street, Suite #206, North York, ON, M3C 2J6 CANADA
	한국과학사학회 1960년 신동원	063-270-3433 khssociety@gmail.com www.khss.or.kr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 * 단체지원사업
- * 학술대회
- * 과학기술 여성리더 육성사업
- * R&D 성과확산 사업
- * 출판사업
- * 국제협력사업
- * 중장기 정책 실천방안 연구
- * 사회공헌사업
- * 웹/모바일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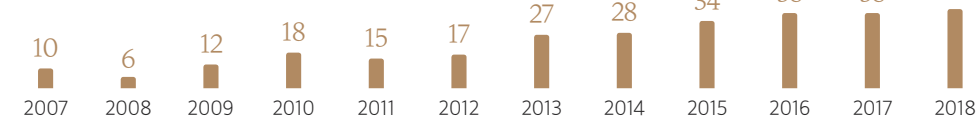
2018 여성과학 주요사업

- 26 단체지원사업
- 28 학술대회
- 32 과학기술 여성리더 육성사업
 - 과학기술 여성리더십과정
 - 과학기술 여성리더스포럼
 - 융합워크숍
 - 여성위원장 간담회
 - 미래인재상
- 51 R&D 성과확산 사업
 - 여성과학자 안전관리
 - 과학커뮤니케이션
- 59 출판사업
- 64 국제협력사업
- 68 중장기 정책 실천방안 연구
- 70 사회공헌사업
- 72 웹/모바일 네트워크

01 단체 지원사업

단체별 역량 강화, 지식나눔 실천, 여성과학기술단체와 여성과학기술인의 위상 제고를 목표로 회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단체지원사업 수행단체 수



2018 단체지원사업 수행단체와 사업명

단체명	사업명
1 글로벌 여성 ICT 네트워크	ICT여성리더의 네트워킹 강화와 멘토멘티를 통한 GWIN 활성화
2 대구경북여성과학기술인회	차세대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여성과학기술인들의 역할
3 대한가정학회	증가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산업과 과학기술의 적용
4 대한여성건축사회	리더로서의 여성건축사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사업
5 대한여자치과의사회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치과전문인력의 개입이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III
6 대한여한의사회	멘토링을 통한 여한의사간 네트워크 강화
7 대한전기학회 여성과학기술위원회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사업(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및 과학기술 확산
8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노인복지시설 영양·급식관리자의 식생활관리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대국민 교육 기반 자료의 확립 및 교육 제공지원시스템 구축
9 동아시아식생활학회	한국 식생활 글로벌 교육의 인식확산을 위한 과학적 기반 확립 및 활용
10 동아시아여성과학기술인회	인지강화 창의교육 지도사 과정 및 인지창의 교육 프로그램
11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차세대 여성과학자를 위한 최신 연구 체험 인턴십 프로그램
12 유망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	과학교육 큐레이터 양성 2단계 심화사업
13 충북여성과학기술인회	소통하는 독서토론! Global 함께하는 집단지성!!
14 한국공업화학회 여성인재육성위원회	융합 기술 강화를 통한 여성공업화학인 인재 육성 및 네트워킹 활성화
15 한국기술사회 여성위원회	취약계층과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기술사랑 프로젝트
16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여성IT위원회	ICT분야 여성 신진 연구원 우수 연구성과 발굴 및 확산 지원사업
17 한국물리학회 여성위원회	이공계 여학생 물리전공 체험 및 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18 한국생활과학회	빈곤노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생활과학적 개선 방안 모색 및 적용

단체명	사업명
19 한국세라믹학회 여성세라미스트부회	재료분야 멘토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20 한국식생활문화학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식문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21 한국식품조리과학회	조리취약계층의 식생활관리자 역량 강화 사업
22 한국여성건설인협회	2018 차세대 여성건설인 리더십 캠프
23 한국여성건축가협회	고령화시대의 지역이 함께 돌보는 복지마을 만들기
24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커리어코칭 사업
25 한국여성수리과학회	2018 차세대 여성 수학 관련 전공자 커리어 리더스 포럼
26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원자력 유관기관 여성과기인 교류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및 원자력과학기술문화 대국민 성과 확산
27 한국여성정보인협회	스마트 차세대 여성 ICT인력 양성(IT윤리 포함)
28 한국여자의사회	소화기내과 의사의 연령, 성별에 따른 업무강도 및 직업병에 관한 연구
29 한국의류산업학회	차세대 여성 패션 테크놀로지 전문가 양성 및 취업·창업에 관한 포럼
30 한국의류학회	여성과학기술인 4차혁명 인재양성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워크샵
31 한국임상영양학회	보건·의료영양전문가의 역량강화 및 차세대 임상영양전문가 육성을 위한 영양관리과정 (Nutrition Care Process) 심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2 한국자동차공학회 여성위원회	자동차 분야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쟁력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33 한국전기화학회 여성위원회	여성 전기화학자 네트워크 활성화
34 한국정보과학회 여성위원회	초중고 학부모를 위한 SW 교육 체험 및 정보과학 여성 연구인력 소셜라이징
35 한국정보보호학회 여성위원회	차세대 정보보호 여성과학기술인 발굴 육성 및 정보보호 여성과학기술인 역량 강화 사업
36 한국정보처리학회 여성위원회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ICT융합기반 여성메이커 인력양성 프로그램
37 한국정보통신학회 여성위원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여성ICT 학술발표대회
38 한국통신학회 여성위원회	신진 여성공학도의 성공적인 경력 개발 및 상단을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
39 한국화학공학회 여성위원회	차세대 화학공학 여성 전문기술인 육성
40 IT여성기업인협회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IT여성기업인 육성 및 역량 강화 사업

02 학술대회

여성과총 회원단체 간의 소통과 융합,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리더십 증진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여성과총 학술대회가 올해는 “인간중심 과학기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학술대회는 이진우 POSTECH 인문학부 석좌교수가 “호모데우스의 도전 - 기술혁명과 인간사회의 변화”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으로 시작하였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 발전에 내재하고 있는 논리와 세계관에 주목해야 하며, 결국 기술혁명과 인간이 어떻게 진화해왔는가를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진두 한국과학기자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송민령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박사과정 연구원, 이준엽 이화여자대학교 수학과 교수, 장경애 동아시아연구소 대표, 주지원 캠프클라우드 대표가 패널로 참여하여 기술의 발전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도하는 태도로 맞이한다면 불안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인간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과 데이터를 누가 통제하고 누가 쓸 것인가의 문제가 결국 사회를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며, 그 상황에서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간 스스로의 위치를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토론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올해 단체지원사업에 참여한 40개 단체가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포스터 발표와 5개 단체의 구두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매년 젊은 여성과학기술인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2018 미래인재상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특히 올해는 신진여성과학자를 초대하여 그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우리 젊은 여성과기인을 소개합니다”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총 12명의 젊은 여성과학기술인이 각각의 분야에서 연구중인 자신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2018 여성과총 학술대회에는 63개 회원단체에서 총 243명이 참석하였으며, ‘미래인재상 시상식’, ‘우리 젊은 여성과기인을 소개합니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도되면서 젊은 층의 참여가 두드러지면서, 명실공히 회원단체 교류의 장이 되었다.



임은진 학술대회 조직위원
국민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Homo Contradictus : 모순된 인간성은 인류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인간중심의 과학기술'이라는 학술대회 주제를 가지고 이진우 포항공대 석좌교수는 기초강연에서 인간과 기계가 융합되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온 트랜스휴머니즘을 통해 나타나는 인간성에 대한 근원적 질문과, 그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digital divide 와 테크놀로지 전체주의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였다. 그의 철학적 질문을 이어받아 4명의 패널리스트들은 '인간이란, 인간성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만 '인간중심의 과학기술'을 추구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며 김진두 한국과학기술자협회장의 사회로 기술과 인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서부터 기업의 시각까지 다양한 시점에서 질문과 대답을 제시하였다.

송민령 카이스트 연구원은 인공지능의 발달이 인간성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역설과 새로운 기술로 인해 부각되는 공유, 탈중앙화, 공동체의 가치가 시대의 변화 속에 우리 사회와 경제 구조를 어떤 모습으로 바꾸어야 할지 인간의 결단을 주목했고, 이준엽 이화여대 교수는 인간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육체, 기억, 개성을 들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와 같은 인간성의 요소가 외부화되면서 이미 digital native 세대에게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간간의 교류 형태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인간성을 보는 시각도 진화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장경애 동아사이언스 대표이사는 과학기술이 진보한 동인이 인류의 호기심과 욕구에서 출발한 질문이었던 것처럼 인공지능의 발전 앞에서 과학자 인문학자 일반인 할 것 없이 인간관과 세계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미래 세대와 함께 roundtable discussion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미래 세대의 배움의 양식이 teaching에서 learning으로 진화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언어와 방식에 맞는 토론 방식으로 진화할 것도 주문하였다. 주지원 캠프클라우드 대표이사는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보는 기업의 시각을 대변해 주었다. 인공지능이나 데이터는 개발 중인 도구일 뿐 인간이 주어가 되어야 하고 학계와 연구자들은 기술을 상업적으로 보는 기업의 시각을 보완하는 인간 중심의 시각을 견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술의 발전으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인간성의 모순을 생각하며 학술대회가 끝난 한국과학기술회관을 나올 무렵 10월의 마지막 날 강남역 주변에는 할로윈 복장을 한 젊은이들의 무리가 늦가을로 넘어가는 바쁜 도심의 황혼을 채우고 있었다. 변화하는 인간성에 대한 질문에 나보다 더 진화한 것이 분명한 그 젊은이들은 무어라고 대답할지 궁금해지는 저녁이었다.

한지영 학술대회 조직위원
대진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조교수

우리 젊은 여성과학기술인을 소개합니다



2018년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조직위원회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던 세션이 '우리 젊은 여성과학기술인을 소개합니다'가 아닌가? 처음 시도되었기에 설레임 뿐만 아니라 학술대회 무대를 젊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어떻게 장식해 줄까 하는 큰 기대로 많은 참가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코너였다고 생각된다.

처음 시도되는 세션인 만큼 조직위원회에서 발표 방식과 추천 방식 등을 놓고 많은 논의를 거쳐, 해당 세션에 총 30분의 시간을 할당하고 10명을 각 단체에서 추천받되 대상자는 40세 전후의 젊은 과학기술자이거나 신진 박사들로 결정하였다. 2분 안에 본인의 연구성과 및 분야를 소개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젊은 과학기술자들이 큰 무대에서 발표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해당 분야 시니어들에게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처음 시도된 세션이라 발표자가 적을 것을 염려하였으나 원래 생각했던 10명보다 많은 12명이 발표자로 결정되었고 분야도 수학, 생명과학, 건축, 의학, 식품영양학 분야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짧은 시간안에 우리의 미래인 젊은 과학기술자들이 최근에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흔치 않은 자리였다. 전반적으로 젊은 여성과학기술자들은 본인의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두고 짧은 시간 안에 그간의 노고와 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모습이 청중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발표자와 청중간의 소리없는 소통의 여운은 2018년 학술대회의 대미를 장식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발표자들은 세션을 통해 본인의 미래 비전과 연구자로서의 다짐을 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성찰의 과정을 통해 우리 젊은 여성과학기술자들은 한걸음 더 꿈을 향해 다가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꿈을 꾸는 그달 위하여, 꿈을 꾸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우리 젊은 여성과학기술인을 소개합니다' 후기를 마무리하면서 영화 '라라랜드'가 무심코 생각나는 건 우연의 일치일까?

03 과학기술 여성 리더십과정

공공리더 양성을 위한 리더십과정 3기

과학기술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5년부터 “과학기술 여성리더십과정”을 개설하여 여성리더 재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올해는 정부위원회 여성위원의 공공리더십을 향상하고 실질적인 위원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공공리더십”이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 하반기 두 차례의 과정을 운영하였다.

2013년 정부위원회의 여성비율을 40% 목표로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이후, 각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리더의 공공리더십이 강조되는 시대의 요구에 맞춰 공공리더십을 특화한 리더십과정을 기획하여 운영하였다.

일시: 2018년 3월 12일 ~ 4월 30일, 매주 월요일, 17:00~21:00, 8주 과정

장소: 포포인츠바이슈타트서울남산

수강인원: 총 42명, 36명 수료

대상: 정부위원회 소속 여성위원회, 여성과학기술인

프로그램

일시(매주 월요일)	세부주제	강연자
1주차 3.12(월)	17:00-18:00 오리엔테이션 : 과정 소개 및 수강생 인사	권오남 여성과총 부회장, 서울대 교수
	18:00-18:30 합리성과 감성의 거버넌스 리더십	김명자 한국과총 회장
	19:30-21:00 한국인의 탄생과 발전	최정운 서울대 교수
2주차 3.19(월)	17:00-18:30 패권의 비밀과 행복의 비밀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19:30-21:00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거버넌스	문미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3주차 3.26(월)	17:00-18:30 양성평등정책과 여성리더십	민무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19:30-21:00 리더의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	김은혜 MBN 앵커
4주차 4.2(월)	17:00-18:30 혼란의 시기, 생존과 선택을 위한 위대한 결정	배보경 IGM세계경영연구원 원장
	19:30-21:00 효과적인 구성원 관계 관리	
5주차 4.9(월)	17:00-18:30 인공지능 핵심기술과 전망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
	19:30-21:00 리더의 법적 책임과 역할	강한승 김앤장변호사
6주차 4.16(월)	17:00-18:30 바이오산업과 규제	묵현상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장
	19:30-21:00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인재의 조건	정두희 한동대 교수
7주차 4.23(월)	17:00-18:30 여성공공리더십	오종남 스크랜튼여성리더십센터 이사장
	19:30-21:00 부(富)의 삼원색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교수
8주차 4.30(월)	17:00-18:30 나눔의 리더십	안규리 서울대 교수
	19:30-20:00 여성리더 특강	백희영 전 여성가족부 장관
	20:00-21:00 교육성과 공유 및 수료식	권오남 여성과총 부회장, 서울대 교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공리더십 4기

4기 과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리더십, 사회적 소통의 기술’ 향상을 위한 리더십 강좌와 AI,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에 대한 강좌로 구성되었으며 12명의 강사가 초빙되어 30명의 수강생과 함께 하였다.

일시: 2018년 10월 15일 ~ 11월 22일 매주 월요일 17:00~21:00, 6주 과정

장소: 프레이저 플레이스 남대문

주관: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대상: 정부위원회 소속 여성위원회, 여성과학기술인

프로그램

일시(매주 월요일)	강연 주제	강연자
1주차 10.15	17:00-18:30 오리엔테이션 · 여성공공리더십	백희영 전 여성가족부 장관
	19:30-21:00 과학기술 정부 조직, 위원회, 거버넌스	문미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외
2주차 10.22	17:00-18:30 디지털시대에서 과학기술 소통	이상욱 한양대 교수
	19:30-21:00 디지털 시대의 플랫폼 변화와 소통	정혜승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센터장
3주차 10.29	17:00-18:30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세상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
	19:30-21:00 미래사회의 경제시스템	이원재 LAB2050 대표
4주차 11.05	17:00-18:30 블록체인 기술	엄경순 한국IBM CTO
	19:30-21:00 블록체인과 미래사회	인 호 고려대 교수
5주차 11.12	17:00-18:30 국가혁신체제 및 과학기술 정책	홍성주 STEPI 전략기획단장
	19:30-21:00 시민사회와 여성리더십	엄규숙 대통령비서실 여성비서관
6주차 11.19	17:00-18:30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마닝 기술	김상욱 한양대 교수
	19:30-20:40 정보의 활용과 보호	권현영 고려대 교수



이숙경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

과학기술여성 리더십과정 덕분에



운이 좋게도 2015년과 2017년에 여성과총에서 하는 1기와 2기 여성리더십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두 번 모두 내용도 알차고 함께한 분들도 좋았는데 과정이 끝난 후 동기회까지 결성되어 이따금 행복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초 3기 리더십과정 공지 이메일을 받았을 때, 이렇게 좋은 과정에 참석할 기회를 이번엔 다른 분들에게 양보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이전 프로그램과는 달리 '공공리더십'이라는 부제가 달려있었고 강의 내용을 살펴보니 몇 달 전 임명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개혁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다. 꼭 듣고 싶은 마음에 또 신청해도 되는지 물어 허락을 받고 얼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모든 강연 내용은 예상대로 만족스러웠다.

세계경제포럼에서 2017년 발표한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를 보면, 한국은 144개국 중 118위에 불과하다. 게다가 2016년 기준 한국의 유리천장지수는 25점으로 OECD 평균 56점에 비하면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이나 건강지수 등이 남성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말 이리도 심각할까 의문이 들 정도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남성 대비 여성의 데이트 폭력 등 안전지수는 64%이고 고위직 등 의사결정지수는 26.5%에 불과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말했듯 “우리사회에 발생하는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지위에 여성들의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 따라서 현 정부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공부문의 여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위원 비율이 상승하고 있고 2013년 1,902명에서 2018년 6월 3,39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나도 이렇게 증가한 여성위원 중 한명일 것이다. 정부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을 40%까지 올리기로 한 정부의 정책 결정이 나에게 까지 영향력이 미치는구나 싶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3기 2주차 ‘패권의 비밀과 행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해 주신 김태유 서울공대 명예교수는 일제 강점기 때 강제징용으로 희생된 400만 명의 청년들과 20만 명의 종군위안부, 항일운동을 하다 스러져간 유관순, 윤봉길, 안중근 의사들을 예로 들며 국가가 무능하면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하셨다. 지난 1, 2, 3차 산업혁명에 잘 대처하여 국력을 키운 나라들과 그렇지 못했던 나라들을 대비하며 우리나라가 당면한 4차 산업혁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셨다. 강의를 들으며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다. 다행히 이번 리더십 프로그램에 인공지능 핵심기술과 전망, 바이오산업과 규제,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인재의 조건 등의 관련된 강의들이 있어서 조금 막연하였던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

또한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문미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백희영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한 여성 리더들이 자신의 경험을 녹여낸 강의를 해주셔서 마음에 와닿았다. 같은 여성으로 공감대가 있어서 그런지, 아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라서 그런지, 더 귀에 잘 들어오고 느낌이 큰 것 같았다.

10월 18일에 1년간 활동했던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개혁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있었다. 1년을 되돌아보니 부족한 경험과 좁은 식견으로 혹시라도 어리석은 짓을 할까 긴장하던 부담을 내려놓게 돼 흥분하면서도 더 잘 활동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도 만약 내가 과학기술 여성 리더십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이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참 다행이구나 싶다. 그동안 과학기술여성 리더십과정에서 배우고 느꼈던 것들이 위원회에서 조금 더 나은 의견을 내고, 조금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한다.

여성위원 40%를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지, 얼마 전 다른 부처에서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의향이 있는지 연락을 받았다. 여성과총에서 마련해준 리더십 과정 덕분에 이번에도 흔쾌한 마음으로 위원직을 수락하였다. 더 많은 분들이 과학기술여성 리더십과정에 참여하고 더 많이 정부위원회에 들어가 적극 활동한다면 오래지 않아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와 유리천장지수가 지금과 같이 부끄러운 수준은 벗어나게 되지 않을까 싶다.

04 과학기술 여성리더스 포럼

여성과학기술계 대표포럼으로 자리잡은 과학기술 여성리더스포럼은 2007년부터 매년 4-5회 운영되어왔다. 올해 3월, 49회 리더스포럼을 시작으로 총 4회의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9월에는 회원단체인 유망여성과학기술인Network와 공동으로 주관하며 부산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과학기술 여성리더스포럼은 여성과학기술인의 리더십을 고취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과학기술계 여성리더가 소통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과학기술계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최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시의성있는 이슈를 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하여 여성과학기술계의 문제 해결과 사회 인식 변화를 촉진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여성과총은 본 포럼을 토대로 여성과학기술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각계 리더들과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이 참석하고, 최첨단 이슈를 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과학기술인,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 남성과과학기술인 등 과학기술계의 입체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활발한 정보교류로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49회 과학기술 여성리더스포럼
[시민사회와 성평등정치 그리고 과학기술]

2018년 3월 7일(수)
더플라자호텔

강연	“시민사회와 성평등정치 그리고 과학기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좌장	오명숙 홍익대학교 교수
패널	강미량 페미회로 PM,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석사과정 이건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이은정 KBS 과학전문기자
사회	이연희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올해 초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는 시점에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로 제49회 과학기술 여성리더스포럼이 개최되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강연에서 성평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해야하며, 그간 보편적이고 중립적이며 객관적이라고 받아들였던 것들이 누구의, 어떤 관점에서 형성된 것인가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사회문제의 하나인 저출산·고령화, 삶의 질 문제가 여성의 성평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진정한 성평등은 단순히 여성혐오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사회 전반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패널토론에서는 이공계 대학 여학생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 근무하는 여성인력은 여전히 낮은 점을 지적하며, 공과대학으로 여학생을 유입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조직문화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또다른 패널은 페미회로와 그 활동을 소개하며 2-30대 학생이 느끼는 과학기술계 내의 여러 장벽과 현실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제50회 과학기술 여성리더스포럼
[리더가 가야할 길 - 노블레스 오블리주]

2018년 5월 11일(금)
더플러자호텔

기조 강연	“왜 노블레스 오블리주인가?” 강창희 (재)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좌장	문애리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패널	김나영 서울의대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센터장 유옥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총괄부원장
사회	정은옥 건국대학교 교수

우리시대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강창희 (재)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강연자로 모시고 제50회 과학기술 여성리더스포럼을 개최하였다. 강창희 이사장은 강연을 통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유래를 설명하며 국내외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인물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특히 2000년대 이후 IMF 외환위기, 금융 위기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그 후유증으로 저성장이 지속되며 이로인해 세대간, 이념, 계층간, 지역 간의 각종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해결할 리더십이 부재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비판하며 이제는 GDP의 선진화보다는 의식의 선진화가 필요한 시기이며, 이를 위해선 일명 사회지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패널토론에서는 사이언스오블리주(Science Oblige, 과학적의무) 운동을 간단히 소개하며 국내외의 다양한 사이언스오블리주 활동 사례와 함께 과학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지식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것이며, 과학기술의 공유를 위해서는 과학자의 용기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현대 사회의 진정한 리더,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위한 여성의 역할은 전형적인 역할모델을 탈피하여 전문의 함양, 능력을 정책화 하기 위한 사회적 역량 강화에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다.



제51회 과학기술 여성리더스포럼
[미래부산의 성장동력, 여성과학기술인]

2018년 9월 7일(금)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기조 강연	“여성과학기술인과 국가정책의 전략적 파트너십” 전호환 부산대학교 총장	
좌장	김명숙 제주대학교 교수	
패널	고미자 부산시청 창업지원과장 민병주 울산과학기술원 초빙교수	윤종태 부경대학교 교수 최상원 한겨레신문사 부장
사회	서쌍희 경남대학교 교수	

올해 3번째 포럼인 제51회 과학기술 여성리더스포럼은 부산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여성과총 회원단체인 유망여성과학기술인Network가 포럼의 계획부터 섭외, 홍보 진행까지 공동으로 주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강연자로 나선 전호환 부산대학교 총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이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한 사람의 여성, 그리고 전문인으로서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성과학기술인의 네트워크 강화는 물론, 국가 정책의 효율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선 두 주체간의 전략적이면서 유기적인 파트너십이 절실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부산 지역내의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패널토론에서는 공직에 진출한 이공계 여성인력이 갖는 강점을 강조하며 여성과학인의 공직분야로의 진출을 권장하기도 하였으며, 이공계 여성인력의 활용 방안에 대해 법·제도적 보완과 함께 사회적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또한 부산지역 내 이공계 여학생의 현실을 소개하며 지역 내에서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을 강조하였다. 제51회 과학기술 여성리더스포럼은 역대 리더스포럼 중 최대 인원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이례적으로 이공계 대학생이 많이 참여하며 젊은 층의 참여와 관심이 높았던 행사가 되었다.



제52회 과학기술 여성리더스포럼
[여성벤처 기업인이 여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

2018년 12월 14일(금)
더플러자호텔

기조 강연	“여성 의과학자의 벤처 창업과 기업경영 이야기”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	
좌장	홍은주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패널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 수석부회장 양은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의공학연구소장	손미원 바이로메드 전무 이태영 KB증권 리서치센터 팀장
사회	노은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오명숙 리더스포럼 위원장
홍익대
신소재항공
시스템공학부 교수

제51회 과학기술여성리더스포럼을 마치고



과학기술여성리더스포럼은 우리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여성과총)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여성과학기술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차세대 리더 육성을 목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시의성 있는 이슈를 논의하는 토론의 장으로 2017년까지 총 48회 진행되었다. 올해도 여성과학기술계 리더들에게 의미 있는 주제와 연사를 모시기 위한 기획 회의가 연초에 있었고, 리더스포럼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연사 발굴과 주제 결정을 위한 열띤 토의를 통해 4회의 포럼을 기획하였다.

이중 부산에서 진행된 제51차 포럼은 색다른 의미가 있었던 포럼이었다. 여성과총의 프로그램이 전국의 모든 여성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적으로 서울에서 수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역포럼은 그 지역의 여성과학기술인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여성과총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먼저 지역선정은 그 동안의 개최지를 검토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밀집된 지역 부산이 선정되었다. 포럼을 함께 기획하고 지역의 특성을 담을 수 있는 회원단체로 부산의 비정규직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주축이 된 유망여성과학기술인 Network가 1순위로 추천되었다. 그 동안 열심히 여성과총에 참여하면서 단체를 홍보한 전·현직 회장들과 임원들의 활발한 활동 덕분에 단체의 취지와 목적이 잘 이해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유망여성과학기술인 Network가 흔쾌히 여성과총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함께 연사 및 패널 섭외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사무국의 부산 회의장 답사와 꼼꼼한 준비를 통해 역대 리더스포럼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한 성공적인 부산리더스포럼이 탄생하였다.

서쌍희 경남대학교 교수의 사회와 유명희 여성과총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한 부산포럼의 기조강연은 “여성과학기술인과 국가정책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전호환 부산대학교 총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전호환 총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이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한 사람의 여성이면서 전문인으로서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성과학기술인의 네트워크 강화는 물론, 국가 정책의 효율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선 두 주체간의 전략적이면서 유기적인 파트너십이 절실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기조강연에 이은 패널토론은 유망여성과학기술인 Network 회장을 맡고 있는 제주대학교 김명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패널 발표에서 고미자 부산시청 창업지원과장은 여성 비율의 증가와 함께 변화하는 공무원 사회를 예로 들면서 여성의 유리천장 및 진로 장벽의 파괴를 위해서는 많은 여성 과학기술자를 양성하여 사회로 진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행정이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많은 이공계 여성들의 공무원 진출을 권고하였다. 이어 민병주 울산과학기술원 초빙교수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5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과학자의 정규직 비율이라든가 리더의 비율은 법률이 목표로 하는 3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을 지적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남녀동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완과 함께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정책에 대한 제언과 필요 법안을 준비할 수 있는 여성 정치인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모두가 바라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하였다.

지난 20여년간 다양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육성, 활용 사업을 수행해온 부경대학교 윤종태 교수는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애로 사항을 정확히 지적하여 포럼의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특히 부산 지역 공과대학의 매우 낮은 여교수 비율을 지적하면서 스웨덴과 노르웨이와 같은 강력한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산업체의 성장을 위해 남성보다 위기감지 능력과 nurturing 능력이 뛰어난 여성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김명숙 교수는 대한민국과 부산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한 한 방법이 비정규직 여성 박사들의 활용임을 강조하고 이공계 여성교수 채용할당제의 조기 도입에 대한 바람을 피력하였다. 민병주 교수도 고용할당제와 더 나아가서 승진까지 다루는 법 계정도 가능하며 이를 위한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최상원 한겨레신문사 기자는 언론에서 편파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이며, 언론뿐 아니라 기사를 받아들이는 독자 역시 제대로 된 기준을 갖고 사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명숙 교수는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발전 또는 부산지역의 발전을 늦출 수 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가나 부산지역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여성과학기술인 스스로가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목소리 내야 함을 강조하면서 패널토론을 정리하였다.

이날 총 참석자는 142명으로 준비된 식사가 부족하여 포럼진행은 맑은 사무국은 포럼 후, 따로 식사를 하는 이번도 있었지만 서울에서도 20명의 회원이 참석하였고, 부산지역 학생들도 30명이 참석하여 명실공히 여성과총 리더들과 부산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을 아우르는 포럼이 되었다고 자평한다.

성공적인 부산 리더스포럼을 위해 애써주신 유망여성과학기술인 Network, 패널 토론자, 그리고 부산지역 회원의 참여를 독려해준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한국기술사회 여성위원회 등의 회원단체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기조강연을 해 주신 전호환 총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강연 후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테이블을 찾은 부산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을 하나 하나 반갑게 맞아주시고 응대해 주시는 모습에서 부산지역 과학기술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확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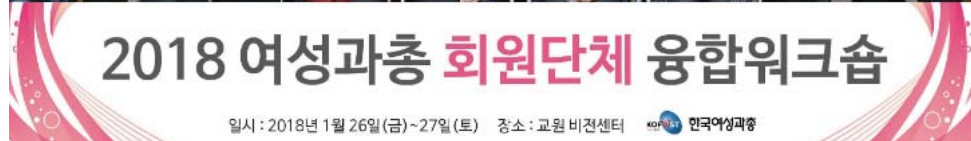
05 2018 회원단체 융합워크숍

회원단체 화합의 장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소통 역량을 키우고 리더십을 고양하기 위한 회원단체 융합워크숍은 올해로 9회차를 맞이하였다.

회원단체 융합워크숍은 그간 참여한 회원이 260여 명, 강연에 참여한 연사가 20여 명으로 여성과총 사업 중에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 중 하나이다. 이번 과정에서는 단체장을 포함하여 18년도 운영진 40여 명이 참석하여 올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8년 1월 26일(금) ~ 27(토)
교원 비전센터(가평)

명사특강	안규리 서울의대 교수	과학기술여성리더를 위한 제언
리더십 강의	이영은 아나운서	리더의 화법
	오명숙 홍익대 교수, 권오남 서울대 교수	STEM Women Leadership and Empowerment: A Practical Guide
회원단체 토론회	유리천장지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제: 한화진 WISSET 소장, 좌장: 백은옥 한양대 교수)	
특별강연	서은경 전북대 교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소개-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4차 산업혁명 구현
감성특강	백규선 동국대 교수	오페라 속 인문학



06 여성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여성위원장 간담회

여성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여성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비회원, 회원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참가자들은 융합협력 단체지원사업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100인 미만 여성위원회에 문턱 낮추는 참여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018년 8월 30일(목)
한국프레스센터

단체장간담회의 일환으로 여성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여성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여성과총에 최근 가입하는 신규 회원은 남성 다수 학회의 여성위원회가 많아, 여성리더의 네트워크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때라 간담회 개최의 의미가 있었다.

본 간담회는 여성과총 회원단체 뿐 아니라 여성위원회를 신설하려는 여성위원과, 여성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활동 강화가 필요한 비회원단체 여성위원장도 함께 참여하였다. 비회원으로는 권지연 교수(동국대, 한국정밀공학회 사업이사), 양성윤 교수(충남대, 한국생체재료학회 여성위원장), 윤희숙 책임연구원(재료연구소, 한국재료학회 여성위원장), 임현의 실장(한국기계연구원, 대한기계학회 여성위원장), 홍정숙 교수(서울대, 한국유변학회 사업이사)가 참여하여 여성과총의 사업을 공유하고 여성위원장 간 교류를 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첫 발제로는 여의주 교수(가천의대)가 여성과총 회원인 여성위원회 소개와 단체지원사업 소개를 하였고, 이어서 기유경 진전기엔지니어링 부사장이 한국기술사회 여성위원회 운영사례

발표를, 오미혜 책임연구원(자동차부품연구소, 한국화학공학회 전 여성위원장)이 여성위원회 출범전략을 소개하였다.

여의주 교수는 단체지원사업의 혁신운영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하였고, 최근 4년간 각 여성위원회가 수행한 사업을 발제하여 여러 위원장에게 타 단체 사업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기유경 부사장은 모 단체 내에서의 여성위원회의 위상과 어려움, 이를 극복하고 여성위원회가 발전하는 사회공헌 사업모델을 소개하였다. 오미혜 책임연구원은 '여성이 모인다'는 단순한 목적보다는 보다 명확한 목적을 세우고 여성위원회를 구성하되, 여성위원이 타 다양한 위원회에 참여도 하면서 역량을 키울 것을 제안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올해 4월 가입한 대한금속재료학회 여성위원장 임혜인 교수(숙명여대)와 한국통계학회 여성위원장 이태림 교수(한국방송통신대)가 활동계획을 발표하며 시작되어, 참석한 각 분야 여성위원장이 활발히 교류하였다.

참석한 여성위원장들은 단체지원사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는데, 특히 융합협력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경험한 개선점과 제언을 공유하였다.

비회원단체 여성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공유된 운영사례가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아직 100인 미만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며 여성과총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여성과총 사업에 참여하며 네트워킹하는 것도 좋다는 대안도 제시되었고, 조직발전위원회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하였다.

여성과총은 2014년부터 회원단체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단체장을 초대하여 매년 회원단체 융합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으며, 격년으로 여성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정책결정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강화하는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각 계의 활발한 움직임에 비해, 과학기술분야의 학회와 단체의 여성참여와 이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저조하여, 학회와 단체에서의 양성의 균형적 참여를 확대하는 데에 본 간담회를 통한 여성 리더의 교류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07 미래인재상

한국과학기술계를 이끌어갈 미래가 촉망되는 우수한 젊은 여성과학기술인을 발굴·포상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여성과총 미래인재상'을 2010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래인재상은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만 40세 미만인 여성과학기술인 중 연구 업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지금까지 자연과학, 공학, 의생명 분야를 전공한 60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올해는 총 14개 분야의 우수한 후보자들이 지원했으며, 분야별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3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평가하였다. 심사에서는 지원자의 연구에 대한 창의성, 성과 우수성, 논문/특허/연구과제 실적, 후보자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최종 심사회의를 통해 수상자 10명이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2018 여성과총 학술대회' 중에 진행되었고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100만원 상금이 수여되었다.

최근 미래인재상에 대한 신진여성과학자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져 과학·이공계 분야 중 여성인력 비율이 낮다고 알려진 공학 분야에도 우수 지원자가 점차 증가하는 등 해마다 다양한 분야의 지원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여성과총은 앞으로도 많은 신진여성과학자들이 과학 연구에 더 집중하고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18 미래인재상 시상식
2018년 10월 31일(수)
한국과학기술회관



수상자 소개



[화학] 김두리
한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조교수

자연과학

공적 소개

차세대 초고해상도 현미경법으로서 초고해상도 광학현미경인 STORM과 전자현미경법을 상보적으로 융합하는 기술개발.
초고해상도 광학현미경과 분광학 기술을 결합하여 단분자 분광학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광색성 분자의 광반응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연구하여 새로운 실험 및 해석함.

수상소감

일찍부터 독립적인 여성 과학자를 꿈꾸어 왔으며, 미국유학을 떠나 박사 학위(Harvard University), 박사 후 연구(UC Berkeley)를 통해 초고해상도 현미경 연구 분야(2014년 노벨 화학상 분야)에서 지난 10여 년간 학술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번 미래인재상은 이제 막 독립적인 연구책임자가 된 저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큰 힘을 주었습니다.
이 분야의 발전이 미진한 한국에서 초고해상도 현미경 연구 분야의 발전과 도약에 힘쓰고자 하고, 특히 우리나라 여성 연구진들에게 대표적인 롤모델로서 학문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물리학] 김세정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박사후연구원

공적 소개

나노광학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결과를 내고 있으며, 2차원 육방정 질화 붕소(h-BN)에 광결정 개념을 결합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적으로 구현한 우수한 결과를 냄.

수상소감

카이스트 물리학과 박사 졸업 후 시드니 공과대학교에서 나노광학, 양자광학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2차원 물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온지 벌써 2년이 되었고 짧은 기간이지만 공저자 논문 포함 12편의 논문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초청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성과총 미래인재상 수상 소식은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칭찬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다는 격려가 되는 매우 의미있는 상입니다. 앞으로도 해외에서 한국을 더욱 빛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학] 김수정
고등과학원 수학기
연구원

공적 소개

변분법 적용이 불가능한 비발산 형식 편미분 방정식의 Krylov-Safonov 정칙 이론을 정립. 또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액정의 동역학을 연구하여, 물리학과 공학에서 연구, 응용되고 있는 액정의 Fredericksz 전이 현상을 수학적으로 규명.

수상소감

수학 연구를 시작한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도움을 주신 분들 덕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지도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교수님들, 특히 롤모델이 되어 주시는 한국여성수리과학회의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상을 앞으로도 더욱 연구에 정진하라는 뜻으로 새기고, 좋은 연구자가 되어 수리 과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생명



[농림수산식품] 김유진
경희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연구교수

공적 소개

창의적 연구로 진세노사이드의 생합성 경로 및 효능을 규명. 인삼 관련 질적 & 양적으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도출. 식물에 관한 연구를 일반인에게 쉽게 알리기 위한 동영상 제작, 미국식물생물학자협회(ASPB)저널에서 주관하는 식물의 날 행사에서 우수상 수상.

수상소감

현재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유전자편집 기술을 활용하여 작물의 화분 발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융성불임 작물 및 우수한 품종 개발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의학계 과학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연구에 임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박민정
가톨릭대학교 류마티스
연구센터 연구교수

공적 소개

전임상 모델에 환자의 면역세포 및 병인세포이식을 통한 환자 아바타 모델 개발을 이루었고 전신경화증과 같은 난치 질환의 환자 모사 시스템에 성공하여 치료제 개발이 어려웠던 질환에서 중요한 치료제 개발의 플랫폼을 제공함.

수상소감

박사 졸업하고 5년이 되는 시점에 여성과학자에게 주는 미래인재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자가면역질환과 이식거부질환에서 면역을 조절할 수 있는 치료약물과 세포치료제를 이용하여 질환제어 효능 검증 및 제어기전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기존의 약물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면역조절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제 임상에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우수한 치료제가 될 수 있도록 여성 과학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 진윤희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연구교수

공적 소개

줄기세포 분화 증진을 위한 신규 나노베지클 기반 유전자 전달체 개발에 성공. 전기자극 디바이스를 활용한 유도신경세포 제작 증진 연구결과를 Advanced Materials 학술지에 1저자로 게재하는 등 줄기세포 및 리프로그래밍 기술에 탁월한 업적을 도출.
뇌조직 특이적 삼차원 미세환경 기반 유도신경세포 제작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세포치료제 연구.

수상소감

유전자/약물 전달 및 신규 기술개발을 기반으로 고효율 세포 리프로그래밍 기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손상된 조직 재생을 위한 치료 기술 확립을 목적으로 연구 중입니다. 앞으로의 연구 계획은 실제 임상에 쓰일 수 있는 세포치료제 및 관련 의약품 개발하는 것입니다. 현재 임상에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줄기세포의 치료 유효성이 낮는데 이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는 융복합 기술 적용을 통해 안전하고 세포 기능이 강화된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정보통신] 권민혜
Rice University 및 Baylor College of Medicine 박사후연구원

공학

공적 소개

네트워크 코딩을 이용한 실시간 데이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송을 위한 연구, 자율적이며 최적화된 지능형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머신러닝 기법 적용 연구 수행. 실시간 비디오 미러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에 기술이전.

수상소감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인 텍사스 메디컬 센터에서 최신 신경과학/뇌과학 내용을 기반으로 인간을 포함한 동물 두뇌의 의사결정 구조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바일/컴퓨터 네트워크를 비롯한 모든 인공지능 머신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라는 단어가 조금 과분하고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긴 하지만, 본 수상을 계기삼아 더욱 열심히 학문에 매진하여 가까운 미래에 고국의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화학] 배진혜
Harvard University School of Engineering and Applied Sciences 연구원

공적 소개

고분자의 구조제어 관련 기술과 다양한 물리 화학적 현상에 대한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고분자 물성을 측정하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 또한, 산업적으로 각광받고있는 3D 프린팅 기술에 투명성과 연성이 융합된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여 수행한 연구의 내용이 선행성이 매우 높으며 학술적 의미가 매우 높음.

수상소감

현재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성소재 및 고감도 센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신 학위지도 교수님들과 동료 연구원들, 항상 묵묵히 제가 가는 길을 응원해주는 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11월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샌디에고 캠퍼스에서 조교수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과총 및 한국여성연구자들과 긴밀한 교류를 통해 국내과학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성혜진
창원대학교 차세대전력기술 응용연구센터 선임연구원

공적 소개

조류발전, 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분야에서 고효율 초전도 기술을 적용한 여러 사례를 연구하여 발전기 설계의 한단계 상향된 기술방안을 제시

수상소감

올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학생에서 실질적인 연구원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미래인재상을 수상하게 되어 신진 연구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한전에서 시행 중인 '에너지 거점대학 클러스터 사업'으로 전력산업분야 기초연구를 통한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10MW급 초전도풍력발전기 기반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 플랫폼용 기초기술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이미 초전도풍력발전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초전도풍력발전기 기술개발을 통해 시장 방어와 해외 진출을 목표로 본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 막 박사학위를 받은 신진 연구자이지만 초전도기술에 대표할 수 있는 연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적 소개

미세유로를 이용한 생체시료 또는 환경시료내의 희소한 바이오 물질(유전자, 단백질, 세포 등)을 분리와 농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다수의 우수 연구 실적을 도출.

수상소감

미세유체역학, 전자기학, 전산모사 등의 공학적 기술을 이용하여 의생물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혈액을 포함한 타액, 소변 등 체액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Circulating Biomarker를 미세유체를 기반으로 고순도로 분리 및 농축하는 전처리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상한 미래인재상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주신 격려의 상임을 잊지 않고 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현경아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연구교수

장진아

16년 수상자
포항공대
창의IT융합공학과 교수

미래인재상 수상자 인터뷰



Q. 여성과총이 주관하는 미래인재상을 수상하신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여성과총의 미래인재상을 수상한 이후의 가장 큰 변화는 2017년 3월부터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전임 교원으로 임용 된 것입니다. 영예로운 본 상의 수여 덕분에 우수한 여성과학자라는 좋은 이미지가 각인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안정적인 포지션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Biofabrication 기술을 기반으로 한 중개의학연구 (Translational Research)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연구실을 오픈하게 되었고, 현재는 5명의 석/박사과정 학생들과 3명의 박사후 연구원, 1명의 연구원 및 3명의 학부연구원과 함께 연구실을 운영하며 다함께 신의료기술 개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연구실 단체사진 및 홈페이지

Q. 현재 연구하고 있는 분야를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저희 연구팀은 바이오 가공기술 (Biofabrication), 특히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 조직공학, 줄기세포공학, 생체재료, IT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적 접근을 통해 난치성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 의료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만성 질환 (심혈관 질환, 퇴행성 신경 질환, 당뇨, 난치성 염증 질환 등)의 해결을 위한 솔루션으로써 인공 생체 조직 및 장기를 제작하여 직접적인 치료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병 기전 분석 및 약물 테스트를 위한 소형 엔지니어

드 티슈 (micro-engineered tissue) 를 개발하여 진단에 활용하거나 환자 개개인의 표현형 및 유전형 을 동일하게 구현하여 질병기전을 탐구하는 테스트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국가 연구과제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과제들의 개선방향 또는 정책과제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는 (한국연구재단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개인기초연구, 원 천기술연구, 집단 연구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연구자의 생애주기에 맞추어 비교적 체계적으로 구성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제를 수행할 연구책임자 혹은 팀을 선정 할 때에는 상당히 까다로 운 절차를 거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엄청난 양의 행정 업무량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불필요한 paperwork은 줄이되 규칙을 잘 지키지 않을 시에 부과하는 패널티를 높이는 등의 직접적인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선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과학기술계에 젊은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신설된 생애첫연구과제, 한국형 SGER, 개인기초과제 등의 신진연구자를 위한 좋은 시스템이 젊 은 연구인력 양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전임 교원이나 박사후연구원을 위한 가장 큰 규모의 과제였던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 “대통령Postdoc fellowship”이 계속되지 않아서 박사 취득 후 전임교원으로 가는 단계에 아주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우수한 연구자들은 굳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해외로 박사 후 연구원 포지션을 찾아 떠날 것이 명백합니 다. 국내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박사후연구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새로 운 개념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이 신설되었으면 합니다.

Q.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멘토와 그 이유를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국내에도 상당수의 여성 과학자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멘토는 KAIST 기계공 학과의 신현정 교수님입니다. 국내 기계공학분야는 여성과학자에게 불모지나 다름없었는데, 1세대 로 개척하신 분이요 저와 연구하는 분야도 매우 비슷하여 교수님의 커리어를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 다. 교수님께서도 국내 여성과학자들을 위해 많은 도움과 용기를 주십니다. 이 외에도 적극적인 학 회 활동과 훌륭한 인품 등에서 교수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신현정 교수님 사랑합니다.

Q. 여성과총 미래인재상은 한국과학기술계를 이끌어 나갈 미래 여성과학자들을 격려하는데 그 목적 이 있습니다. 2016년 수상자로서 향후 수상자가 될 동료 및 후배 신진들을 위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흔하게 접할 수 있었던 문구인 “생각하는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은 제게 현 실이 되었습니다. 출발선이 서로 달라도 긍정적인 생각과 이에 수반되는 노력이 따른다면 세상에 이 루지 못할 목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수상자가 되실 동료 및 후배들께서도 아직 맞서보지 않 은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탐구한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재 밋게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Q. 여성과총에 바라는 점이나 하고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여성과총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각 학교의 여학생회, 여교수회 등에 안내하면 훨씬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08 여성과학자 안전관리

남녀 과학기술인 모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 환경 및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을 제안하고자 여성과학자 안전관리위원회(17명) 주도로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정발간 (2018)

올해 여성과학자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4년간 활동을 통해 수 집한 자료를 모아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가 이드라인」에 수록하며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가임기 과 학기술인을 위한 안전관리 교육 내용을 보강하였다. 가이드라인 에는 남녀에게 유해한 발달독성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이 구분 되어 있고 나아가 유해물질 취급 시 필요한 개인보호구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회원단체/학회 안전관리 세션에서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소개하는 등 ‘남녀 모두 를 위한 연구실 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세 번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 ① 7/12(목)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Women Engineering 진로 멘토링 세션
- 김영미 여성과학자 안전관리위원장 강연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 ② 8/3(금) UKC 2018 KWISE/KOFWST Women’s Forum
- 신현정 위원 강연, “Laboratory Safety Management for Women Scientists”
- ③ 10/11(목) 대한전기학회 여성과학기술위원회 권역별 워크숍
- 김용애 여성과학자 안전관리위원장 강연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는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알리고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실과 공동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국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여성과학자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교육 콘텐츠를 확충하고 현장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간담회

일시: 2018년 11월 27일(화)
장소: 국회의원회관



여성과학자의 연구실 안전을 위한 '10계명' 여성과총, 2017

1. 연구실 내 유해물질을 숙지한다.
2. 유해물질을 취급할 때는 개인 보호구 등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갖춘다.
3. 보호구 착용, 청결 유지, 유해물질 사전 차단 등을 습관화 한다.
4. 연구실 내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한다.
5. 연구실 내 유해물질이 가정이나 외부로 옮겨지지 않도록 한다.
6. 임신·출산이 여성과학자에게 어떤 불이익도 되어서는 안된다.
7. 임신 시 상사·지도교수·동료 등에게 임신사실을 알린다.*
8. 방사선 취급 시 임신사실을 방사선 안전관리자에게 즉시 알려 피폭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9. 임신 6개월부터는 산모·태아에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육체노동 강도를 평소의 2/3로 줄인다.
10. 수행 중인 연구에서 임신·출산·수유에 유해한 물질을 차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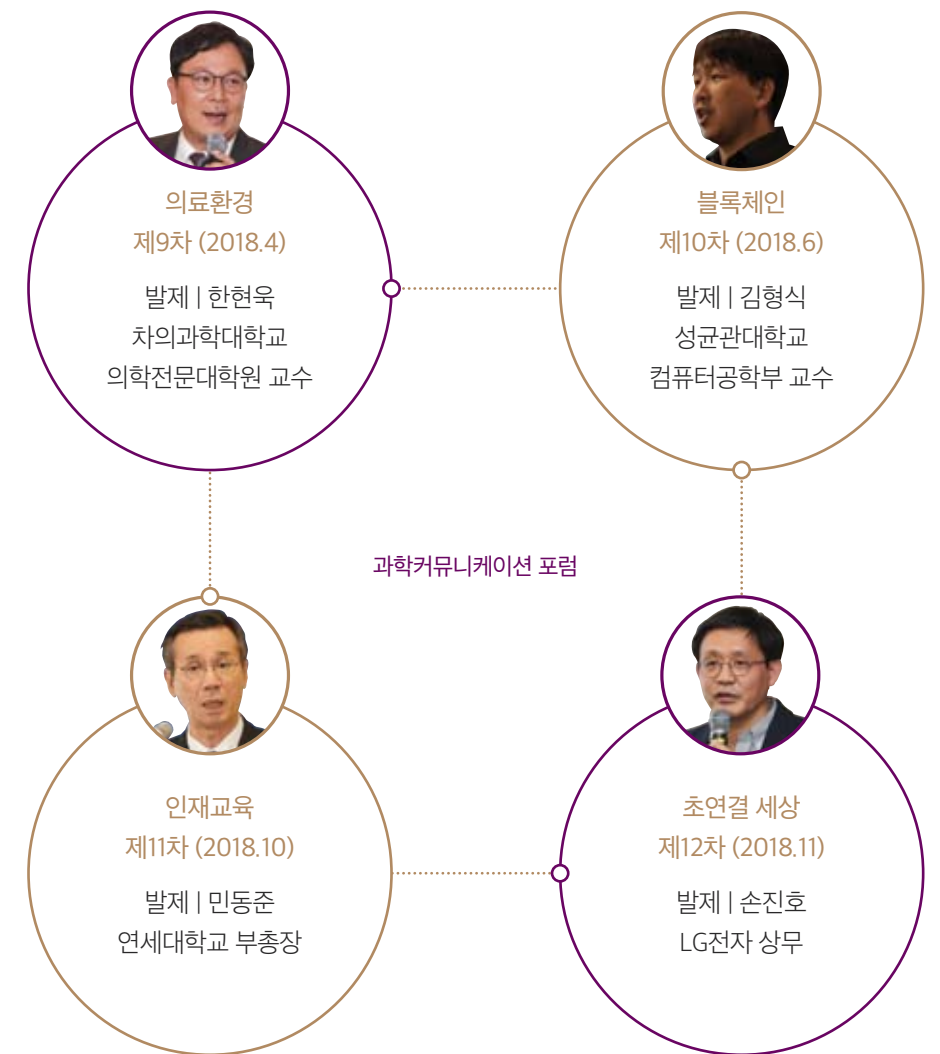
* 필요시 비밀 유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차단이 어려울 경우 주변의 도움으로 해결한다.

09 과학커뮤니케이션

여성과학기술인 주도로 국내외 신규 과학이슈를 발굴하고 올바른 과학정보를 전달하여 대국민 인식 전환을 도모하고자 과학커뮤니케이션 사업을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4차례의 과학커뮤니케이션포럼과 19차례의 쉽게 읽는 과학웹진을 발간하였다.

1. 과학커뮤니케이션 포럼

'4차 산업혁명: 변하는 세상을 주도하기' 테마에 따라 네 차례 포럼을 개최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의료환경·블록체인·초연결 인공지능·미래인재 교육 분야를 다루었다.



제9회 과학커뮤니케이션 포럼
[디지털 환경에서 건강 주도하기]

2018년 4월 26일(목)
포시즌호텔서울

기조 강연	“디지털 헬스 환경에서 건강 주도하기” 한현욱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좌장	이종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패널	권현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배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정보융합실장 이 언 가천대학교 길병원 인공지능기반병원추진단장



제10회 과학커뮤니케이션 포럼
[블록체인 기반의 미래 세상 이해하기]

2018년 6월 26일(화)
한국프레스센터
공동주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기조 강연	“Blockchain의 이해” 김형식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좌장	유은숙 숭실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초빙교수
패널	김경환 법무법인 인후 대표변호사 주용완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기반본부장 한상엽 삼성SDS 차장 윤덕용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장윤옥 The B Chain 대표, 전 테크 M 편집장



제11회 과학커뮤니케이션 포럼
[디지털변환시대: 인재교육 위기 탈출하기]

2018년 10월 10일(수)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

기조 강연	“새로운 과거와 오래된 미래를 위하여” 민동준 연세대학교 부총장
좌장	정현숙 EBS PD
패널	장갑수 Univ of Saskatchewan 물리학과 교수 이재호 경인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전준하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박사과정 오서빈 라돈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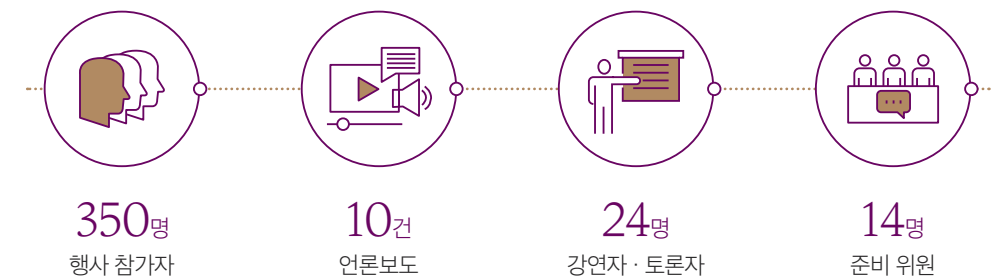
제12회 과학커뮤니케이션 포럼
[초연결 세상에서 소통하기]

2018년 11월 16일(금)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

기조 강연	“4차 산업혁명 시대, 융복합을 통해 살펴본 로봇 산업” 손진호 LG전자 상무
좌장	이종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패널	임미숙 KT융합기술원 Service연구소 상무 한근희 건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최정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율주행연구그룹장 김주용 숭실대학교 유기신소재·파이버공학과 교수



과학커뮤니케이션 포럼 실적



2. 쉽게읽는 과학웹진

쉽게 읽는 과학웹진은 과학커뮤니케이션 사업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알아야 할 15개의 핵심 용어를 소개하고, 올해 진행된 네 차례 포럼을 요약하여 온라인 채널을 통해 배포하였다.

4차 산업혁명 용어백과사전 (15회)	(1)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2) 블록체인 (3) 핀테크 (4) 클라우드 컴퓨팅 (5) 빅데이터	(6) 전기자동차 (7) 소셜로봇 (8) 사물인터넷 (9) 가상물리시스템 (10) 머신러닝	(11) 옛지컴퓨팅 (12) 확장현실 (13) 생체인식 (14) 협업로봇 (15) 4D 프린팅
과학커뮤니케이션 포럼 요약 (4회)	(1) 4차 산업혁명, 변화하는 세상에서 건강관리 및 의료의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방법은? (2) ICT 서비스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블록체인의 허와 실, 바로보고 미래를 준비하자 (3) 인재교육 위기탈출하기: 교육으로 교육을 디자인하다 (4) 초연결 세상에서 소통하기: 다양성과 창의성에서 길을 찾다.		



이중은 과학소통위원회
위원장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여성과학기술인이 주도하는 소통의 장, 과학커뮤니케이션포럼



2017년 2월 응급실 앞에서 출발하는 단체 버스에 몸을 실었다. 내가 속해 있는 기관의 기관장 워크숍이 개최되는 송도로 향하는 버스였다. 오랜만에 도심 속 사무실을 벗어나 재충전하는 시간이었다. 기관 내 각 부서들의 활동 계획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던 중에 들었던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한 특강은 빠르게 변화해 가는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자극하였고, 이 변화를 맞이 하기 위해 우리가 곧 무엇인가를 준비해야만 할 것 같은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던 신선한 자극이었다.

일상으로 돌아와 나는 다시 주어진 일에 몰두하였고, 일상의 중요한 일 중 하나가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여성과총)에서의 활동이었다. 늘 여성과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위 향상과 사회적 기여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여성과총 사업에 꽤나 열심히 참여를 하였다. 여성과총의 여러 포럼 행사, 학술대회나 다른 사업들에 참여를 하면서 늘 느꼈던 것은 여성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모임에서 얻는 이 많은 유익한 정보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던 차에 2018년 초 여성과총에서 과학소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보겠냐는 제의가 들어왔고, 나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의를 수락하였다. 내가 평소에 생각해 왔던 ‘과학 정보의 소통’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컴퓨터학, 정보학, 환경공학, 화학공학, 식품영양학, 건축토목, 신호처리, 의학, 약학 등 다양한 과학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구성된 과학커뮤니케이션 포럼은 더욱 풍성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2017년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왔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인식은 더 이상의 자극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는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다. 모든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 하고 있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 내에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발족 되었다. 이렇게 “4차 산업”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과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급격하게 변화될 정보연결사회에서 뒤처질까 봐 막연하게 두려워하고만 있는 것은 아닐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여성과총 내 여성과학기술인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변화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겠다는 생각과, 여성과학기술인을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 및 여성과학기술인에 의한 “디지털 변환시대”의 변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이렇게 2018년 과학커뮤니케이션포럼의 주제인 “4차 산업혁명: 변하는 세상 주도하기”의 대주제가 정해졌다. 4 회에 걸쳐 개최된 포럼 중 (1) “디지털 환경에서 건강 주도하기”에서는 미래의료의 긍정적 변화의 열쇠인 “의료데이터”에 대해 논의하였고, (2) “블록체인 기반의 미래 세상 이해하기”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될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으며, (3) “디지털변환시대: 인재교육 위기탈출하기”에서는 기존 교육을 되돌아보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서 인재 교육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4) “초연결 세상에서 소통하기”에서는 자율주행기술, 스마트 의료 등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적용되는 사물인터넷의 개념 및 공유 체제로 인한 기술보안 문제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번 과학커뮤니케이션 포럼에서는 정보화시대의 변화에 대해 좀 더 현실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주도해 갈 미래 과학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 하나의 숙제는 “어떻게 하면 청중들에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에 대해 명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였다. 과학커뮤니케이션포럼의 목적 중 하나이기도 한 ‘과학분야의 지식들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성과총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개념들에 대한 “개념 용어집”을 발간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어떤 개념들은 용어만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웠고, 이러한 전문적인 내용을 좀더 쉽게 풀어 작성하는 것이 필요했다. 전문가가 정리한 용어집의 내용을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모두 15개의 “4차 산업혁명 용어”에 대한 풀이집, “과학기술 [4차 산업혁명 용어백과]”가 준비되었다. 이 용어백과는 모든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성과총 홈페이지 내에 웹진의 형태로 게시(<https://kofwst.org/kr/notice/issue.php>) 되었다.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에 ‘많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진다’는 말이 있다. 과학커뮤니케이션포럼을 통해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모르는 것을 더 알기 위해 과학커뮤니케이션 포럼은 또 다른 정보들을 준비할 것이다. 여성과총의 과학커뮤니케이션포럼이 모든 사람들의 지식에 대한 갈증을 해결해 주는 포럼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세상에서 함께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10 출판사업

동시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성과학자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열정과 꿈을 격려하고자 2005년부터 출판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있다.

1. ‘벤처 하는 여자들’ 출간

소셜 벤처를 포함한 한국 최고의 과학 기술계 우수 기업인 5명을 선정하여 그들의 창업스토리를 소개한 ‘과학 하는 여자들’ 세 번째 시리즈 ‘벤처 하는 여자들’을 출간하였다. 이번 시리즈는 나날이 높아지는 스타트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도에 반해 다방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여성 과학벤처 사업가들에 대한 정보 부족을 해소하고 여학생들의 이공계 선택에 동기부여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벤처 하는 여자들’은 자칫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과학 기술 분야 비즈니스를 저자들의 생생한 경험담으로 풀어 쉽고 재미있는 분야로 다가오도록 구성하여 10대 청소년들 뿐 만 아니라 20-30대 여성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있다.



국내 우수 여성과학자 롤모델 제시를 위한 도서 발간

바이오벤처	양윤선	난치병의 희망 찾기
정보보안	이 영	경영은 사람 사이의 암호 풀기
과학전시	곽수진	독서광, 과학에 이야기를 더하다
벤처캐피탈	문여정	의사에서 벤처캐피탈리스트로
소셜벤처	이진주	더 많은 여학생이 더 넓은 세계로

2. ‘공학 하는 여자들’ 저자 초청 강연회 (* 서울시립과학관 공동 주최)

전문가를 통한 지식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공학 분야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공학 하는 여자들’ 저자 초청 강연회를 서울시립과학관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공학 하는 여자들’은 2017년 여성과총에서 출간한 책으로,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발전에 공로한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수상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서울시립과학관과 함께 하는 ‘공학 하는 여자들’ 저자 강연회		
강연자	일시	주제
김정선 국립암센터 교수	4월 5일(목)	인공지능, 건강식단을 짜다
최진희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4월 12일(목)	독성물질을 예측하는 오믹스
손소영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	4월 19일(목)	빅데이터로 세상을 탐험하다
이레나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	4월 26일(목)	사람을 치료하는 기계를 발명하는 사람



2017년 발간

3. 여성과학기술인이 찾아가는 북토크

‘여성과학기술인이 찾아가는 북토크’는 여성과총에서 출판한 <거침없이 도전한 여성과학자> 시리즈 역저자와 현업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이공계 진출촉진과 과학기술분야의 진로설정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 기획된 토크형식 강연회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 청소년에게도 과학기술분야 진로탐색의 기회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전국 6개 시·도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고교를 선정하여 방문하였고, 약 천 여명의 학생들이 함께 하였다.



<p>대전 유성여자고등학교 제9회(5.9) 강연: 박진아 KAIST 전산학과 교수 남영미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p>	<p>광주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 제10회(5.16) 강연: 여의주 가천대 의과대학 교수 한은미 전남대 화학공학과 교수</p>
<p>양평 양서고등학교 제11회(5.29) 강연: 권오남 서울대 수학과 교수 최영림 백림치과의원 원장</p>	<p>강원 춘천여자고등학교 제12회(6.1) 강연: 이숙경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 강인숙 경희대 의과대학 교수</p>
<p>서울 정신여자고등학교 제13회(9.21) 강연: 이종은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이호영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p>	<p>대구 경덕여자고등학교 제14회(11.5) 강연: 김인선 계명대 생명과학전공 교수</p>



“ 제 꿈은 패션에디터입니다. ‘패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과학과는 관련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과학의 깊은 내용을 알게 되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의상을 3차원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이용해 질감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미리 가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신기하고 설렘이었습니다.

“ 진료가 의료, 보건쪽이라 박진아 교수님께서 CG를 이용한 의료기술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때 관심이 많았다. 꼭 간호사처럼 직접 환자를 만나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이용해서도 환자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

“ 강연이나 멘토링을 들었을 때 항상 과학 관련이면 남자분이 하셨는데, 두 분 다 여성 과학자이셔서 조금 더 가깝게 와 닿았던 것 같다. 강연을 들으니 더 존경스러웠고 한 분야에서 여성으로서 선두에서 길을 개척해주신 것이 정말 감사했다.

“ 이 강의를 들으며, 여러 가지들을 정리해 보니 나의 간호사 라는 꿈에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내가 몰랐던 병들과 내가 평소엔 관심이 있던 의학부분을 전문적으로 교수님께 배워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춘천여고를 졸업하신 교수님을 뵈어 정말 영광이었고,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낀 만큼 꿈을 키워 가고 노력하는 내가 될 것이다.

4. 독후감 공모전

과학도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미래 과학자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한 청소년 대상 독후감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역대 최대 지원자 수를 기록하였고, 수준 높은 공모작이 다수 출품돼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접수된 공모작은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3차례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개인상 총 36명과 단체상 2개교를 선정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여성과총 출판도서를 통해 많은 학생들에게 롤모델을 제시하고 자신의 꿈을 찾고 키워나가는 계기를 부여한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

참가대상: 전국, 중고등학교 연령대 청소년
대상도서: 여성과총 발간도서 12종 중 택1
대회기간: 2018년 2월 5일(월)~3월 30일(금)
결과발표: 2018년 4월 25일(목)



최우수 독후감수상작

중등부 최우수상
 정읍학산중학교
 2학년 5반 장0지

난 내 꿈인 신약개발연구원이란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과 고비를 겪게 되겠지만,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신약개발연구원이 되어 이 세상의 불치병을 치료하고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값진 일을 하고 있는 미래의 나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대고 설렌다. 그렇다, 난 이 일을 정말 미치도록 하고 싶었던 것이다. 어떤 일이든 그것이 아무리 고된 일이라도 날 가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난 이분들을 내 롤 모델로 삼아 넘어져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중략)

고등부 최우수상
 부흥고등학교
 1학년 8반 조0경

나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위인전을 읽었다. 그 책들 중에는, 노력의 무게를 멋대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르타 티엔다보다 더 대단하다고 평가 받는 위인들의 이야기도 많았다. 그럼에도 나에게 이 책이 가장 뜻 깊다. 마르타 티엔다는 내 진로에 확신을 주었다. 나는 막연히 사회학 쪽을 좋아해서 사회학자를 진로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학이나 과학도 좋아했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해 확신은 없던 상태였다. 통계를 한다고 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과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있기도 했다. 마르타 티엔다는 이 책을 통해 그런 나의 고민을 완전히 해소해 주었다.

(중략)

5. 한국과학창의재단 <2018 우수과학도서> 선정

여성과총이 출판 기획한 '공학 하는 여자들'과 <거침없이 도전한 여성과학자> 시리즈의 '뼈 탐정: 법의인류학자 다이앤 프랜스'가 2018 우수과학도서로 선정되었다. 선정도서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도서를 구매하여 전국 도서관 학교 및 사회배려계층 시설 등에 보급되었다.



11 국제협력 사업

여성과학기술단체의 글로벌 협력과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한인 여성과학기술 단체와 공동으로 국제학술회의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한인 여성과학기술단체 대표를 초청하여, 지역별 한인 과학기술인의 활동과 현안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로 2014년부터 글로벌 여성과학기술단체 네트워크 포럼 (GNet KOWST Forum)을 운영하고 있다.

CKC 2018 KOFWST 세션 (KWiSE & KWSE Session I)

일시: 2018년 6월 19일(금)

장소: 캐나다 밴쿠버

주제: New Venture Challenge

내용: 캐나다한인여성과학기술자협회(KCWiSE)와 협력하여 공동개최, 여성과학기술인의 창업 도전에 관한 전략과 리더십의 중요성 논의, 한국-캐나다 한인여성과학기술인의 교류 기회를 위해 노력

UKC 2018 KWiSE-KOFWST 포럼

일시: 2018년 8월 3일 (금)

장소: 미국 뉴욕 St. John's University

주제: Gendered Innovation and Women's Leadership

내용: 2012년부터 재미여성과학기술자협회(KWiSE)와 협력하여 공동개최하는 포럼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리더십 능력 고양과 국제 연구 협력의 계기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의 장으로 활용. 해외 협력회원, 유럽한국여성과학기술자협회(EKWSEA)의 송미영 회장의 발표 참여, 동아시아여성과학기술인회,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충북여성과학기술인회,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여성IT위원회 등 회원단체의 참여로 교류와 협력의 폭이 한층 넓어진 것으로 평가

EKC 2018 KOFWST 포럼 (EKWSEA-KOFWST 공동 개최)

일시: 2018년 8월 23일(목)

장소: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주제: Women Scientists in a Rapidly Evolving Modern Societies

내용: 유럽, 한국 또는 기타 국가의 한인 여성과학기술인의 학술 또는 산업계 연구, 정책 발표 등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 마련을 위해, 협력회원인 유럽한국여성과학기술자협회(EKWSEA)의 공동으로 개최, 여성과총 국제행사 중 가장 다양한 국적의 한인 여성과학기술인의 모임으로써 큰 의미를 지님

GNet KOWST Forum

일시: 2018년 10월 30일(금)

장소: 과학기술회관

주제: How to Break the Glass Ceiling in STEM

내용: 과학기술인의 활동이 활발한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한인 여성과학기술단체 대표를 초청하여, 세계 여성과학기술인의 현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2014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5회 차를 맞아, 유리천장 지수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

AKC 2018 Women in Science (KOWSEAP-KOFWST 공동 개최)

일시: 2018년 11월 23일(금)

장소: 호주 브리즈번 Brisbane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주제: How to Break the Glass Ceiling in STEM

내용: 재아태한인여성과학기술자협회(KOWSEAP)와의 협력의 장으로 2014년, 2016년에 이은 세 번째 공동 행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한인여성과학기술인을 중심으로 공동 관심사를 논의



김미혜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충북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짧은 만남 긴 기다림, 그리고 깊은 울림



짧지만 강렬했던 만남, 포르테!!, 긴 기다림의 시간, 라르고!!! 그리고 깊은 울림

디지털 유목민처럼 핸드폰과 노트북을 챙겨서 떠돌았던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하고 주문을 외치면 너와 함께한 모든 날이 행복했었다고 읊조리며 말쑥한 도깨비 연예인이 나올 것만 같은 유월의 밴쿠버를, 굳이 아메리칸 드림을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든 자유의 여신상과 마주치는 순간 원하는 기회를 제공받을 것 같은 8월의 뉴욕을, 검은 뿔테 안경의 해리포터가 나에게 마법을 걸어줄 것 같은, 아니 어쩌면 조앤롤링의 책상 위 손끝에서 내가 마법사로 쓰여 질 것 같은 여름말미의 글래스고까지,

일 년에 한 번 있는 재외한인과학기술인들과의 만남은 항상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길지 않은 일정 속에서 팝콘 튀듯이 타닥거리며 시간에 넘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미처 못 다한 이야기를 뒤로 한 채 작별하고 그 날의 잔상들로 긴 시간의 여운을 남긴 채 다음 여름을 기다리게 됩니다. 재외한인과학기술인회 학술대회에서 진행되었던 올 해 여성세션 프로그램의 경우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구성과 운영방법을 달리하여 새롭게 시도하였기에 개인적으로 긴장감과 설레임을 동시에 느끼며 참석했었습니다.

New Venture Challenge Op.6 No19

캐나다에서 여성세션의 키워드는 벤처였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재캐나다여성과학기술인들과 충북여성과학기술인회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스튜디오크로스컬처의 실비용 반려인형 효돌로 창업한 이후의 경험과 애로사항, 캐나다의 특허 및 창업 사례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벤처관련 설문을 현장참석자에게 실시간 실시하여 새벽 6시까지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했던 발표입니다. 캐나다까지 가서 밤새며 작업 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술과 R&D 그리고 자기자본 이라는 응답결과를 남녀노소 거주 지역을 불문하고 대동소이하게 얻었습니다. 반면에, 창업자본금액은 나이에 비례하는 결과였는데, 40

대 이하 응답자 중 60%는 1억 미만의 창업자금을, 50대의 73%는 1억 이상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성 또는 동양인으로서의 유리하거나 불리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매력요소로 인식하는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동양인을 매우 불리함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Gendered Innovation and Women's Leadership Op.8 No.3

휴가철이 한창이었던 뉴욕에서는 젠더(Gender)로 여성세션을 물들였습니다. 재미여성과협과 여성과총 내의 젠더혁신연구센터가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워낙 많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을 롤 모델로 삼고자하는 유학생, 교포 1.5세대, 2세대와 같은 새내기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특징입니다. 연구와 실험 현장, 혹은 실험실 안전에서 고려해야하는 젠더 측면에서의 인식은 전공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새롭게 다가선 또 하나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닦고 싶은 선배들의 전설같은 인생교훈과 닦아가기 위해 참석한 후배들의 도전이야기들이 오고갔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미래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여성이든 엄마이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내기 바라며, 나에게 찾아온 기회를 외면하지 말 것이며, 매 순간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나의 소임을 다하는 순간들이 모이면 우리 다음 세대는 변한 세상을 누릴 수 있다고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았던 유의미한 순간이었습니다.

Women Scientists in a Rapidly Evolving Modern Societies Op.8 No.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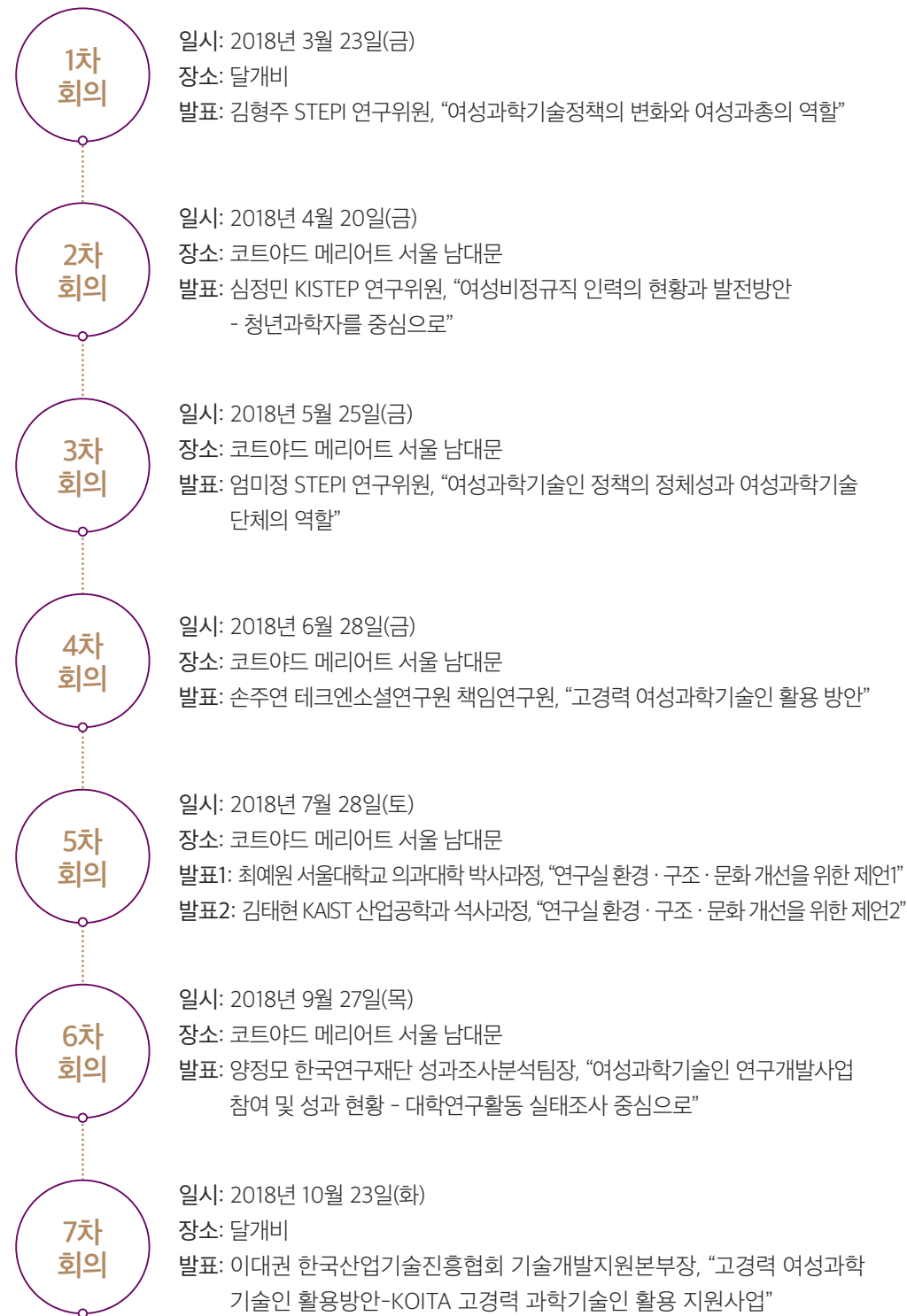
EKC는 9개 국가의 재유럽과학기술인협회가 함께 진행하고 그 이상의 나라에서 활동하는 한인과학자들이 참여하여 비슷하지만 다른 문화로 만난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재유럽 여성과학자들 역시 여러 유럽국가에서 참여하여 반가움과 정보를 공유하는 만남의 장이 EKC 행사장이기도 합니다. 글래스고에서 만난 한국식생활문화학회 회원들은 전 세계 각국의 음식을 먹고 평가하는 프로젝트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글래스고에서 우리는 유럽과 국내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지원정책과 적용 방안들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때론 사실에 입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때론 오리엔탈리즘급작전이라는 영화의 내용으로 때론 사례를 기반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만났던 재외한인 여성과학기술인들은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속에서 살며, 일 년에 한 번은 한 국민으로, 여성으로 과학기술인으로 다른 듯 다르지 않게 같은 듯 같지 않은 서로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기대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과의 만남은 짧았지만 여전히 가슴속 저 밑에서부터 깊은 그리움으로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훌쩍히 흐른 뒤, 반딧불이를 닮다가, 화초에 물을 주다가, 안개 낀 창문을 열다가, 까닭 없이 현기증을 느끼다가 내가 문득 그들이 보고 싶어지면 그들도 역시 그럴 때 나를 찾게 되는 서로의 지란지교가 되어 있기를 꿈꾸어 봅니다.

*원고마감 후 김미혜 위원장은 AKC 참석 차 호주 브리즈번까지 다녀오며, 올해 개최된 4곳의 KC 행사를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12 중장기 정책 실천방안 연구

1. 중장기발전계획실천위원회의



2. 여성과총 이슈 브리프

여성과학기술계 중장기정책 로드맵(2014. 7) 1단계 종료 및 4차 여성과학기술인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으로 여성과학기술인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발행일: 2018년 11월 23일
 작성자: 심정민 KISTEP 연구위원

2018 제1호: 여성과학기술인력의 비정규직 현황과 해법은?

기술발전 및 세계화의 진전, 경쟁의 증가 등으로 인해 고용유연성·임금 유연성의 확보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실업문제와 맞물려 여성과학기술인력의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여성과학기술인력의 경력단절 등 전반적 누수현상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참은 일자리로의 진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여성과학기술인력의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를 통계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① 교육단계에서의 취업지원 강화, ② 비정규직 일자리의 고용환경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의 두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발행일: 2018년 11월 30일
 작성자: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김소영 교수, 최혜원

2018 제2호: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 현황 및 정책 제언

6월 28일 여성과총 중장기발전계획실천위원회에서 발표된 테크앤소셜연구원 손주연 책임연구원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이슈 브리프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방안을 다뤘다. 실제 고경력이 지니는 의미 고찰,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 조사,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의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지원사업(ReSEAT),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센터(Retired Scientists and Engineers Center, RSEC) 사업을 정리하고,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위한 정책 방향(정부사업과 정책에 대한 분석가·견제자·압력자로서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등)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발행일: 2018년 12월 7일
 작성자: 엄미정 STEPI 연구위원

2018 제3호: 여성과학기술인력 정책의 변화와 여성과학기술단체의 역할

단계적으로 진행된 여성과학기술인력 정책 현황, 경제사회 환경변화와 주요 의제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중장기적 안목의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 여성과학기술인력 개인의 적극적인 대응, 사회적 뒷받침(조직 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함께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견해를 수록하였다.

발행일: 2018년 12월 7일
 작성자: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김소영 교수, 최혜원

2018 제4호: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사업 참여와 성과 현황

9월 27일 여성과총 중장기발전계획실천위원회에서 발표된 한국연구재단 양정모 성과조사분석팀장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이슈 브리프로 현재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사업 참여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여성과학기술인의 증가와 함께 여성과학기술인 참여 연구개발사업은 증가하고 있으나 2017년 조사된 10억 이상 연구자(621명)의 성별비중은 남성(95%, 588명), 여성(5%, 33명) 차지하여, 연구비 비중의 열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 분석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의 대형과제 참여 비중 제고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13 사회공헌 사업

이주배경청소년 과학진로지원사업

일시: 2018년 4월 25일(수)
장소: SQ무인항공교육원

과학기술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사회공헌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원활한 한국 사회 정착과 정서함양을 위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의 '레인보우스쿨' 및 '무지개 JOB아라', '내일을 JOB아라', '꿈을 JOB아라' 참가자를 대상으로 과학진로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드론교육과 실습 <무인비행기 이론 및 드론조정을 통한 항공과학 체험>

임소영 충남대학교 산학중점협력교수의 지원으로 '무지개 JOB아라' 참가자를 대상으로 항공과학체험을 하였다. 무인비행기 개론을 간략히 배우고, 드론세팅의 기초, 호버링연습기를 사용한 안전비행 연습을 한 후 맘껏 드론을 날려보았다. 본 과정은 창의적인 체험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향후 항공 과학 진로탐색 및 선진화된 취미문화로 연결 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본 교육에는 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기유경 위원장과 최영림 위원장도 참여하였다.



일시: 2018년 5월 29일(화) / 11월 20일(화)
장소: 무지개청소년센터 인근

이동치과병원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인 최영림 대한여치과의사회 고문의 지원으로 구강검진과 진료를 실시하였다. 작년에 이어 이동검진버스를 활용하여 무지개청소년센터 인근에서 상하반기 두차례 운영하였다. 이동치과병원을 운영하면 더 많은 청소년이 검진과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사회공헌위원회에서는 이동치과병원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일시: 2018년 6월 27일(수) / 12월 6일(목)
장소: 무지개청소년센터

우수 이주배경청소년 장학금 지급 2016년부터 사회공헌사업으로 총 55명의 청소년에게 장학금 전달

장학금은 상·하반기 두 차례 지급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정기적으로 수여하는 상·하반기 수료생 중 선발된 우수 청소년 20명 외에, 기존과정 수료생 중에서 특히 모범이 되는 졸업생을 상·하반기 각 1명씩 선정하여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우수한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은 올해 말 기준으로 55명에게 1,7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할 예정이다.



일시: 2018년 10월 10일(수)
장소: e편한세상 상도 노빌리티 현장

건설현장 직업체험

무지개 JOB아라 참여자를 대상으로 건설현장에 대한 개요를 듣고 현장체험을 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장년 대림산업부장의 지원으로 일반인이 흔히 볼 수 없는 아파트 건설 현장을 안전하게 체험하였다. 사회공헌위원회 기유경 위원장, 여의주 위원도 현장을 찾아 격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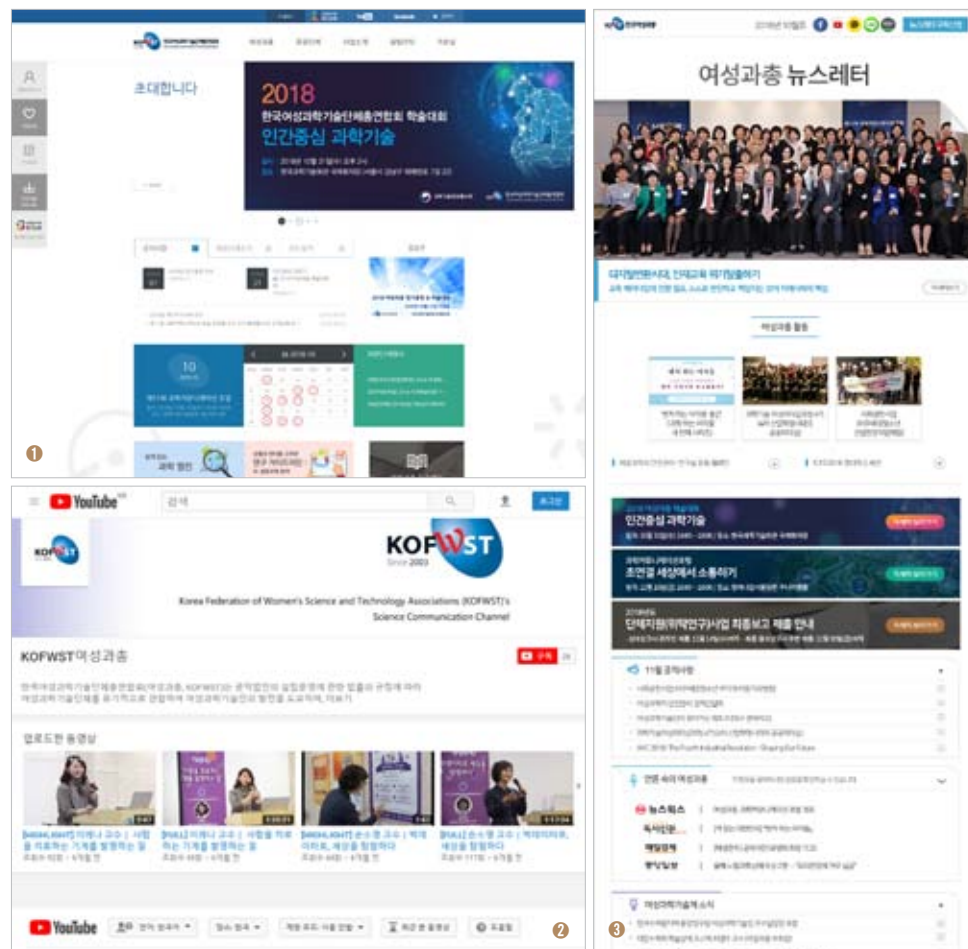
14 웹/모바일 네트워크

융합과 협업이 더욱 강조되는 요즘, 홈페이지(국영문, 모바일)와 이뉴스는 여성과총 회원단체들의 열의 있는 활동을 적시에 공유하고, 단체 간 정보공유 채널로서 회원들에게 시의성 있는 정보제공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에는 강선미 서경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7명의 홍보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성과총 홈페이지와 이뉴스가 회원단체와 회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하였다.

여성과총의 다양한 활약과 사업결과 확산을 목표로 시의성과 유용성을 갖춘 정보 콘텐츠 개발을 위해 온·오프라인 기획회의, 벤치마킹 및 아이디어 교환 등으로 내실화를 추진하고, 이슈와 트렌드 분석·제공 및 대외 메시지 강화방안을 반영하여 네트워크 채널의 혁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대표적으로 회원단체간의 융합과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회원단체장 인터뷰시리즈를 신규 기획하여 매달 인터뷰를 진행, 홈페이지 업로드와 이뉴스로 배포하고 있다.

여성과총은 홈페이지와 이뉴스가 회원단체들의 소통허브로서, 회원단체와 회원들의 관심과 피드백으로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계속 노력하고자 한다.

- ① 홈페이지 메인
- ② 유튜브 메인
- ③ 이뉴스



회원단체장 인터뷰

1호



이태림

한국통계학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젊은 여성 통계인의 진로와 학회활동의 활성화 필요, 여성과총 활동을 통해 여성 통계인의 역할 도모 기대”

2호



최은희

한국여성정보인협회 회장

“여성 IT인재아카데미 실행조직 운영 어린이집 유아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IT 윤리교육 실시”

3호



임혜인

대한금속 재료학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융복합 신소재 분야연구로 소재강국으로 가는데 기여, 금속·재료학회 학생회원 중 여학생 비율 32.9%, 정회원 여성비율 8.5%”

4호



윤명희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창의적 여성 경제 주체들이 인정받는 환경과 분위기 조성, 매년 '여성발명왕 EXPO' 주최, 혁신적 아이디어와 우수 발명품 다수 출품. 전국 여성발명기업인의 구심점 및 '인큐베이팅' 역할”

5호



정선주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회장

“소통과 공감의 여성과학자 생명과학 네트워크: WBF, 기초과학계 국가 R&D 생태계 개혁을 통한 연구실 환경조성 필요”

6호



이승숙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회장

“원자력과 방사선에 대한 이해 확산, 소통, 협력, WIN KOREA의 역할과 원자력 지식의 확산”



젠더혁신 연구사업

- 76 젠더혁신연구센터 활동
- 80 인터뷰(Dr. Robyn Norton)
- 84 젠더혁신연구 DB,
웹사이트 소개

01 연구·정책 포럼

국회토론회 (과학기술 젠더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8년 3월 6일(화) 국회의사당

젠더혁신연구센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 ‘과학기술 젠더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상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그리고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했다.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 이혜숙 젠더혁신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젠더혁신은 단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여성에게 유용한 치료법이 남성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희영 젠더혁신연구센터 센터장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국제경쟁력, 산업화, 국민행복증진을 위해 젠더혁신의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젠더혁신연구포럼(남녀 모두를 위한 기술혁신)
2018년 5월 10일(목) 한국프레스센터

젠더혁신연구센터의 공학기술 분과와 도시환경 분과의 연구사례를 확산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남녀 모두를 위한 기술혁신’을 주제로 젠더혁신연구포럼을 개최하였다. 먼저 조옥라 서강대학교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을 통해 젠더혁신을 통해 확장된 연구 영역과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특히 정책개발세션에서는 재난 안전관리 정책에서 젠더혁신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젠더혁신연구포럼(남녀 모두를 위한 의생명분야 혁신)
2018년 5월 23일(수) 한국프레스센터

젠더혁신연구센터의 기초과학 분과와 의생명영양 분과에서는 ‘남녀 모두를 위한 의생명분야 혁신’을 주제로 하여 연구사례 발표와 정책을 제안하는 포럼을 개최하였다. 홍은주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젠더혁신의 사회경제적 의의를 강조하였다. 이어서 김영미 경희대학교 교수와 이숙경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젠더혁신연구센터에서 제작한 의생명분야 연구 가이드라인과 젠더혁신연구DB를 소개하여 큰 관심을 이끌어내었다.



02 학술대회 공동세션

IUBMB 2018 젠더혁신세션(Gendered Innovations in Biomedical Research and Publication)
2018년 6월 8일(금) 코엑스

의생명 분야 연구에서 젠더혁신을 반영한 실제적인 연구사례들을 소개하고 연구자들이 효과적으로 본인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학술지 편집정책을 확산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젠더혁신연구센터는 지난 6월 8일(금) 코엑스 그랜드볼룸 101호에서 ‘Gendered Innovations in Biomedical Research and Publication’을 주제로 IUBMB 2018 젠더혁신세션을 개최했다. 본 세션에서는 백희영 젠더혁신연구센터장, 이문영 원광대학교 교수, 김영미 경희대학교 교수, 이숙경 가톨릭대학교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젠더혁신연구를 실제로 수행한 경험과 의의를 강조했다.

IUBMB는 세계생화학분자생물학회가 주최하는 국제 학술회의로 올해 24회째를 맞고 있다.



ICES 2018 젠더혁신세션(Gendered Innova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8년 10월 18일(목)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ICES 2018(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ergy and Sustainability)에 젠더세션이 ‘Gendered Innova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본 세션은 성창모 고려대학교 그린스쿨 초빙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하여 최용상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하경자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공학과 교수가 차례로 발표를 하였다. 백희영 젠더혁신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은 조옥라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이혜숙 젠더혁신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이 발언하였다.

ICES는 서울대학교, NM-AIST가 주최하는 국제 심포지엄으로 올해 2회째를 맞고 있다.



03 교육과 확산

해외연사 초청포럼(Gendered Innovations in Biomedical Science)
2018년 6월 20일(수) 한국과학기술회관

과학기술 선진국 중에서도 특히 캐나다는 성과 젠더분석을 적극적으로 연구에 반영하고 있으며 활발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교의 Tannenbaum 교수를 초청하여 성·젠더 의학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실과 거짓을 찾아보는 흥미로운 시간을 가졌다. Cara Tannenbaum 교수는 실제로 연구자들에게 젠더혁신을 교육할 때 사용하는 커리큘럼을 활용하여 바로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하였다.



젠더혁신연구 DB 구축 워크숍(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위한 문헌 검색과 선별)
2018년 5월 31일(목) 숙명여자대학교

젠더혁신연구 DB를 구축할 때 필요한 체계적인 문헌검색 전략을 교육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본 워크숍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이론 교육과 실습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백희영 젠더혁신연구센터장과 성미경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젠더혁신연구의 체계적 문헌고찰 경험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 다음 순서로 이춘실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효율적인 DB구축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고, 정소나 가톨릭대학교 사서팀장이 구체적인 검색전략 이론 교육과 실습 수업을 진행하였다. 많은 연구진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세계 최초로 구축된 젠더혁신연구 DB의 확장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04 국제 심포지엄

여성건강과 젠더혁신 연구 심포지엄(Women's Health and Gendered Innovations)
2018년 9월 12일(수) 플라자호텔

젠더혁신연구센터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공동으로 젠더혁신 확산과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심포지엄은 '보건의료 분야의 젠더혁신'을 주제로 한 1부 세션과 '여성건강 연구'를 주제로 한 2부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Marcia Stefanick 교수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Robyn Norton 교수가 기조강연을 통해 젠더혁신과 여성건강연구의 세계적 추진 현황과 의의를 역설하였다.



이어서 백희영 젠더혁신연구센터장, 정효지 서울대학교 교수, 김나영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성미경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국내 젠더혁신 연구 결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학계, 의료계, 언론계 등 관련 연구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에서는 젠더혁신의 국내·외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젠더혁신 연구 도입을 위한 제도 및 정책개발 필요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본 심포지엄을 통해 보건의료분야에서 성·젠더 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여성 뿐 아니라 남녀 모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발전적 대응방안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관련 연구가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Interview

Dr. Robyn Norton

Principal Director, The George Institute for Global Health
Professor of Public Health, UNSW Sydney
Professor of Global Health & Oxford Martin Senior Fellow, University of Oxford

Robyn Norton is the lead author on a University of Oxford policy paper entitled "Women's Health: A New Global Agenda", calling for a greater focus on the burden of non-communicable diseases in women and the importance of a gendered approach to the collection and utilisation of health data.



지난 9월, 젠더혁신연구센터와 질병관리본부는 '여성건강과 젠더혁신'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백희영 젠더혁신연구센터장은
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로빈 노턴(Robyn Norton)박사와 함께 젠더혁신과 세계
여성건강연구 추세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자리를 마련했다.

백희영 센터장

여성건강을 위해 젠더혁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
고 생각하는가?

노턴 박사

보통 젠더의학을 떠올리면 기본적으로 성과 젠
더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과 그것이 어떻게 도움
이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 생각한다. 젠더혁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차이들을 문서화하고, 어떻게
차이가 발생하는지 이해하여 이를 토대로 남성과
여성 모두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방법을 모색
하는 것이다.

백희영 센터장

세계 건강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세계여성
건강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노턴 박사

우리 연구소에서도 여성건강 프로그램을 공식화
하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다. 연구소 내에서 다
양하고 많은 일을 추진하다보니 연구소가 하는 일
을 대중에게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 해결
책을 찾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시작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 결과로 선정
된 주제가 여성건강이었고 실용적인 개발계획이

라고 생각되어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영국에서는 여성건강에서 젠더의 역할을 인지하
고 산부인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
다. 지난 2-3개월 동안 우리는 옥스퍼드에 글로벌
여성건강을 위한 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프로그램
을 추진하고 있다. 옥스퍼드의 첫 여성 부총장인
루이스 리차드슨 또한 이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
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저소득국가에 살
고 있다. 우리가 젠더 의학을 진심으로 중요하
다 고 생각한다면, 중저소득국가 여성들에게도 중요
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국가에서
는 자원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자원 활용도 신중
하게 해야 하는데, 예방과 운영전략을 목표로 한
다 면 더 효율적인 것이다. 우선 성과 젠더 별로 질병
이 발생하는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
득국가와 고소득국가에서도 성 불평등이 높다는
증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실제로 인지하고 여성에 대한 예방과 운영전략을
목표로 삼아 성차별을 완화 할 가능성이 있는 전략
을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중저소득국가에서 수행하는 연구들이 많기 때문
에 이러한 국가에서 수행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실제로 어떻게 의료서비스에 작용될 것인지에 초
점을 두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성별과 생물학적 차
이보다는 젠더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이해
하고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백희영 센터장

여성건강을 위한 세계건강이 점점 더 중요해지
는 것 같다. 젠더혁신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
한 기본적인 이해와 근거를 제공해주고 의료와 건
강 분야에서 문제를 찾는 것에 도움을 줄 것이다.

노턴 박사

인도에서 일할 당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
다. 인도에서는 사람들이 말하길 여성은 부족한 자

원 때문에 아이들과 남성에게 밀려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얘기를 뒷받침 해 줄 연구가 부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위해서는 문서화부터 시작하여 뒷받침 할 필요가 있다.

어제 박도준 국립보건연구원장을 만나 연구소가 성장할수록 대학에서 지원해주는 자금 뿐만 아니라 외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글로벌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나누었다. 국립보건연구원뿐만 아니라 젠더혁신연구센터와도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다면 각 기관에도 좋은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비를 모으는데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조지 글로벌헬스 연구소 내부적으로 이를 위해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위원회 자문이 필요할 텐데 이 과정에서 도와줄 수 있다면 좋겠다.

백희영 센터장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알다시피 정부지원을 받는 일은 굉장히 까다롭다. 여성과총이 젠더서밋에 참여한 이력이 없었던 한국에서 젠더혁신은 학회를 여는 등의 수준에서 정체되었을 것이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는 기관 특성상 젠더서밋을 개최하기 위해 주어진 예산 활용에 제한이 있었고 연구를 위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젠더혁신 활동을 이어나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여성과총도 마찬가지로 소속 회원단체들을 위한 지원과 사업이 우선시 되었고 연구를 위한 연구비가 예산에 포함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젠더혁신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WISET의 경우 재단법인이기도 하며 좀 더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여성과총 부설 젠더혁신연구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다. WISET에서 소장이었던 이혜숙 교수가 경험을 토대로 젠더혁신 정책부문을 맡아 문제없이 수행해주고 있다. 우리 센터의 자금이 WISET이나 국립보건연구원에 비교하자면 훨씬 적은 액수이겠지만 연구를 지속하기위한 자금 활용에 좀 더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이라도 말씀하신

파트너십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젠더혁신연구 활동에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노턴 박사

우리도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호주에서 인권연구소와 지원금에 대해 미팅을 했었는데 연구에는 관심이 없었고 정책분야에 대한 지원에만 관심을 보였다. 이 부분에서 젠더혁신연구센터를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 젠더혁신연구센터에서는 젠더서밋부터 시작해서 젠더혁신을 확산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론다 쉬빙어(Londa Schiebinger)교수가 하고 있는 일들은 대단한 일이지만 혼자하기에는 벽찬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젠더혁신연구센터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더 단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백희영 센터장

그렇다. 나중에 은퇴하게 되더라도 젠더혁신연구센터가 탄탄한 기반을 유지하여 지속되기를 바란다.

노턴 박사

호주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받기위해 몇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지만 젠더혁신연구센터가 이런면에서 더 앞서있는 것 같다.

백희영 센터장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정책이란 알아서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연구자들도 정책발전에 관여할 수 있다. 특히 우리는 과학기술 분야 정책을 위한 기관이 하나 이상이기 때문에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자가 정책발전에 목소리를 내기에 더 좋은 환경이다. 하지만 막상 의견을 제시하면 기관들은 이런 저런 규정을 이유로 들며 제약을 건다.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연구자들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구배경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발생하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는 과학을

발전시킬 수 없다.

예를 들어, 내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도 대략 5년 이 걸린 연구다. 처음 2년은 다른 연구를 분석하였고 문제점을 찾아 연구진을 꾸리고 연구를 시작하여 이제 4년이 되었다. 이처럼 한 연구를 하는데 5-6년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1년 단위의 지원이 일반적이고 3년의 지원을 받으면 운이 좋았다고 한다. 또, 연구주제가 이전과 비슷하거나 겹치게 된다면 제지된다. 그들은 지속적인 연구로 변화시키겠다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노턴 박사

센터에서 받고 있는 장기 연구비 지원(다년도 과제)이 있는가?

백희영 센터장

2016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으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호주에서도 비슷한 센터 또는 활동을 발전시켜 우리 센터에서 좋은 예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

노턴 박사

이들간 젠더혁신연구센터 사례연구 발표를 컨설팅하며 살펴보니 함께 다양한 공동 연구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 비슷한 주제로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시켜줄 수 있으며 그로인해 연구내용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백희영 센터장

지금 수행중인 공동 연구에 대해 좀 더 이야기 나누었으면 한다. 2년 전 젠더서밋에서 처음 만난 이후 공동연구에 대하여 전화로 회의를 했고, 서류가 오고가기 시작한 것은 2017년 봄이었다. 정효지 교수(서울대학교)가 발표 당시 말했던 것처럼 health data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활용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조언을 듣고 데이터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물론 데이터를 얻고 필요한 구성요소

를 확보하여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데이터 제공으로 인해 시스템을 바꾸었기 때문에도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그 결과 우리는 이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공동으로 계획할 수 있는 일 중 한 가지 더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영-한 자금지원이다. 이전에도 시도해 본 것처럼 영국 대사관에 연락하여 자금지원에 대해 의논해보면 좋을 것 같다. 연구비 지원 개념을 떠나 교환이라고 생각한다.

노턴 박사

예전에 비해 지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백희영 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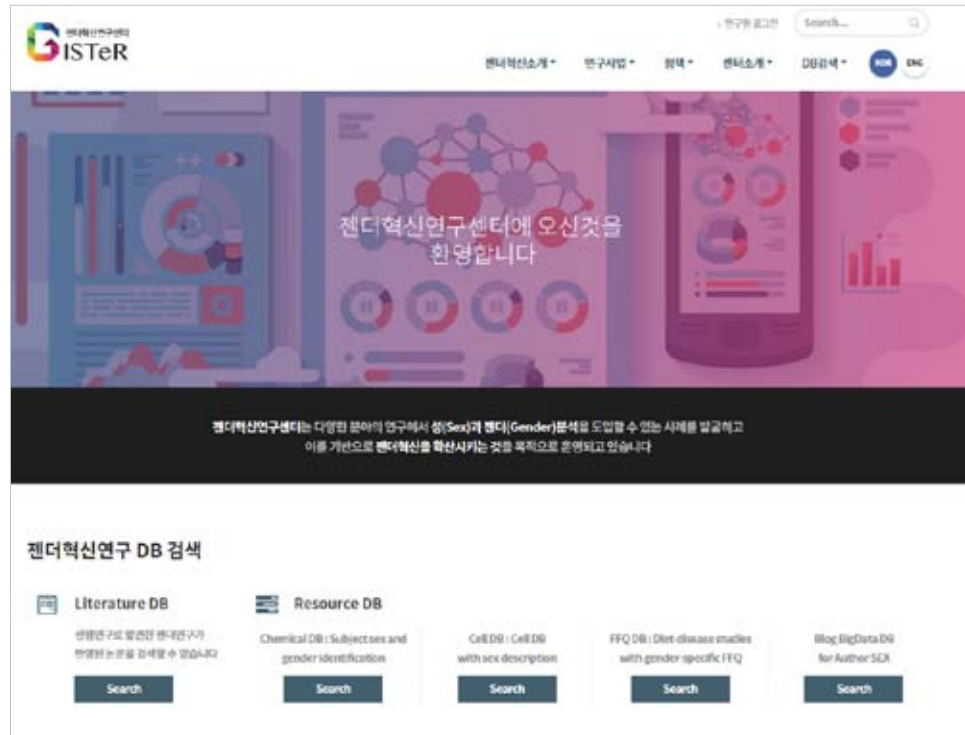
이번 한국방문이 두 번째라고 알고 있다. 젠더혁신연구센터 또는 여성과총의 일로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어땠는가?

노턴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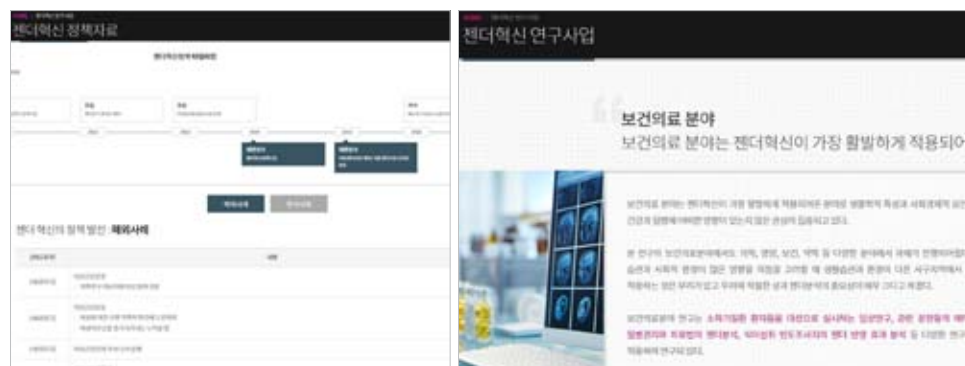
사람들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보고 듣고 감명했다. 여기서 젠더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보건 시스템의 모든 일에 성과 젠더 분석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성과 젠더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연구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연구하도록 장려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인상 깊다. 단순히 연구에서 그치지 않고 정책에서의 진취적인 모습도 놀라웠다. 사람들에게 성별과 젠더를 고려한 연구를 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한 것도 중요한 업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세포를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Cell DB를 구축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꼭 알리고 싶은 내용이다. 연구진들의 열정과 헌신과 그 결과물 하나하나 모두 대단하다고 말하고 싶다. 이번 한국 방문은 나에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놀라운 경험이었다.

06 젠더혁신연구 DB, 웹사이트

젠더혁신연구센터는 국제적 추세에 따라 과학기술에서 성·젠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젠더개념을 확산하여 연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젠더혁신연구 DB를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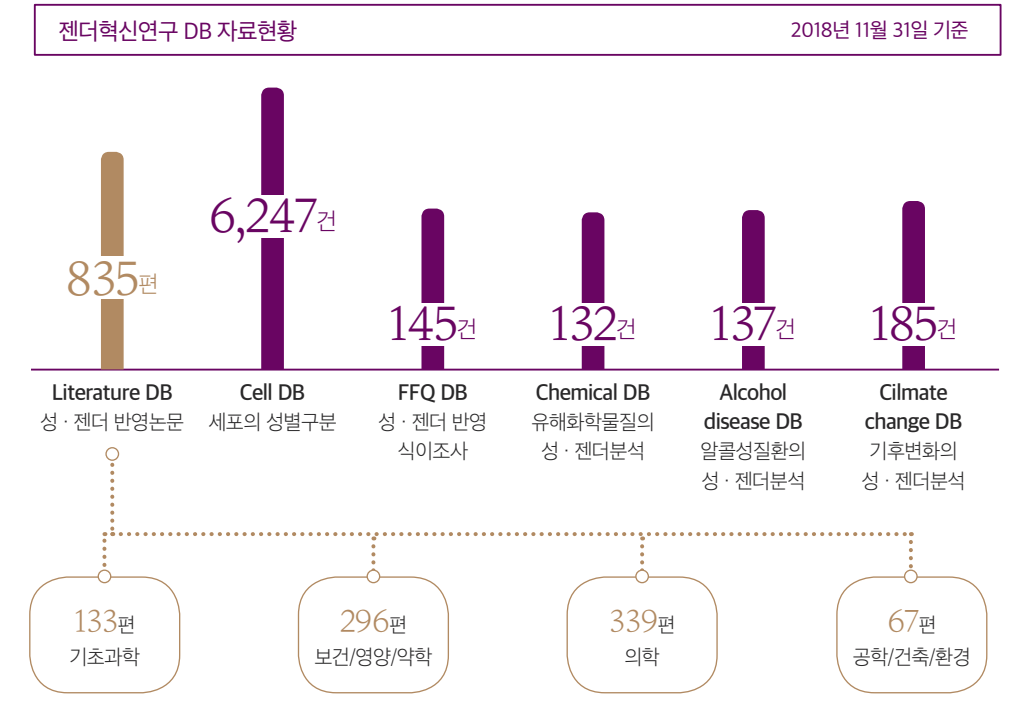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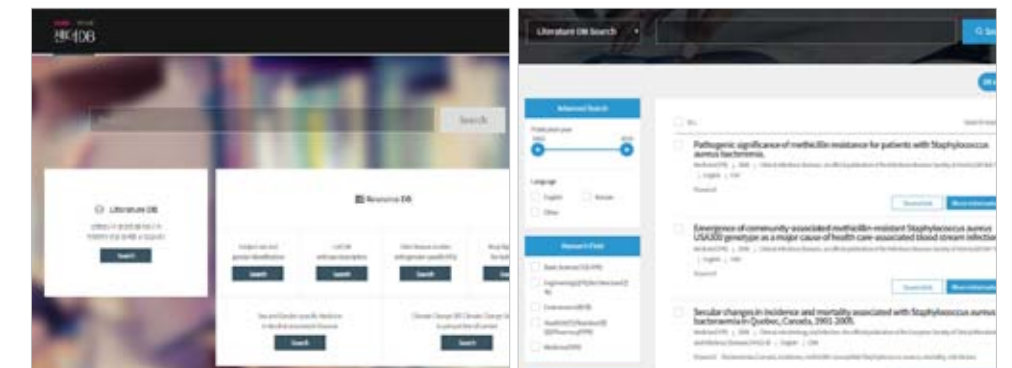



젠더혁신연구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센터 소개와 활동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내외 정책 자료와 과학기술 분야별 연구사례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연구DB는 성·젠더 분석을 활용한 연구 문헌들로 구성되었으며 선행연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의 관심 주제와 연구방법에 따라 실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연구DB는 문헌DB와 자료DB로 구성되어 있으며 젠더혁신연구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젠더혁신연구센터 홈페이지와 연구DB는 젠더혁신연구센터에 소속된 연구진이 수집·분석한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연구자와 일반인 모두가 보다 쉽게 젠더혁신연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회원단체 소식

- | | |
|-----------------------|-----------------------|
| 88 한국화학공학회 여성위원회 | 104 한국생활과학회 |
| 한국통신학회 여성위원회 | 105 한국물리학회 여성위원회 |
| 89 한국정보보호학회 여성위원회 | 106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여성IT위원회 |
| 90 한국전기화학회 여성위원회 | 107 한국기술사회 여성위원회 |
| 91 한국자동차공학회 여성위원회 | 108 한국공업화학회 여성인재육성위원회 |
| 92 한국임상영양학회 | 한국간호과학회 |
| 93 한국의류학회 | 110 충북여성과학기술인회 |
| 94 한국영양학회 | 111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
| 95 한국여자의사회 | 112 동아시아식생활학회 |
| 96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 113 대한화학회 여성위원회 |
| 97 한국여성수리과학회 | 114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
| 98 한국여성발명협회 | 115 대한금속재료학회 여성위원회 |
| 100 한국여성건축가협회 | 117 대한가정학회 |
| 한국여성건설인협회 | 118 대구경북여성과학기술인회 |
| 102 한국식품조리과학회 | 119 글로벌여성 ICT 네트워크 |
| 103 한국세라믹학회 여성세라미스트부회 | 120 대한약사회 여약사회 |

01 한국화학공학회 여성위원회

여성기술리더 심포지움

2018년 10월 25일, 대구엑스코에서 “여성기술리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여성과총의 지원을 받아 매년 화공 관련 분야의 기술리더들을 모셔서 강연을 듣고 네트워킹하는 심포지움이다. 올해는 비식용 바이오매스로부터 액상 바이오연료 생산기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지연 박사), 원자로 냉각재 관리를 위한 화학공학적 접근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상민 박사), SK케미칼의 친환경 고분자 제품 소개 (SK케미칼 김지현 박사), 기업에서 바로 통하는 창의적 과학 인재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 (슈퍼트랙 서현주 이사)의 네 개 강연으로 구성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여성 리더들의 지식을 공유하고 네트워킹하였으며, 특히 한국화학공학회의 가을 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하여 폭넓은 청중들의 관심을 받았다.



2018 ICT 분야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2018 ICT 분야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10월 12일 (금) 대전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성공적인 전문직 여성 연구원으로 살아남기? 주제로 진행되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선임, 책임 포함)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소 여성과학자 지원 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한국과학기술연구회 김은성 연구원 특강을 통하여 실태 진단 및 발전 방향성 도출 및 추진 전략을 논의하였다. 연구소 내 신진 여성 연구 인력과 교류하고 학회 여성위원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도 일조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통신학회 여성위원회와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활동 영역과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같이 식사를 하며 선배연구원들이 후배연구원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좋은 자리로 간담회를 마무리 하였다.



02 한국통신학회 여성위원회

학회로 찾아가는 간담회 (새로운 연구와 행복한 만남)

학회로 찾아가는 간담회가 6월 21일 (목) 제주도 신화월드에서 한국통신학회 하계학술대회(6월 20일~6월 22일)에서 여성위원회 특별 세션을 구성하여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새로운 연구와 행복한 만남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여성전문가와 통신학회 회원들과 대학생 등 50여명의 다양한 청중이 행사장을 찾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권은희 전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여성이 ICT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강점과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구현희 싱크테크노 대표의 3GPP 표준화 현황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또한 박사 수료 및 예정인 여성 신진 연구자 4명을 발굴하고 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학회에 참여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학회에 참석한 학부생과 대학원생들과 함께 토론하며 간담회를 마무리 하였다.



여성과학기술인 역량강화 세미나

03 한국정보보호학회 여성위원회

여성과총 단체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역량강화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5월에 진행된 첫 번째 세미나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조현숙 소장이 ‘여성, 일과 가정의 균형’이라는 주제로 여성 과학자로 살아온 길에 대해 강연했다. 참석자들은 조 소장의 강연에 큰 공감을 표하며 정보보호·과학기술 분야 여성 리더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6월 정보보호학술대회 기간 중 진행된 두 번째 세미나는 인터파크 윤혜정 실장의 ‘지금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정보보호 인재상’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차세대 과학자들에게는 취업준비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과학인들에게는 정보보호 인재 양성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전날 진행된 준비모임에서도 정보보호 분야의 책임의식에 대해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10월에 진행된 세 번째 세미나는 라온시큐어 화이트햇센터 이정아 대표가 연사로 참여하여, ‘사이버 보안 인력 양성 및 블랙박스 모의해킹’에 대해 발표하였다. 세미나 청취 후, 정보보호 인력 양성 및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열린 토의가 진행되었다.



04 한국전기화학회 여성위원회

2018 한국전기화학회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 여성전기화학자 심포지움 세션 개최

2018 한국전기화학회 학술대회의 여성전기화학자 심포지움 세션이 여성위원회 (송승완 충남대 교수 (위원장), 연순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변혜령 KAIST 교수, 최남순 UNIST 교수) 주관으로, 춘계에는 4월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추계에는 11월 2일 여수컨벤션센터에서 각각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에너지 변환/저장 디바이스 및 촉매”라는 주제로, 춘계 심포지움은 2018년 여성과총단체지원사업 지원하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순화 박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고, △리튬 설퍼 전지의 성능 향상을 위한 양극 개질 및 전해액에 대한 고찰(현정은 박사, 자동차부품연구원), △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 전환 화합물 합성 금속 나노 입자 촉매 개발 (황윤정 박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리더급 여성전문가 초청강연과, 2018년 한국전기화학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여성 대학원생 (2018 여성과총 단체지원사업에서 상금 수여)의 △백금 촉매의 질소 함량에 따른 산소환원반응에서의 내구성 변화(함가현 학생, 광주과학기술원), △Effect of Surface Modification with Pyrrole on the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Na₂-xMnFe(CN)₆·zH₂O (박아람 학생, 동아대학교)의 구두발표로 구성되었다.

추계 심포지움은 KAIST 변혜령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고 △슈얼도핑을 활용한 마그네슘 나노구조 기반 고성능 수소 저장소재 개발(조은선 교수, KAIST) △Pyrophosphate 물질을 이용한 효율적인 물 분해 촉매 연구(김현아 학생, 서울대학교), 기공크기를 조절한 서로 연결된 다공성 탄소나노시트 합성: 메커니즘과 전기화학적 커패시터 응용 (이지영 학생, KAIST), △Electrodeposited high-performance anode materials for Na-ion batteries (조은애 교수, KAIST) 등 리더급 여성전문가 초청강연과 2018년 한국전기화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여성 대학원생의 구두발표로 구성되었다.

본 여성위원회에서는 여성전기화학자 심포지움 세션 개최를 통해 전문가-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와 전기화학 전공 여성 대학원생의 전문 교육/학술활동 참여 격려와 사기 진작을 추구하며, Power Hour 개최를 통해 국내 여성 전기화학자 (Woman Electrochemists Committee, WEC) 네트워크를 활성화와 여성 신진연구자, 여성 대학원생 및 포스트닥이 연구-학술활동과 진로 탐색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멘토링을 하고 있다.



05 한국자동차공학회 여성위원회

여성위원회 기술세미나 개최

부산 BEXCO에서 개최된 자동차공학 분야로는 국내 최대의 학술행사인 2018 한국자동차공학회 춘계학술대회 기간 중 6월 8일(금) 기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사회 초년 과학기술인의 정보전달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높이고, 자동차 신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자동차부품연구원의 나종관 박사는 ‘e-모빌리티 산업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내용으로 전기차, ICT 등 기술 융합형 신개념 이동수단과 같은 미래의 이동수단의 대한 예측과 그에 따른 신사업 연구 등을 소개하였고, 한국환경건강연구소 전상일 소장은 ‘엔지니어의 미래, 소통능력에 달려있다’를 주제로 연구원이나 엔지니어 같은 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칫 결여될 수 있는 조직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소개하였다.



우수여성 엔지니어상 시상

국내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에 과거와는 달리 매년 참가하는 여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새만금군산자자동차경주장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한국자동차공학회 여성위원회는 참가하는 여학생들에게 기술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역할을 유도하고 엔지니어로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Baja, Formula, EV 부문별 각 1팀에게 우수여성엔지니어상을 수여하였다.

2018년도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우수여성엔지니어상 수상자

- 인하공업전문대학 패트팀 (팀장 : 김주리)
- 국민대학교 KOOKMIN RACING F-18팀 (팀장 : 김현진)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밭대학교 연합 Das stern팀 (팀장 : 이하정)



06 한국임상영양학회

2018 하계 학술대회 개최

하계 학술대회가 '소화기 질환 환자의 임상영양치료'라는 주제로 지난 6월 23일 세브란스병원에서 450여명의 많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소화기 영양질환의 최신 지견과 전망에 관한 Plenary Lecture를 비롯하여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변미생물 이식술'을 다루었을 뿐 아니라 생애주기별 소화기 질환을 비롯하여 염증성 장질환과 간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연수강좌에서는 소화, 흡수, 위장관 이상 증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식도 및 체담도암 환자의 최신 치료 지침 및 영양치료의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어 다시 한 번 임상영양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소화기계 질환에 대해 관심을 가진 학계 연구자, 임상현장의 실무자, 산업계와 국가 정책기관 관계자들 모두에게 최신 지식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2018 '실무 및 교육 현장에서의 NCP 사용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9월 8일 연세대학교의과대학 및 세브란스병원에서 '실무 및 교육 현장에서의 NCP(Nutrition Care Process, 영양관리과정 이하 NCP) 사용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오전 특강과 오후 NCP 사례 실습으로 나눠 진행되었다.

오전 특강으로는 Tufts Medical Center의 Kelly Kane, RD, CNSC을 초청하여 미국에서의 NCP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NCP 활성화를 위한 성공 전략에 대한 강의(동시통역 지원)와 우리나라 NCP 적용 사례에 대한 강의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오후에는 피교육자를 초급과 중급과정으로 나누어 이론 강의, 소그룹 지도 및 사례별 토의가 진행되는 등 심도 있는 워크숍이 이루어졌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표준화된 NCP의 중요성,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NCP 실행 방법, 질환별 다양한 실제 사례 연구 등의 최신 지식을 공유하고, 전문가/임상영양사전문과정 대학원생/현장에서 활동하는 임상영양사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역량을 갖춘 차세대 임상영양전문가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워크숍 및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화되면 임상영양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의료 비용 절감과 국민 복지 향상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임상영양학회는 회원들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 하/동계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임상영양학의 학문적 발전과 연구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07 한국의류학회

2018년 CEO 포럼 개최

2018년 1월 26일(금)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B1 최병오홀에서 CEO 포럼을 개최하였다. 패션산업의 현황과 인더스트리의 대응에 대해 들어볼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보이는 기업 CEO를 초대하여 생생한 경험을 청취하고 친밀한 환경에서 상호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CEO 포럼에서는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통해 섬유, 유통, 부동산 등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 부문을 개발하고 있는 (주)경방의 김준 대표, 의류산업 침체기에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 중인 몬테밀라노의 오서희 대표, 패션 이커머스 플랫폼 Keyclue를 통해 K-패션의 글로벌화에 앞장서고 있는 플랫폼 팩토리의 오종훈 대표, 환경의 변화를 맞고 있는 모피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알려줄 한국모피협회를 모시고 섬유패션 분야 CEO들의 진화 전략을 생생하게 전해 들으며 학계에서도 준비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lothing & Textiles (ICCT)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lothing and Textiles(ICCT)로 5월 26일(금)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개최되었다. Keynote speech는 the ITAA president-elect, Dr. Melody LeHew, Dr. Gang Sun from UC Davis, and Dr. Calvin Wong from Hong Kong Polytech 세 연사가 맡았고, 두 주제의 Special Topic Session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회원들의 논문 발표가 이루어졌다. 특별히 기존의 각 분과별 구두발표를 회원들이 투고한 논문 주제에 따라 session을 만들어 진행했으며, 또한 대학원생들의 발표논문을 모아 Graduate Student Research Competition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주)영원무역에서 후원하는 2018 영원신진학자학술상, FATE Best Paper, 우수사독위원장 시상도 이어졌다. 이번 대회는 국제·국내 약 300여명의 학자들과 함께 우리의 학문성과를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2018 추계학술대회 및 2018 패션상품 기획콘테스트

10월 20일 중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The Next Fashion Challenge: 패션스타트업과 창의적 도전'이란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글로벌 패션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뉴 패러다임을 맞이하면서 패션산업의 미래를 이끌 신 동력인 스타트업 육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성공적으로 패션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의 선도적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고 창의적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을 소개함으로써 도전정신을 가진 청년들이 미래 패션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학술대회와 동시에 개최되는 '패션스타트업 브랜드 팝업 페어'에는 IT, 디자인, 뷰티, 헬스 및 플랫폼 분야의 다양한 패션스타트업 기업과 전국의 창업동아리가 참여하여 풍성한 학술대회가 되었다. 국내 대표 의류브랜드인 (주)돌실나이, (주)밀레에델바이스홀딩스, (주)엠티컬렉션, (주)영원아웃도어, 삼성물산 패션그룹, (주)진도, (주)파크랜드가 후원하여 미래 패션인재들의 역량을 확인하는 패션상품기획콘테스트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브랜드상 7팀, 장려상 28팀, 입선 30팀 등 약 100여명의 수상자들과 협찬브랜드 시상자가 참석하여 산학연의 구심점이 되고 패션상품기획콘테스트 시상식을 빛내주었다.



08 한국영양학회

2018 춘계 심포지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Sustainable Nutrition (지속가능 영양)'을 주제로 춘계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본 심포지엄은 차연수 학회장의 개회사와 농촌진흥청 이규성 차장을 축사로 시작하여, 지속가능 영양에 대해 체계적인 방안 모색과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Dr. Dave I. Gustafson, 농촌진흥청 황재삼 연구관, 강남세브란스병원 김형미 영양팀장,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정혜련 과장이 강연을 하였고,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박태균 대표,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윤지현 교수, 농촌경제연구원 이계임 본부장, 서울대 농생명과학부 이준호 교수, 전북대병원 기능성식품입상시험지원센터 채수완 센터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NUTRITION 2018 - KNS Forum / 2018 KNS Award / 2018 Korean Scientists' Night

NUTRITION 2018 - KNS Forum

미국영양학회가 주최한 'NUTRITION 2018' 행사에서 한국영양학회는 'Dietary patterns, phytochemicals and metabolic syndrome'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Univ. Mass Lowell의 Dr. Katherine L. Tucker, 영국영양학회장인 Univ. Southampton의 Dr. Philip C. Calder, 차의과대 최상운 교수, 농촌진흥청 강민숙 박사가 강연을 하였고, 국내외 100여명의 영양학자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2018 KNS Award

미국영양학회와 본 학회가 2010년 MOU 체결 이후 양 학회가 협력하여 매해 지속해온 양국의 우수 영양학자를 위한 시상식인 'KNS-ASN Award'가 올해는 Harvard Vanguard Medical Associates의 Dr. Haewook Han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2018 Korean Scientists' Night

상기와 같이 매해 미국행사에서 본 학회는 KNS 포럼 폐회 후 'Korean Scientists' Night'를 개최해왔고, 올해는 보스톤 Legal sea foods 레스토랑에서 학회 임원진, 역대 KNS awardee, 국내외 영양학자 50여명이 참석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가 되었다.



09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해외 의료 봉사 (캄보디아 뻘랙 루엡 지역)

2018년 2월 13일(화)부터 18일(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캄보디아 뻘랙 루엡지역 빈민촌을 찾아 대대적인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오혜숙 한국여자의사회 의료봉사위원장(의정부시 오혜숙 산부인과) 등 여의사 회원 14명이 동참했다. 특히 이번 캄보디아 의료봉사단은 여의사 회원은 물론 NGO 더멋진세상, 한국기독교여의사회, 씨젠의료재단(임상병리사) 일반 봉사자 까지 포함된 25명의 단원을 구성하여 현지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봉사를 전개 할 수 있었다. 한국여자의사회가 찾은 곳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외곽의 농촌, '뻘랙 루엡(PREK LUONG)' 지역으로 프놈펜 개발에 쫓겨 이주해 온 빈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주민 대다수가 영양실조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 구호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번 캄보디아봉사에서 현지주민 약 1천명에게 진찰, 검사, 처치, 투약 등 2,800건 이상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진료를 넘어 사진 봉사, 생활용품 기증 등을 통해 그 곳 주민들의 궁핍한 삶까지 어루만져 캄보디아에 한국과 한국여의사들의 따뜻한 이미지를 심는데 큰 기여했다.



제29대 임원 워크숍

2018년 6월 9일(토)~10일 (일)까지 코리아나호텔 7층 글로리아홀에서 2018년 한국여자의사회 제29대 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제29대 상임이사, 분과위원장들이 참석하였으며, 이정희 경쟁력개발연구소 소장의 "전문가조직, 비영리 단체의 현명한 협업"이라는 주제로 기초강연이 있었으며, 대한의사협회 이철호 의장, 대한의사협회 최장락 중앙대의원, 27대 김화숙 회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새로운 여의사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앞으로 한국여자의사회가 각 직역별 역량을 모아 의료계를 넘어 여성계에서 진정한 리더이자 리더를 양성하는 요람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와 공감을 조성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10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연중 여성과학 기술인 교류회 개최

여성과총 단체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소통 강화를 통한 연대감 제고 및 상호 이해를 위하여 지부별/지부간 소통·융합 교류회를 대전과 경주에서 각각 개최하였다. 선·후배 간 네트워킹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으로서의 고충과 고민을 나누면서 여성과학기술인의 역할과 정체성에 관하여 열띤 의견을 교환하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향후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신설 등 여성과학기술인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한걸음 더 노력하기로 함께 다짐하기도 하였다. 매 순간의 다짐이 실천되기를 협회는 간절히 희망한다.



'2018 여성과 함께하는 원자력 심포지엄' 개최

9월 20일 '생활 속 방사선과 안전'이라는 주제로 "2018년도 여성과 함께하는 원자력심포지엄"이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되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 회원 등 약 90명이 참석한 본 심포지엄에서는 △생활 속 방사선은 안전할까요?(한은옥교수,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병원에서의 방사선은 괜찮을까요?(이승숙회장, 본 협회) △안실련 소개 및 안전교육(윤영미 상임부회장, 안실련 어머니 안전지도자중앙회)이라는 주제가 다루어졌다. 방사선에 대한 과학적 판단을 돕고자 현장에서 직접 측정기를 나누어주고 참여자가 직접 주변의 방사선량을 측정해 보도록 하는 등 체험 중심의 재미있는 강연이 이루어졌다. 강연 후에는 최근 이슈인 라돈 등 생활 속 방사선을 주제로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본 심포지엄은 민음이 가는 사람들이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청중들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대표사업이다.



제14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11 한국여성수리과학회

2018년 6월 29일(금) 고등과학원에서 국내외 여성 수학자 및 석·박사과정 여학생 등 총 143명이 등록하여 학문교류는 물론 국내외 여성수학자들 및 학회들 간의 네트워킹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M. Ramaswamy 교수(TIFR, India)와 A. Daneshkhah 교수(Bu-Ali Sina University, Iran)가 각각 해석학, 대수학 분야 주제로 기초강연을 했고, 이항숙 대한수학회장과 이영 대표((주) 테르텐)가 각각 근래에 특별히 더 높아진 수학자 특히 여성수학자들의 역할, 4차 산업혁명과 사고력 훈련의 파위에 관해 대중강연을 했다. 5개 분과로 나뉘어 각 분과별 초청강연 3개 포함 총 39개의 분과 발표가 있었다. 특히, 작년에 제정된 'KWMS-엔씨문화재단 젊은여성수학자상' 제1회 수상자 심은하 교수(숭실대)의 수상 강연이 있었으며, 윤송이 엔씨문화재단 이사장이 정문자 KWMS 회장과 함께 이영애 교수(경북대)와 김미란 교수(UTH, USA)에게 제2회 '젊은여성수학자상'을 시상했다.

한국통계학회 여성위원회를 초청하여 이태림 위원장 포함 3인이 발표했고 지속적인 교류를 협의했으며, 연회에서는 Daneshkhah 교수가 이란수학회 여성위원회를 소개했다.



2018 KWMS -엔씨문화재단 젊은여성수학자상 시상

2018 The 14th KWMS International Conference에서 제2회 "KWMS-엔씨문화재단 젊은 여성수학자상"을 이영애 교수(경북대)와 김미란 교수(University of Texas, Houston)가 수상하였다. 2017년 엔씨문화재단(이사장 윤송이)의 후원으로 제정된 이 상은 수리과학분야의 연구활동 및 개발업적이 탁월하여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잠재력이 큰 한국의 젊은 여성 수학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순수수학 분야 수상자인 이영애 교수는 물리, 화학, 기하 등에서 파생된 다양한 이차 비선형타원 편미분방정식에 대한 해의 존재성 증명 등의 순수수학 연구업적을 인정받았으며, 응용수학 분야 수상자인 김미란 교수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별도의 복호화 없이 효율적으로 연산할 수 있는 동형 암호화 기술 개발과 연구에 관한 업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2018 차세대 여성 수리과학 전공자 커리어 리더스 포럼

수원대학교와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후원으로 10월 19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수원대학교 벨칸도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2018 차세대 여성 수리과학 전공자 커리어 리더스 포럼>(주관: 수원대 고영미 교수)을 개최하였다. 포럼은 '4차 산업혁명시대: 융복합 여성 리더십 비전 제시'라는 주제 하에 4인의 전문가 초청 강연과 2인의 패널 토론, 5팀의 지도교수의 멘토링을 통한 학생들의 결과 발표로 진행되었다. 초청강연은 이화여대 노선숙 교수의 여성 리더십 특별강연과 국민대 고현숙 교수의 감성코칭, 아주대 김하영 교수의 딥러닝, POSTECH 황형주 교수의 수학을 통한 미래핵심기술 등의 강연으로 구성되었고, POSTECH 배명진 교수와 국립암센터의 최선화 연구원의 패널토론에서는 선후배 간의 경험 공유의 장이 마련되었다.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과 차세대 여성 수학자들은 이번 포럼과 같은 기회를 통하여 수리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 한국여성발명협회

2018 여성발명왕 EXPO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주관한 '2018 여성발명왕EXPO'가 6월 28일(목)부터 7월 1일(일), 4일간 일산 KINTEX 제1전시장에서 개최됐다. 여성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탄생한 발명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여성발명왕EXPO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전 세계 28개국 370여점의 발명품이 출품, 국내 100여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여 세계 최대·유일한 여성발명 축제의 장으로서 그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또한 행사기간 내내 우수 여성발명품의 판로개척 및 사업화지원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개최되었다. 투자자 연계를 통해 여성발명 사업화에 날개를 달아 줄 '여성발명 IR피칭데이', 발명을 통해 인생 2막이 시작된 여성발명왕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세바녀토크쇼', 전문MC가 제품을 소개하고 페이스북에 생중계하는 '상품 리뷰 라이브쇼', 지재산 창출·보호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사업화 지원관(지식재산권·유통 상담)' 등이 운영되어 여성발명기업인 및 관람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2018년부터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 및 여성발명품박람회'를 '여성발명왕EXPO'로 새롭게 네이밍함.)



2018 생활발명코리아

여성의 창의적인 생활발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식재산권으로 창출하고 여성창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2018 생활발명코리아 공개심사 및 시상식'이 11월 23일(금),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401호)에서 개최되었다. 본 행사는 지난 1월 29일(월)부터 4월 5일(목)까지 약 두 달간, 아이디어 총 1,409건을 접수받아 선행기술조사 및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작 39건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원작은 아이디어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멘토링과 디자인 및 시제품제작, 산업재산권 출원 등 제품화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지원하였다. 우아한 리빙쇼(우먼 아이디어한 리빙쇼)를 컨셉으로 최종 공개심사 및 시상식에서는 여성의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으로 탄생된 모습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관람객들에게 공개하였다. 또한 온라인 네티즌 투표 점수와 현장 공개오디션 방식으로 진행되는 전문가 평가 점수를 합산, 최고 점수를 받은 지원자에게 대통령상과 발명장려금 1천만원을 수여하며, 순위에 따라 국회의장상, 국무총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등을 시상했다.



발명으로 찾는 새로운 나의 가치, 여성발명창의교실

여성의 창의력 개발과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를 위한 '여성발명창의교실' 교육 프로그램을 올해 총 70개 기관, 3,00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다.

특허청이 주최, 한국여성발명협회와 교육협력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본 프로그램은 발명과 지식재산권에 대해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교육 과정으로 발명에 관심 있는 여성 및 자녀의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여성들의 많은 호응을 얻어왔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지역 기관 및 학교와 연계하여 교육 대상의 연령, 직종, 관심분야 등 여성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식재산권 교육을 운영하여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약 98%에 달하는 높은 평가를 이끌어내었다.



13 한국여성건축가협회

「고령화시대의 지역이 함께 돌보는 복지마을 만들기」 심포지엄 개최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복지정책 및 지역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중장년층을 포함한 지역거주의 의미와 공동체, 복지시스템에 관한 전문가 교류 및 인식 확산을 모색하고자 '고령화시대의 지역이 함께 돌보는 복지마을 만들기-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웰빙, 웰다잉 그리고 건축'이라는 주제로 10월 19일(금) 씨밋갤러리(서울 강남구) 1층 씨어터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 '고령화사회의 통합적 패러다임 - 지역적, 사회적, 심리적 접근'(한국복지대학교 유니버설건축과 성기창 교수) △ '공공실버주택의 지역적 현황과 과제'(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 석춘지 관장) △ '죽음학을 통해서 본 웰다잉과 복지'(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정현채 교수) 순으로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노지화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노인복지분과 이사(부경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고, △ 김원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변혜령 (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소장) △ 석춘지 (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정소이 (LH토지주택연구원 주거복지연구실 수석연구원) 토론자가 토론에 참가하였다. 회원 및 관련 전문가, 연구원, 학생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리에 심포지엄을 마무리하였고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14 한국여성건설인협회

2018 정기총회 및 세미나

3월 15일 에클레시아에서 정기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정기총회에서는 2017년 사업실적보고, 결산보고, 감사보고, 2018년 사업계획, 예산안 심의가 있었다. 세미나는 '존중받는 생로병사를 위한 환경적 모색 - 老의 共有를 생각하다'를 주제로 개최하였다. 김태희 회장(홍익대학교 교수)의 개회사, 이현희 부회장(가천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택의 일부를 공유, 직장의 일부를 공유, 도시의 빈공간 활용방안에 관한 내용을 생생하게 듣고 앞으로의 주택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로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2018 제8회 차세대 건설 리더스캠프

7월 20(금)~21(토) 양일간 오금동 퍼시스 본사에서 '2018 제8회 차세대 건설 리더스캠프'를 개최하였다. 캠프현장은 차세대 건설 리더를 꿈꾸는 학생들과 다양한 건설분야의 전문가들의 배움과 가르침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다.

이번 캠프는 건축의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건축계획, 실내건축, 조경, 토목, 도시계획, 교통, 기계, 전기, 구조 부문으로 나뉜 각 분야 전문가와의 그룹 멘토링 진행, 국토발전전시관 현장견학, 워크샵, 역대 캠프 참가자 경험발표, 퍼시스 연구소 투어 등을 진행하여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코너별 멘토링 프로그램은 주입식 교육이 아닌 요소별 업무소개와 현장의 경험을 그룹별로 공유해 학생들이 느끼는 진짜 궁금증을 해결하고 건설 분야의 시야를 넓힐 수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지난 캠프에 고등학생으로 참가했던 학생이 캠프가 계기가 되어 건설관련분야로 진학하여 차세대 건설 리더스캠프 참가경험, 대학교 진학, 재학 과정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가학생들에게 더욱 생생한 경험담이 되었고 더욱 뚜렷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다소 막연한 건설 분야의 전문인을 꿈꾸던 학생들에게 현실에 입각한 보다 선명한 건설 전문인의 자화상을 그리는데 큰 역할을 했고 중진·신진·미래 건설 전문인 간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좋은 자리가 되었다.



한국여성건설인협회·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동세미나 개최

10월 18일(목) '존중받는 생로병사를 위한 환경적 모색 - 노의 共有를 생각하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공동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김태희 회장(홍익대 교수)의 개회사, 박소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의 환영사로 시작하였다. 이현희 부회장(가천대 교수)의 발제배경설명, 김경숙 명예회장(동원대 교수)의 '행복한 노년의 삶을 누리는 시니어되기' 발제, 최현철 가천대 교수의 '건강한 노후의 일상생활을 약속하는 미래주거공간', 김선아 SAK대표 '시경유람: 시간의 경관을 유람하다', 변나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의 '지역사회 지속 거주(AIP)를 위한 고령자주거와 생활지원' 순으로 발표가 있었고, 발표자 전원이 참여하여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15 한국식품조리과학회

[조리취약계층
식생활관리자
역량 강화 방안]
영유아 메뉴
조리체험교실

여성과총 단체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영유아 메뉴 조리체험교실'을 서울, 부산, 대전 등 3개 도시에서 개최하였다. 조리체험교실은 6월 21일과 6월 28일에 서울과 부산에서 진행되었으며, 지난 7월 5일 대전 중구에 위치한 폴스키친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류은순 학회장과 지원사인 ㈜풀무원 푸드머스 측의 개최사를 시작으로 <영유아 저염식단>을 주제로 조리시연이 이어졌다. 궁중요리 전문 박준희 셰프의 두부 리코타치즈, 두부 숙주나물무침, 베이컨 크림소스 스파게티의 조리시연 후 참가자들이 2인 1조로 직접 조리체험 후 시식 시간을 가졌다. 이번 조리체험교실의 만족도조사 결과, "쉽게 시도할 수 있는 메뉴여서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조리시연 뿐만 아니라 음식에 얽힌 유래까지 알려주셔서 아주 유익했다" 등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 추계학술대회
및 제34차 정기총회
- 과학기술의 발전과
조리과학의 혁신

'과학기술의 발전과 조리과학의 혁신'을 주제로 한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가 지난 10월 19일 서울 교육대학교 컨벤션홀 & 사향문화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유도가열 방식과 조리'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역량 개발'의 2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기조강연 1편, 주제발표 6편, 사례발표 3편 및 78편의 포스터 논문 발표와 우수학생논문경진대회가 진행되었으며, 전국 식품영양학 관련 대학 교수를 비롯하여 식품산업체 관계자, 학생 등 450여 명의 다양한 청중이 행사장을 찾아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함께 진행된 제34차 정기총회에서는 차년도 제20대 회장 및 임원단 소개가 있었다.



16 한국세라믹학회 여성세라미스트부회

2018
춘계여성세라미스트
멘토링 워크숍

4월 12일(목) 오후 2시 여성세라미스트 멘토링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김득중 한국세라믹학회 회장의 축사에 이어 한국세라믹기술원 기업지원본부장 김경자박사의 멘토링특강 "내 인생 뛰어들기" 부제 "세라미스트, 열어놓고 연결하라"이 한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안정된 교사직을 택하지 않고, 세라믹기술원의 전신 요업기술원에서 명칭도 없었던 '비정규직' 연구원으로 오랜 기간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고 세라믹기술원이 정부조직에서 출연연으로 전환할 때 안정적인 공무원을 택하지 않고 출연연 연구원으로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던 경험을 나누었다. '워라밸' 즉 일과 삶의 균형 잡기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몇 년 후에 정년을 맞게 되는 감회와 정년 후 삶의 계획과 기대를 토로하였다. 이어 30여명의 멘토와 멘티가 자기를 소개하고, 멘토링 특강의 주제에 대한 소감을 나누어, 세대를 넘나들어 서로 서로에게 멘토와 멘티가 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한국세라믹학회의 춘계, 추계 학회의 멘토링 워크숍을 꾸준히 참석하면서, 석사에서 박사로 진학하거나, 박사과정에서 포닥과정으로, 또는 졸업 후 연구소와 산업체에서 직장을 잡은 참석자들이 있어, 본 행사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었다. 또한 학위과정 중으로 학회 참석 기회가 제한되고, 병렬로 진행되는 관련 연구 세션을 참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본 멘토링워크숍을 일회성으로 참석하게 되는 멘티들도 많으므로 본 워크숍에 모인 참석자들이 서로 서로 소개하는 네트워킹의 의미가 큰 행사였다.



2018
재료유관학회 연합
하계워크숍

7월 6일(금), 재료유관학회 연합워크숍을 개최했다. 국내 재료관련연구실에서 70%가 해당 3대 학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여학생 비율(27%)에 비해 여성교원 비율(2%)로 매우 낮아 차세대 멘토링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유관학회 여성위원회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본 연합모임은 2017년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여성세라미스트부회의 초대 및 2대 현재(4대) 위원장인 황진명 교수(명예), 한정화 교수, 이종숙 교수와 대한금속·재료학회의 위원장인 임혜인 교수, 한국재료학회 초대 및 현재(2대) 위원장인 임형미 박사와 윤희숙 박사를 비롯하여 학회/대학/연구소/산업체에서 원로·중진·신진연구자 및 실무진으로 총 13명이 참석하였다. KAIST 조은선 교수가 "Being a Female Engineer in Korea"의 제목으로 박사과정과 포닥과정 등 경력이 진행될수록 여성 멘토를 찾기 어려웠던 고충과 여성교수로서의 멘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경험을 나누었다. 각 학회 여성위원회의 아젠더 및 재료분야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전반적인 이슈, 특히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논의를 할 수 있었다. 본 부회는 2017년/2018년 여성과총 사업을 통해 3대 재료유관학회 여성위원회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도모해오고 있다.



17 한국생활과학회

2018 하계학술대회 개최 '인구구조 변화와 생활과학'

2018년 5월 25일 원광대학교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생활과학'의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현재 한국은 인구구조의 변화, 특히 1인 가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생활변화를 동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인 취약가구의 증가는 사회적인 단절과 고립을 동반하여 복지국가 구현이란 국가적 사안에서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하계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활과학 전 분야의 융복합적인 접근을 통해 현황을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전략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연구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또한 학술 교류를 통해 한국생활과학회가 담당해야 할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2018 여성과총 단체지원 사업 및 심포지엄 개최

현대 사회의 급격한 의료기술 및 식품산업의 발달로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은 노동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져 빈곤의 현실과 마주하게 되므로 사회 및 국가는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의 실시를 통해 경제적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노인이 빈곤에 노출되어 있으며 의료·사회적 비용 부담의 증가 및 신체·감정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국가적 문제를 유발하므로, 빈곤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문제의식과 삶의 질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활발한 연구와 질적인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였다. 이에 본 학회는 '빈곤노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생활과학적 개선 방안 모색 및 적용'의 주제로 단체지원사업을 수행하였으며, '빈곤 노인 삶의 질 증진 방안'의 주제로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 전문가 및 생활과학 관련 전문가와의 연계로 빈곤노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구축하고, 도출된 방안을 토대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빈곤노인의 삶의 질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연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8 한국물리학회여성위원회

여고생물리캠프

여고생들의 물리분야를 비롯한 과학 전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과학 활동을 실행하여 여고생의 연구 및 문제 풀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마다 개최하는 '여고생 물리 캠프' 행사가 2018년 8월 10일 광운대학교 8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되었다. 본 행사에는 이재일(한국물리학회, 인하대)교수, 정옥희(여성위원회 위원장, 순천대), 조연정(경북대), 정란주(광운대)교수가 운영에 참가하였고, 권영균(경희대), 김윤기(광운대), 정란주(광운대), 양상모(숙명여대)교수가 심사위원을 그리고 최은하(광운대)교수가 초청강연을 맡아 우수참가자들을 시상하였다.



찾아가는 여성물리인 행사

'찾아가는 여성물리인 행사'는 한국물리학회 여성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각 대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물리학을 전공하는 여성물리학도(학부생과 대학원생)를 대상으로 사회 진출, 대학원 진학, 결혼, 육아 등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멘토링을 하는 행사로 올해는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한국물리학회
여성특별세션

2018년도 봄물리학회 및 가을물리학회에서 여성특별세션을 개최하였다. 4월 26일 대전에서 개최된 봄물리학회 여성특별세션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여성물리인의 역할'을 주제로 하여, 서은경(전북대), 조향숙(한국창의재단) 2인의 연사를 초빙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물리인 그리고 여성물리인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였고, 10월 25일 창원에서 개최된 가을물리학회에서는 '우수여성물리인 육성'을 주제로 하여 정옥희(순천대), 한지영(대진대) 2인의 연사를 초빙하여 우수여성물리인력의 육성에 관한 실태 파악 및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19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여성IT위원회

2018년
신진 우수 여성
ICT 연구성과
교류회

2018년 5월 18일 동국대학교 신공학관에서 신진 우수 여성 ICT 연구성과 교류회를 개최 하였다. 신진 여성 과학인의 우수 연구결과 발굴을 위해 선별된 6편의 논문을 대학원생이 구두로 발표 하였다.

연번	논문제목	성함	소속
1	Wavelet 변환과 DBSCAN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Paper ID 생성 방법	강유현	이화여자대학교
2	학생 피드백 분석을 통한 가변적 학습 콘텐츠 추천 모델의 제안	최자령	숙명여자대학교
3	CNN기반 디지털 포렌식용 한글 폰트 분류	고운	이화여자대학교
4	스마트 계약을 이용한 블록체인 기반 리뷰 모델	박지선	부경대학교
5	DenseNet 기반의 대용량 식물 잎 영상의 분류	강수명	계명대학교
6	멀티미디어 콘텐츠로서의 웹소설 연구	김상남	동국대학교

또한 백란 교수(호남대), 김혜경 실장(IBM)이 강연을 하였다. 신진 ICT 여성 전문 인력이 앞으로의 연구주제 선정과 연구기획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 미래전략산업과 지원방향을 소개하고, 여성의 활약이 기대되는 미래 산업군과 기술요소를 소개함으로써 ICT분야에서 신진 여성인력 사회진출을 위한 정신적, 기술적, 사회적 환경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토론 하였다. 약 100명의 참석자들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 되었다.



20 한국기술사회 여성위원회

2018
동작진로박람회 /
서초 청소년 JOB
페스티벌

2018년 8월 31일 송실대학교 중앙공원에서 동작진로박람회가, 9월 13일~14일 서초구청 광장에서 서초 청소년 JOB 페스티벌이 양일에 걸쳐 개최되었다. 기유경 위원장 외 각 분야별 여성기술사가 참여하였고, 홍보책자 및 리플릿을 준비하여 500여명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기술사를 소개하고 관련 직업 및 관련 학과 등을 설명하며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8
전국기술사대회
여성위원회 세션

2018년 8월 24일~25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전국기술사대회가 진행되었다. 한국기술사회 여성위원회에서는 24일 전국기술사대회 오전·오후 세션 후 전국여성기술사들의 교류의 시간을 통해 성과보고회와 청소년 멘토링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25일 전국기술사대회 오전세션은 여성위원회에서 준비한 Young&Women Engineers 특별세션에서 송희경(국회의원) 정보관리기술사의 "스마트 시대를 이끄는 여성리더에게 듣다"라는 주제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약 100여명의 여성 기술사와 청년위원회가 참여하여 질문 및 토론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21 한국공업화학회 여성인재육성위원회

추계학회 특별세션
(Industry 4.0-에코,
바이오, 에너지-여성
과학자가 이끈다)

2018 한국공업화학회 추계 학술대회 여성인재육성위원회 특별세션 (Industry 4.0-에코, 바이오, 에너지-여성과학자가 이끈다)이 5월 3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었다. 본 특별세션에서는 융합 학문 기술 교류 및 전문가 강연을 통한 여성 공업화학인 역량강화를 위한 강연을 제공했다. 약 60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변혜령 교수 (KAIST)의 “높은 성능의 레독스 흐름전지를 위한 새로운 레독스 커플 분자의 개발”, 채복남 박사 (포항가속기연구소)의 “방사광 적외선 분광법과 응용”, 이영애 박사 (영남대학교)의 “다양한 형태의 DNA와 DNA 결합물질 사이 결합형태 연구” 및 장연주 박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콜드체인을 위한 항공용 카고커버 개발”에 대한 강연을 2시간동안 진행 하고 청중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특별세션을 통하여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융합 학문 기술 교류의 중요성과 여성공업화학인 역량강화에 기여하였다.



22 한국간호과학회

2018년
간호사 국가고시
문항개발 워크숍

2018년 6월 22일(금)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소망관에서 한국간호과학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최로 2018년 한국간호과학회 간호사 국가고시 문항개발 워크숍.선택형 문항개발 및 문항 평가법에 대한 기초과정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현경 연세대학교 교수의 개회사, 김희승 한국간호과학회장의 환영사로 워크숍을 시작하였다. 간호대학교수 4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이경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구개발본부장이 ‘직무역량 평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발전 방향’, ‘문항작성법 및 문항평가법’을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조별로 토의 진행 후 사전 제작해 온 문항 중 일부를 선정해 발표하는 문항 작성 실습시간을 가졌다. 특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찾아가는 워크숍’이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어 수강 전후로 참석자들에게 설문지를 작성 토록하여 워크숍의 효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직접 문항개발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져 보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전체 교육시간 중 80%이상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이 배부되었다.



2018년
논문작성세미나
개최

한국간호과학회 논문작성세미나 구조방정식모형의 이해와 활용이 2018년 8월 23일(목)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김희승 한국간호과학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본 세미나는 호서대학교 강현철 교수의 ‘인과모형의 개념’, ‘구조방정식모형의 개념’, ‘매개효과의 추정과 검증’, ‘조절효과 분석’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250여명의 간호학 발전에 관심이 있는 간호학자와 간호대학 석, 박사 과정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논문 작성 시 필요한 통계와 관련된 내용이 적절한 예시와 함께 설명되어 참여자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얻었다.



2018
추계학술대회 개최

추계학술대회가 2018년 10월 22일(월)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사람 중심 간호환경 : 우리의 토대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고려대학교 신나미 교수의 개회사, 김희승 한국간호과학회 회장의 환영사, 김명자 과총 회장의 축사로 본 행사의 문을 열었다. 주제 강연은 김소선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Workplace Empowerment on Nurse & Patient Safety’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안전을 고려한 병원의 건축 계획(권순정, 아주대학교 교수),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의 대응 - Cure에서 Care로(선경, 고려대학교 교수) 주제발표가 이루어졌다. 2부에는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현실과 나아갈 길(강자현, 서울대학교 교수), 인증제도에서의 환자안전과 질 향상(정연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 실장), 미래의료와 환자안전(김소윤, 연세대학교 교수), 임상현장에서의 트라우마와 회복(백종우, 경희대학교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300여명의 간호학자와 간호대학 석, 박사 과정생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터 발표 및 구두발표에서의 우수논문상 수상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3 충북여성과학기술인회

과학기술 독서포럼

여성과총 단체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책임기를 통한 과학기술 이해와 과학 문화 창출 및 토론으로 상식의 다변화를 제공하기 위해 2차례의 과학기술 독서포럼을 개최하였다. 1차, 5월 중원대학교에서 건국대 김용영 교수의 발제로 '나는 과학이 말하는 성차별이 불편합니다', 2차, 9월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충북대학교 김용기 교수의 강연을 시작으로 '허블우주망원경 25년' 독서포럼을 진행하였다. 독서를 통한 의사소통 및 전공지식에 대한 공유와 함께 회원 간 화합의 장이 마련되었다. 추후 충북지역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독서 토론과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일상 속 대학생 독서진흥

과학기술 독서포럼과 대학 관련 행사와 연계하여 일상 속 대학생의 독서 진흥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5월과 10월에 걸쳐 2차례 대학생 대상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5월 30일 중원대학교 CEO Room에서 차세대 예비 과학자인 충북지역 대학생들과 함께 '지식을 품는 북콘서트와 열줄요약 경진대회'를 진행하였다. '나는 과학이 말하는 성차별이 불편합니다' 책을 읽고 "당신이 생각하는 차별은 무엇인가요?" 학생 토크쇼가 개최되었다. 이후 해당 도서와 연관이 있는 본인의 열줄요약 내용을 제시 후 평가하여 시상하였다. 이번 북 콘서트와 열줄요약 경진대회는 충북지역 대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문제 해결력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10월에는 '찾아가는 천체 관측 교실'이 중원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가을철 별자리와 행성에 대해 전문가에게 '허블 우주망원경 25년' 책을 통하여 다양한 전문지식을 습득 한 후, 망원경을 통해 별과 행성을 직접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충청북도과학교육연구원 천체전문가의 천체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와 천체전문가가 읽고 해석 해주는 우주에 대한 갖가지 상식이야기를 듣고 토론하며 체험하는 기회를 통하여 대학생들 간의 화합과 관계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Global 산-학-연 협업

8월 한·중·일 글로벌 캡스톤 경진대회에 충북대, 건국대, 중원대 등의 학생과 교수 30여명이 참가하여 'Smart home'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제품을 제작하여 금상을 비롯하여 아이디어상, 도전상 등을 수상하였다. 한·중·일 산학연 과학전문가들과의 '글로벌 캡스톤 교육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각국 대학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의 구축, 정보 교류 및 협조사항이 논의되었으며, 추후 구체적으로 글로벌 과학기술 연구 주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협의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한·중·일 여대학생의 잠재적인 글로벌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며,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가 제공되었다.



24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회원 네트워킹 도모 - 2018년 제 17회 심포지엄 개최

6월 19일에 서울대학교 엔지니어하우스 대강당에서 제 17회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소통과 공감의 여성과학자 네트워크, 21세기 생명과학을 리드하다"를 주제로 열린 본 심포지엄에서는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학술진흥상' 수상자인 이호영 교수(서울대학교)의 수상자 강연이 있었다. 수상자 강연 이후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이은형 교수(국민대학교)의 강연과 공감과 경쟁을 주제로 한 김대수 교수(KAIST)의 강연이 있었으며, 패널 토의에서는 중견 과학자(KAIST 김대수, 극지연구소 이유경, 인하대 이재선), 와 신진 과학자(KRIBB 강현미, 서울아산병원 탁은영)가 패널로 참여하여 현직 과학자들의 경험을 나누었다. 이어 <차세대 여성과학자를 위한 맞춤형 인턴십/멘토링> 프로그램 소개, 2018 활동 계획 등을 발표했다.



여성생명과학자 발굴 및 시상

1월 10일에 스칼라티움 강남점에서 2018년 제2회 WBF-코스맥스 여성과학약진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WBF-코스맥스 여성과학약진상은 생명과학분야에 종사하는 대한민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중 성장 잠재성이 우수한 여성과학자들을 발굴하여 격려하고 포상하고자 제정한 상이다. 제2회 수상자로는 이은경 교수(가톨릭대학교)와 최인희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선정되었다.

또한, 6월 19일 서울대학교 엔지니어하우스 대강당에서 제17회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시상식과 제14회 새별여성과학자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은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이 수상자 선정 및 시상을 주관하고 로레알 코리아가 상금과 운영을 후원하여 여성생명과학자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상으로 올해 여성과학자상-학술진흥상 부문에는 이호영 교수(서울대학교), 펠로십 부문에는 신미경 박사(KAIST), 이경아 박사(서울대학교), 이유리 박사(기초과학연구원)가 선정되었다.

새별여성과학자상은 신진여성생명과학인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격려하고자 제정된 상으로 대상 부문에는 이상아 박사(성균관대학교), 우수상 부문에는 고효림 박사(성균관대학교), 류희주 박사(서울대학교), 이은경 연구원(기초과학연구원)이 선정되었다.



25 동아시아식생활학회

식생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수행

2018년 7월, 8월 두번에 걸쳐 동아시아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 식생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한경대학교와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수행하였다. 오방색(5 colors)을 주제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직접 체험해 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비빔밥 등 음식과 상차림, 다례, 다식)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식생활 문화를 알리고자 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에 동북아 유학생 120여명이 참여하여 한국 식생활에 대한 이해증진과 더불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2018년 추계 학술대회 개최 - 동아시아 식생활 문화의 재조명 : 가치와 인식

10월 20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식생활 문화의 재조명: 가치와 인식'을 주제로 제54차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동아시아 식생활 문화의 가치, 일본의 식생활 문화 트렌드 변화와 적용, 외식 트렌드를 통해 본 한국 식생활의 변화,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미래의 식생활 문화, 식생활 트렌드로 알아 본 meal-kit 시장 진입사례 등 주목해야 할 깊이 있고 실제적인 강연(기조강연 1편, 주제강연 4편)과 토론을 마련해 접근함으로써, 변혁 속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과 가치 정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145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였으며, 46편의 포스터 논문발표가 있었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5편이 시상되었다.



26 대한화학회 여성위원회

121회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특별심포지엄 개최

121회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특별심포지엄 (주제: 국가와 기업이 원하는 과학기술 인재상)이 4월 19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의 대표 및 리더 2인이 대한화학회에 참가하는 미래과학기술인재(학부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과학기술인재상에 대한 강연을 제공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1) The Direction of Korean Petrochemical Industry and the Needed Talents from the Industry (강경보 소장, 롯데케미칼 연구소); 2) The Key Innovation is Education (문길주 총장, 과학기술연합대학교 대학원)의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고 청중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현재 및 미래 시대가 요구하는 과학기술인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고 직업인성의 중요성(소명 의식과 공공성 의식)을 인식시키고 준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27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2018 춘계심포지엄 [노인 식생활관리를 위한 지역사회와 영양·급식관리자의 역할 및 과제]

유니베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여성과총과 함께 ‘노인 식생활관리를 위한 지역사회와 영양·급식관리자의 역할 및 과제’의 주제로 4월 27일 금요일, 양재 aT센터 세계로룸 1 에서 춘계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오전에는 노인 식생활 개선을 위한 공공분야의 급식을 비롯한 영양관리 사업실태, 노인대상 식품산업의 발전 방향, 교육용 매체 개발 등에 대한 현황 소개가 진행되었다. 오후에는 정책 전문가와 현장전문가, 여러 학계 전문가와 함께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지역사회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 서비스의 구성과 운영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교육현장과 협력 이해 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식생활교육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견인하는 대화의 장이 되었다.



2018 국제심포지엄 [비만예방, 바른식생활로]

2018년 6월 21일 aT 센터 세계로룸에서 농촌진흥청, 한국영양학회와 공동으로 [비만예방, 바른식생활로]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미국, 일본, 한국의 비만연구 전문가들이 △비만과 식생활 국제 연구동향, △건강 먹거리 식생활 R&D와 국내 농산물 소비 연계방안 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으며, 주제 토론은 ‘비만 예방을 위한 올바른 국가 식생활 R&D 방향’의 주제로 활발한 토론과 대화의 장이 되어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전문가와 국내 영양학자들이 비만 예방을 위한 바른 식생활 방향에 대해 지식과 의견을 공유하고 미래 식생활을 그려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2018 추계학술대회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지역사회 영양의 동향과 방안]

2018년 10월 26일 서울대학교 글로벌컨벤션플라자에서 풀무원,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의 공동주최로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지역사회영양의 동향과 방안]의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다각적인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선순환체계의 푸드플랜과 식생활 교육의 미래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정보화 사회에서의 미디어를 통한 식품영양 정보와 교육의 활용사례와 고령화 대비 및 싱글족·혼식 대상의 식품트렌드, 영양학, 응용영양학, 식품학, 경영학, 노인학, 아동학, 마케팅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학문적 및 실무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협력하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28 대한금속·재료학회 여성위원회

2018년 대한금속·재료학회 춘계학술대회 여성세션 개최

2018년 대한금속·재료학회 춘계학술대회의 여성세션이 4월 27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여성세션에서는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최현진 교수가 ‘How to Survive after Ph. D. Thesis’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최현진 교수는 석사나 박사학위, 혹은 학위 후 기간 동안 신진연구자로 활동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을 (예컨대, Post-doc 준비, 논문 작성, 학회 참석과 발표, 공동연구, 연구윤리 등) 소개하였다. 또한, 특강을 통해 재료공학자로서 해야 할 일들이 개인의 삶을 계획하고 구현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참석한 다양한 여성재료공학인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내용을 공유하였다.



2018년
WISET·KIM
젊은연구자상 시상

본 여성위원회에서는 우수한 연구성과를 거둔 젊은 여성 재료공학인을 독려하기 위해, 매해 3인을 선발하여 WISET·KIM 젊은연구자상을 시상하고 있다. 2018년 WISET·KIM 젊은연구자상은 국민대학교의 이연주, 포항공과대학교의 최원미, 충남대학교 김다혜 학생이 수상했다. 국민대학교 이연주 학생은 철계 연자성 비정질 분말을 일부 나노 결정화한 하이브리드 분말을 제조하여 우수한 연자성 특성을 보일 수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이는 전력 변환 장치의 에너지 고효율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전기/전자, IT, HEV/EV 산업 등의 소재로 응용이 기대된다. 또한 포항공과대학교의 최원미 학생은 열역학적인 계산에 근거하여 새로운 면심입방구조의 Co-Cr-Fe-Mn-Ni계 고 엔트로피 합금을 설계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수상 예정자 중 두 명(이연주, 최원미)의 여성과학자는 2018년 10월 25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한금속·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의 여성세션에서 수상 기념강연을 진행하였다.



2018년
대한금속·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
여성세션 개최

2018년 대한금속·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의 여성세션이 10월 25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여성세션에서는 WISET·KIM 젊은연구자상을 수상 예정인 국민대학교 이연주 학생과 포항공과대학교 최원미 학생이 젊은연구자상 수상기념강연을 진행하였으며, 법무법인 세종의 이태영 변호사가 '연구자를 위한 특허의 현재와 미래 이야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본 특강에서는 특허분야 최근 현황, 연구결과물에서 창출된 특허의 분쟁 사례와 기술계약 사례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공유하고, 보다 바람직한 미래의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관리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29 대한가정학회

2018년
춘계·추계
학술대회 개최

'대한민국에서 1인 가구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춘계 및 추계 학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춘계 학회는 5월 26일 대한가정학회가 주관하고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와의 공동주최로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에서 열렸다. 1인 가구에 대한 '가정학적 관점에서의 분석과 진단'을 시도한 춘계 학회에서는 △1인 가구의 인구학적 의미(조영태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와 △솔로이코노미 트렌드의 가정학적 관점(이준영 교수, 상명대 경제금융학부)에 대한 기조 강연이 이루어졌다. 분과별 논문발표는 1인 가구의 가족관계, 1인 가구의 가족자원 관리와 소비생활, 가정과교육 및 가족복지로 접근한 1인 가구, 1인 가구의 의·식·주생활, 신진/자유 영역의 5분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춘계 학회를 통해 총 22건의 구두 논문 발표와 그에 대한 토론, 그리고 총 90편의 포스터 발표가 이루어져, 1인 가구에 대한 풍부한 융·복합적 논의가 가능하였다.

추계 학회는 10월 27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사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회는 춘계 학회에서의 논의를 확장시켜 '가정학적 관점에서의 대응과 실천전략'을 도출하며, 여성과총의 심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의미를 지녔다. △1인 가구의 주거 양극화: 함의와 과제(진미운 연구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1인 가구: 관점의 전환과 가정학적 시사점(진미정 교수, 서울대 아동가족학과)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기획세션에서 여성과총 사업의 일환인 청년·중년·노년 1인 가구에 대한 FGI 연구 결과를 집중 발표하였다. 1인 가구의 식생활, 의생활, 주거생활, 소비생활,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가족자원관리와 일생활균형의 6개 분야에 대해 연구자들의 결과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자유세션과 신진세션에서 각각 4건의 구두 논문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고, 다양한 주제의 포스터 발표도 25건 진행되었다. 또한 이번 학회에서는 역시 여성과총 사업의 일부로서 1인 가구 청년간담회를 실시하였다. 학부생과 대학원생 50여명이 학회에 초청되어 1인 가구 관련 연구 발표를 듣고 다양한 견해를 표현하는 열띤 자리였다. 이밖에, 추계 학회에서는 연구윤리교육과 함께, 정기총회가 진행되었다.

1인 가구를 주제로 춘계 및 추계 두 번의 학술대회를 통해 1인 가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생활과학적 관점에서 1인 가구에 대한 과학기술 및 산업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앞으로 계속 증가할 1인 가구의 실태, 지원정책 및 산업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학술대회, 전문가 간 교류 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0 대구경북여성과학기술인회

과학을 통한 가족 간 소통 캠프

여성과학 2018 단체지원사업 내 하나인 <가족과학캠프>를 10월 9일(화) 팔공산 백안동 정원에서 진행하였다. 참여한 14가족 43명은 회원 또는 본 회 홈페이지 안내를 보고 참여한 일반 가족들이다. 팔공산은 대구에서 가장 유명하고도 친숙한 산인데 산언저리에 위치한 본 회 회원의 정원에서 한글 날을 활용하여 가족들이 참여한 소통캠프였다. 청명한 가을하늘만큼 아이들은 아빠, 엄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정원에서 자라나고 있는 구석구석 식물에 관한 생태이야기를 정화숙 경북대학교 명예교수로부터 듣고, 생물 관련 과학 체험(가족이름표 만들기, 연근, 고추 등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자연물을 이용한 예코백 만들기, 가을 나뭇잎을 활용한 나만의 손수건 만들기 등)을 진행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속에서 인성이 중요시되는 요즘, 어린 자녀들은 아빠, 엄마와 함께 잔디에 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나뭇잎을 두드리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오늘날은 행사가 바로 가족 소통의 답인 듯하였다. 참여한 가족들은 자녀들과 유기농 자연식사를 한 후 대구유기농 찹박물관에서 생소한 경험을 하였고,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뜻깊은 행사였다고 입을 모았다.



네트워킹 포럼

네트워킹 포럼을 10월 29일(월) 경북대학교 글로벌프라자에서 진행하였다. 차세대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여성과학기술인들의 역할이라는 단체지원 사업의 과제 중 하나로 진행된 포럼은 지역 내 여러 유관기관 소속 여성과학자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특히 <미래 지향적인 과학기술분야의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주제로 특강과 패널 토의가 있었는데 청중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다. 특강으로는 미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구관측위성의 역할과 전망(조명희 경북대교수), 4차 산업혁명과 여성일자리 창출(이경미 계명대 교수)이었다. 또한 신진여성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한 여성과학자들의 소감과 진행하고 있는 연구업적에 관한 발표도 이어졌다. 수상자는 우수논문상(영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춘영), 기술개발상(주)지오씨엔아이 천서이)이다. 본 행사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국여교수연합 그리고 지역 여성과학기술인들간의 상호정보 교류를 통해 융합과 소통의 장이 되는데 한 몫을 하였다.



31 글로벌 여성 ICT 네트워크

IT기업탐방 및 미래기술 세미나 개최

4차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여성들의 ICT 능력배양을 위한 IT 기업탐방 및 미래기술 세미나가 5월 18일 네이버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GWIN회원 및 30여명의 여대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5G와 IoT'에 대한 주제로 강연발표(발표자 : 임유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있었다. 강연에서는 발전하는 5G 서비스 시나리오와 IoT기술에 관한 설명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서 학생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강연에 앞서 네이버 본사를 견학함으로써 네이버의 신기술 및 기업문화에 대한 소개와 탐방이 이어졌다. 참가한 학생들은 취업과 신기술에 대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으며, 산학연계의 좋은 기회가 되었다.



여성리더 토크쇼 개최

ICT관련 여성 리더들 4~5인들을 한자리에 초청하여 여대생들과의 멘토와 멘티 결성을 지원하기 위한 2018 여성리더 토크쇼가 2018년 7월 18일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지하 B102호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토크쇼는 학생과 여성리더의 멘토멘티 결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여성리더들이 여성으로서 직장 및 조직생활의 고충 및 극복방법, 경력단절을 극복한 경험 등의 많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김경희 백석문화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박화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최옥주 KAIST 교수, 윤정하 마이크로포커스 상무, 박유미 ETRI 책임 연구원, 박정아 현대카드 부장 등 학계 및 산업계에 있는 여성리더들이 패널로 참석하여 학생들이 대학교 생활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과 직장가 가정에서 양립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면대면으로 대화를 함으로써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18년 APEC 여성경제회의에서 “APEC 여성기업과 스마트기술” 세미나 개최

파푸아 뉴기니에서 열린 2018 APEC 여성경제회의(APEC Women and Economy Forum)의 일환으로 지난 9월 6일(목) ‘APEC 여성기업과 스마트 기술’을 숙명여대 아태여성정보통신원과 IT여성기업인협회와 공동 개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성의 경제력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세미나에는 APEC 각료들과 다양한 정부, 기업, 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본 행사에서는 ICT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APEC 6개 회원국 여성기업인의 성공사례가 공유되었으며, 역내 여성기업인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전략 및 정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8년 WEF주제는 “Seizing Opportunities for Women and Girls to Advance in the Digital Age”로 디지털 시대의 여성과 소녀가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기회 정착에 관한 토론하였으며, 세미나 개최 이외에 현재 APEC 21개국 ICT/스마트기술 여성기업인 성공사례 연구와 온라인 플랫폼 개발이 진행 중이다.

“APEC 여성기업과 스마트기술” 세미나는 2015년부터 중국, 필리핀, 페루, 베트남에서 열린 APEC WEF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GWIN은 5년 연속으로 공동주최하고 있다



32 대한약사회 여약사회

제39차 전국여약사대회 개최

지난 5월 26(토)~27(일), 1박2일 양일간에 대전 컨벤션센터 2층에서 ‘제39차 전국여약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4차 산업혁명과 약사의 미래’라는 주제로 시대가 요구하는 약사의 역할을 조망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 냈고 동시에 국민을 위한 약사 직능을 실현할 수 있는 여약사들의 실천 전략을 마련하고자 실시 됐다. 김상희, 김승희, 김순례, 이은권, 성일중, 이장우 보건복지위원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또한 대전광역시장을 대신하여 김택수 정무부시장이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동 행사는 내외빈, 전국 시도지부 임원과 여약사 1,000여명이 참석했다.



제9차 여성사박물관 포럼 「미래 환경 변화와 약사」개최

11월 1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9차 여성사박물관 포럼「미래 환경 변화와 약사」라는 주제로 여약사들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살펴보고, 미래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 전혜숙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순례 · 김승희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와 여성사박물관건립추진협의회, (사)역사 · 여성 · 미래가 주관하여 여성가족부가 후원했다.

조덕원 회장이 ‘4차 산업과 고령화 시대의 여약사, 사이언스 케어로 새로운 헬스혁명 선도’라는 주제로 박물관 건립 추진 과정과 필요성, 대한 여약사회의 변천사를 조명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약사의 역할과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패널토의로는 문애리 대한약학회장, 손순주 강원도약사회 여약사회장, 유미선 충남대학교병원 과장이 참여했다.

박영순 온누리체인약국 전 대표와 김유진 압화작가의 구술 동영상과 대한약사회 역대 여약사회장의 영상 메시지 상영과 김유진 작가의 알약분쇄기 등 24건의 유물의 기증식도 진행했다.





124 축하합니다.

128 언론보도

축하합니다

김정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산업분야 수상



김정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2018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산업분야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김 책임연구원은 지능형 원격 검침 보안 인프라 기술 국산화 및 해외사업화 성공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숙경 한수원 수석연구원,
한수원 최초 여성 처장에 임명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 실현과 여성 지도자 육성을 위해 중앙연구원 부지구조그룹장에 이숙경 수석연구원을 한수원 최초의 여성 처장으로 임명했다. 처장은 공기업 1급(갑)으로 사장과 본부장 다음으로 높은 직급이며, 이 부지구조그룹장은 1991년 한국전력에 입사, 전력연구원 선임연구원, 원자력발전연구소 책임연구원, 플랜트건설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뉴스1 2018.06.19. 기사, 사진 인용)

노정혜 서울대 교수,
한국연구재단 제6대 이사장에 취임



노정혜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가 제6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노 이사장은 서울대 법인이사, 기초연구연합 회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연구현장 및 정부 연구개발(R&D)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노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뉴스1 2018.07.09. 기사, 사진 인용)

민병주 전 의원,
한국원자력학회 차차기 회장 선출



민병주 전 국회의원이 한국원자력학회 차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민 전 의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사, 한국원자력연구원 연수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18년 9월 1일부터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내년 9월 1일부터 제32대 회장 임기는 시작된다.

(중도일보 2018.08.1. 기사, 사진 인용)

제51회 과학의 날 기념 정부포상

한은옥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위촉교수, '국무총리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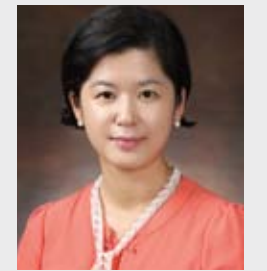
한은옥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위촉교수가 '제51회 과학의 날 기념 정부포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한 교수는 방사선 안전에 관한 교육과정 및 각종 콘텐츠 개발, 국민 소통모델 개발 등을 통해 국민 불안감 감소와 갈등해결, 안전문화 인프라 등을 구축하여 공공 안전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정자영 한국수력원자력 차장,
'장관 표창'



정자영 한국수력원자력 차장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시운전, 운영 분야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계층별 필요를 충족하는 맞춤형 홍보를 통해 원자력 이미지 제고 및 긍정적 반응 도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제51회 과학의 날 기념' 장관표창을 수상하였다.

이정은 서울대학교 교수,
'장관 표창'



이정은 서울대 교수는 영양역학 전문가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영양역학 연구를 통해 영양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51회 과학의 날 기념' 장관표창을 수상하였다.

'2018 제28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이종은 교수·김명숙 교수 수상

이종은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와 김명숙 제주대 생물학과 교수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선정한 '2018 제28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종은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종합부문

논문

M2 Phenotype Microglia-derived cytokine Stimulates Proliferation and Neuronal Differentiation of Endogenous Stem Cells

학술지명

Experimental Neurobiology

학회명

한국뇌신경과학회



김명숙
제주대 생물학과 교수

이학부문

논문

Molecular analyses and reproductive structure to verify the generic relationships of Hypnea and Calliblepharis (Cystodoniaceae, Gigartinales), with proposal of C. saidana comb. Nov.

학술지명

ALGAE

학회명

한국조류학회

축하합니다

최영주 포스텍 교수 여성 최초 '대한수학회 학술상'



최영주 포스텍 수학과 교수가 여성학자로서는 처음으로 '2018 대한수학회 가을 정기학술대회'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 교수는 정보보안, 통신, 최첨단 암호 응용에 적용되는 실가중치 보형 형식의 주기 이론을 개발·정립해 정수론에서 최대 난제로 알려진 L-함수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여성과총 부회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04. 기사 인용)

김나영 서울대 의대교수, Marshall & Warren Lectureship Award 수상



김나영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2018 아시아태평양 소화기학술대회(Asian Pacific Digestive Week, APDW 2018)에서 'Marshall & Warren Lectureship Award'를 수상했다. 김 교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을 통한 위암 발생 예방에 대한 연구 초록을 포함해 상부위장관 질환 및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대한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국제 저널에 발표한 공로로 올해 수상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특히, 2009년부터 시행된 시상식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이 상을 받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보건뉴스 2018.11.20. 기사 인용)

한국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학술진흥상에 이호영 교수



'2018 제17회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영예의 학술진흥상 수상자로 이호영 서울대 약학대 교수가 선정됐다. 이교수는 지난 20여 년간 폐의 암화 및 악성화 기전을 밝히고 항암제에 대한 내성 기전을 규명해 폐암 치료제 개발 분야 등 폐질환 관련 분야 발전에 폐 질환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학술진흥상을 받았으며, 여성과총 교육출판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동아사이언스 2018.06.20. 기사, 사진 인용)

한국여성건설인협회 2018년 '제3회 서울특별시 건설상' 수상



(좌) 김정선 (주)네오크로스구조엔지니어링 대표 (우) 이명주 명지대 교수

'제3회 서울특별시 건설상'에 김정선 명예회장(주)네오크로스구조엔지니어링 대표)이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및 안전관리 자문위원으로 장기간 활동하며 건축물 설계·시공 품질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최우수상을,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는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분야에 대한 꾸준한 연구로 서울시 제로에너지 주택단지건설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여성발명협회 2018년 '제7회 대평 남중현 발명문화상' 수상

- 이영이 이사, 박명하 회원, 이가현 회원, 성아영 회원



지난 9월 9일 개최된 '제7회 대평 남중현 발명문화상' 시상식에서 한국여성발명협회 이영이 이사과 박명하 회원, 이가현 회원, 성아영 회원이 올해의 발명가 10인에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각각 상장과 상금 1천만원을 수여받았는데, 제정 이래 올해 가장 많은 4명의 여성발명인 수상자가 배출되어 여성발명인의 위상을 확고히 보여주었다.

한국임상영양학회 2018년도 영양의 날, 김우정 강남세브란스병원 임상영양사 보건복지부장관 유공자 표창 수상



김우정 강남세브란스병원 임상영양사(한국임상영양학회 연수 이사)는 10월 서울 시청 시민청에서 개최된 영양의 날 기념 세미나에서, 임상영양사 직무 역량 강화, 임상영양의 질적 향상에 크게 공헌한 바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여자의사회 '제13회 임산부 날' 정부포상(대통령상)



10월 10일 KBS 신관 아트홀에서 개최된 '제13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고은선 고운여성병원 원장이 미혼모 무료분만 1,500건 이상,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의 무료진료 및 분만 지원, 지역사회 내 성폭력 예방활동 및 출산장려 문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2018년 건축의 날 유공자 표창

- 신경선 이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김수경 이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표창



신경선 이사(에스앤디아이건축 대표)와 김수경 이사(엘엔케이건축 대표)가 10월 5일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2018 건축의 날' 기념식에서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표창을 수상했다.

언론보도

매체	보도일	제목
여성신문	2.28	여성과총 '과학기술 여성리더십과정' 3기 진행
여성신문	3.2	제3회 여성과총 독후감공모전 개최
여성신문	3.2	6일 '과학기술 젠더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교수신문	3.2	시민사회와 성평등정치 그리고 과학기술, 제49회 과학기술 여성리더스포럼 개최
헬로디디	3.4	[주간벨리] '잡스'처럼 PT한다면 IR은 문제없을 텐데
뉴스원	3.6	남자체형에 맞춘 안전벨트...신약개발도 젠더 고려없어
아시아경제	3.7	우리사회 평등한가?
The Science Times	3.7	모두를 위한 과학기술 '젠더혁신'
머니투데이	3.10	AI 비서는 여성, 실험동물은 수컷...편중된 '성'
교수신문	3.12	여성 넘고 다양성 인정하는 '관점의 이동' 필요
The Science Times	3.20	과학계도 불어라, 젠더혁신 바람
중앙일보	3.27	"재난 피해 성별 격차 커 ... 여성도 안전 취약계층에 포함해야"
여성신문	4.20	'디지털 환경서 건강 주도하기' 한국여성과총, 과학커뮤니케이션 포럼
나라경제	5.1	"동물도 실험자 성별에 따라 반응 달라... 남녀가 함께 연구해야 연구 수월성 높아져"
여성신문	5.4	제50회 과학기술 '여성리더스포럼' 개최
교수신문	5.14	"물이 무릎 높이만 돼도 여성은 걸질 못해요"
건축문화신문	5.16	양성평등 작업환경 · 주거공간 위해 '젠더 혁신' 필요
동아일보	5.25	의학실험때 세포 성별 무시하면 '큰 코'... 남녀간 약 효과-부작용 달라
여성신문	5.25	여성과총, 2018년 미래인재상 수상후보 추천 접수
과학과기술	6.1	법제화 · 제도화 통한 젠더혁신이 과학기술의 우수성 높일 수 있어
보안뉴스	6.22	블록체인 기반의 미래세상 이해하기
중앙일보	7.4	여성은 속 쓰린데 남성은 무증상... "같은 병도 성별따라 증상 다르다"
헤럴드경제	7.4	[김태열 기자의 생생건강]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 위식도역류질환' 여성에게 더 심하게 나타나
MBC 뉴스	7.5	역류성 식도염 증상, 男 '식도 손상' 女 '가슴 통증'
YTN사이언스	7.23	남성 중심 실험은 그만! 과학 속 성 편견 줄이자
여성신문	8.30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네트워크 강화 · 정책지원' 필요
부산일보	8.30	미래부산의 성장동력, 여성과학기술인 제51회 과학기술 여성리더스포럼,부산 개최

매체	보도일	제목
매일경제	9.10	[매경춘추] 편견이라는 것 (유명희 회장 기고)
정책브리핑	9.12	젠더혁신 확산과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매일경제	9.18	[매경춘추] 회심의 미소 (유명희 회장 기고)
한겨레	9.21	[미래&과학] "여성-남성 모두 건강 위해선 성차 이해 '젠더의학' 필요"
매일경제	9.29	[매경춘추] 내재적 갈등 (유명희 회장 기고)
매일경제	10.8	[매경춘추] 플랫폼은 만능인가 (유명희 회장 기고)
매일경제	10.24	[매경춘추] 차이의 이해 (유명희 회장 기고)
뉴스웍스	10.6	여성과총, 과학커뮤니케이션포럼 개최
동아사이언스	10.8	[과학계시판] 중앙과학관 전국과학경진대회 순회전시 외
독서신문	10.23	[책 읽는 대한민국] 『벤처 하는 여자들』
매일경제	10.24	[매경춘추] 공익이란 (유명희 회장 기고)
파이낸셜뉴스	10.24	[책을 읽읍시다] 한국여성 벤처기업 대표 5인을 만나다
뉴스웍스	10.24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벤처하는 여자들' 출간
여성신문	10.24	여성기업가 5인의 생생한 창업스토리... '벤처 하는 여자들' 출간
파이낸셜신문	10.27	여성과총, 인간중심 과학기술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한겨레	11.1	여성 벤처기업가들 한국에서 사는 법
아주신문	11.1	'벤처 하는 여자들'.. "이유가 있기에 도전했다"
머니투데이	11.1	여성과총 차기 회장에 정희선 前 국과수 원장
코메디닷컴	11.3	왜 임상 시험은 '건장한 20대 남성'이 표준일까?
뉴스웍스	11.15	여성과총, '과학커뮤니케이션 포럼' 개최...초연결 세상에서 소통하기
뉴스웍스	11.26	여성과총, 여성과학기술인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간담회 개최
KAM1660	11.17	여성, 과학의 중심에 서다 *K-radio AM1660은 미국 내 한인방송으로, 장준환 변호사가 진행하는 전문 비즈니스 토크프로그램
메디컬투데이	11.28	연구실 안전사고 피해, 남녀 비율 역전...지나해 여성이 53%

주요사업

IT여성기업인협회 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 글로벌여성ICT네트워크 대구경북여성과학기술인회 대한가정학회 대한금속재료학회 여성위원회 대한약사회 여약사회 대한여성건축사회 대한여자치과의사회 대한여한의사회 대한의용생체공학회 여성위원회 대한전기학회 여성과학기술위원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대한화학회 여성위원회 대한환경공학회 여성과학위원회 동

아시아식생활학회 동아시아여성과학기술인회 복식문화학회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유망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 지속가능과학회 충북여성과학기술인회 한국간호과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 여성위원회 한국공업화학회 여성인재육성위원회 한국기술사

회 여성위원회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여성위원회 한국물리학회 여성위원회 한국생활과학회 한국세라믹학회 여성세라미스트부

회 한국수자원학회 여성위원회 한국시니어여성과학자 협의회 한국식생활문화학회 한국식품조리과학회 한국여성건설인협

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여성수리과학회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한국여성정

보인협회 한국여성해양포럼 한국여자의사회 한국영양학회 한국의류산업학회 한국의류학회 한국임상영양학회 한국자동차공학

회 여성위원회 한국전기화학회 여성위원회 한국정보과학회 여성위원회 한국정보보호학회 여성위원회 한국정보처리학

회 여성위원회 한국정보통신학회 여성ICT위원회 한국통계학회 여성위원회 한국통신학회 여성위원회 한국화학공학회 여

성위원회 소비자와 함께 난문화협동조합 유럽한국여성과학기술자협회(EKWSEA) 재미여성과학기술자협회(KWISE) 재아

태한인여성과학자협회(KOWSEAP)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 여성과학기술인위원회(AKCSE-WISE) 한국과학사학회 IT여성기업인

협회 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 글로벌여성ICT네트워크 대구경북여성과학기술인회 대한가정학회 대한금속재료학

회 여성위원회 대한약사회 여약사회 대한여성건축사회 대한여자치과의사회 대한여한의사회 대한의용생체공학회 여성위원회 대

한전기학회 여성과학기술위원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대한화학회 여성위원회 대한환경공학회 여성과학위원회 동아시아

식생활학회 동아시아여성과학기술인회 복식문화학회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유망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 지속가능과학

회 충북여성과학기술인회 한국간호과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 여성위원회 한국공업화학회 여성인재육성위원회 한국기술사회 여성

위원회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여성위원회 한국물리학회 여성위원회 한국생활과학회 한국세라믹학회 여성세라미스트부회

한국수자원학회 여성위원회 한국시니어여성과학자 협의회 한국식생활문화학회 한국식품조리과학회 한국여성건설인협회 한국여

성건축가협회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여성수리과학회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한국여성정보인협

회 한국여성해양포럼 한국여자의사회 한국영양학회 한국의류산업학회 한국의류학회 한국임상영양학회 한국자동차공학회 여성

위원회 한국전기화학회 여성위원회 한국정보과학회 여성위원회 한국정보보호학회 여성위원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여성위원회

한국정보통신학회 여성ICT위원회 한국통계학회 여성위원회 한국통신학회 여성위원회 한국화학공학회 여성위원회 소비자와

함께 난문화협동조합 유럽한국여성과학기술자협회(EKWSEA) 재미여성과학기술자협회(KWISE) 재아태한인여성과학자협회

(KOWSEAP)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 여성과학기술인위원회(AKCSE-WISE) 한국과학사학회 IT여성기업인협회 광주

전남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 글로벌여성ICT네트워크 대구경북여성과학기술인회 대한가정학회 대한금속재료학회 여성위원회

대한약사회 여약사회 대한여성건축사회 대한여자치과의사회 대한여한의사회 대한의용생체공학회 여성위원회 대한전기학회 여성

과학기술위원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대한화학회 여성위원회 대한환경공학회 여성과학위원회 동아시아식생활학회 동아시아

여성과학기술인회 복식문화학회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유망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 지속가능과학회 충북여성과학기술인회 한국간호

과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 여성위원회 한국공업화학회 여성인재육성위원회 한국기술사회 여성위원회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여성위원회 한국물리학회 여성위원회 한국생활과학회 한국세라믹학회 여성세라미스트부회 한국수자원학회 여성위원회 한국시니어여성

과학자 협의회 한국식생활문화학회 한국식품조리과학회 한국여성건설인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한

국여성발명협회 한국여성수리과학회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한국여성정보인협회 한국여성해양포럼 한국여자의사회

한국영양학회 한국의류산업학회 한국의류학회 한국임상영양학회 한국자동차공학회 여성위원회 한국전기화학회 여성위원회

주요문헌

이 글은 2014년 12월 15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이 글은 2014년 12월 15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이 글은 2014년 12월 15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이 글은 2014년 12월 15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주요문

이 글은 2014년 12월 15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이 글은 2014년 12월 15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이 글은 2014년 12월 15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이 글은 2014년 12월 15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 이 보고서는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로부터 위탁수행한 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지원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주요문

이 글은 2014년 12월 15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이 글은 2014년 12월 15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이 글은 2014년 12월 15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이 글은 2014년 12월 15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18 여성과총 활동보고서
2018 KOFWST Annual Report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